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Preservation of Hanok Village on Rural Area
through the Diagnosis of Change in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Jeollanam-do

신치후 Shin, Chihoo
진태승 Jin, Teseung
김종범 Kim, Jongbum

(a u r i

AURI-한옥-2016-1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Preservation of Hanok Village on Rural Area
through the Diagnosis of Change in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Jeollanam-do

지은이: 신치후, 진태승, 김종범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05호

인쇄: 2016년 12월 28일, 발행: 2016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6,000원, ISBN: 979-11-5659-112-2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신치후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진태승 연구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Ⅰ 보조원 이오연 행정인턴

Ⅰ 연구자문위원 곽춘섭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주무관
 김 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흥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근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최남호 영암군 구립면 前 면장
 박희연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 사무국장

연구요약

농촌마을은 인구 감소, 고령화, 농촌경제활동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농촌지역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쇠퇴와 변화 과정에서 전통 주거지로서의 특성을 잃기 십상이며, 이 같은 마을 내에서 늘 보존과 개발의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한옥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마을로 유지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변화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오래된 한옥마을을 보호하고 진흥할 목적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옥보존시범마을은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따른 마을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유관 법령에 근거해 볼 때 읍면의 지역에 있고,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있는 마을로서 건축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생활 및 생산 공간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한옥·변형된 한옥·비한옥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다. 농촌마을 보존과 관련된 논의는 해당 마을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전통을 과거처럼 유물화하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농촌지역의 유산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농촌마을의 전통성과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며, 동시에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마을 단위에서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선도적 사례가 부족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되는 점은 정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점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지원 제도 및 사업은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조사나 계획 없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변화 분석 사례는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중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던 영암 구림마을, 담양 삼지내마을, 함평 운곡·모평마을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영암 구림마을은 16~17세기 사족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동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 문중들의 가옥, 사우와 정자, 죽정서원 등의 건축자산이 남아있다. 구림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한옥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한옥 신축에 대한 지원도 역사적인 마을권역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인 건축물 단위로 진행되었다. 농촌 지원사업으로는 왕인촌 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 목적의 박물관, 체험관, 전시관 등 공공건축물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 농촌생산시설, 체육공원 및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대부분은 마을 규모에 비해 면적이나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가 많다.

담양군 삼지내마을은 임진왜란 때부터 이어져 온 고씨집안의 집성촌으로 1890년대부터 지어진 건축물이 다수이며, 고택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돌담, 그리고 마을 내부로 흐르는 물길로 유명한 마을이다. 삼지내마을의 2000년대 이후 신축행위가 단 6건으로 전체적인 마을의 형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마을 내 퇴락하여 빈집으로 남아있는 한옥이 상당수이며,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에 따른 한옥 수선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농촌 지원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창평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누각 보수, 일주문 설치 등 시설 정비 사업이 일부 진행되었고, 농민건강증진센터, 쌀엿 체험장 등 공공건축물이 한옥으로 지어졌다. 삼지내마을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옛 담장을 보수하고 마을 내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주거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비전을 제시할만한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함평 운곡·모평마을은 15세기 파평 윤씨의 집성촌으로 성장한 마을로 마을 내에 고택, 정자, 제실, 우물 등이 남아있고 주변의 천연보호림으로 유명하다. 상곡리 권역은 상모마을, 하모마을, 운곡마을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 운곡마을에 4동의 한옥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축되었다. 상모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따른 지원이 아닌, 새로운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는 행복마을 사업으로 10호 이상의 한옥이 신축되었다. 운곡마을의 경우 기존 한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지역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은 데다 새로 지어진 한옥건축물은 배치 형태 등이 전통적인 형식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고택 등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상모마을의 경우에도 새로 지어진 한옥의 규모나 비례가 기존 가옥과 조화롭지 못하다. 농촌 지원사업으로는 해보면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이 2003년부터 진행되어 담장 정비, 연못 조성, 물레방아 복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한옥마을로서의 정체성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적인 농촌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마을의 공간변화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농촌지역 한옥마을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마을 보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②「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농촌지역 마을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의 필요성을 타진한다. 또한 ③농촌지역 지원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건축자산과 연관된 신규 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상향식 사업 방식에서 한옥과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마을단위 관리계획을 통하여 농촌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의 맹점을 보완함으로써,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지속가능한 있는 정책적 지원을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농촌지역 한옥마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보존시범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 관련 이론 및 제도 고찰	9
1.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의 개념과 세계적 흐름	10
1)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개념	10
2) 농촌지역 마을 보전 제도 및 이론의 세계적 흐름	17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련 국내 법제도 고찰	32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32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34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	35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원사업	36
제3장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	41
1. 한옥보존시범마을 개요	41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제도적 근거	41
2)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대한 지원	43
3)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에 대한 전라남도 정책의 변화	43

2. 한옥보존시범마을 현황 및 문제점	46
1) 지정대상 선정 및 마을범위 설정의 문제	46
2) 한옥건축비용 지원방식	47
3)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부재	49

제4장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및 진단 51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의 개요	51
1) 분석의 목적	51
2) 분석 대상 및 범위	52
3) 분석 방법	53
2.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공간변화를 중심으로	54
1) 영암군 구림마을	54
2) 담양군 삼지내마을	63
3) 함평군 운곡·모평마을	73
3.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농촌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82
1) 영암군 구림마을	83
2) 담양군 삼지내마을	92
3) 함평군 운곡·모평마을	104
4. 소결: 농촌지역 한옥마을 변화 진단 종합	111

제5장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117

1. 마을단위의 한옥마을 보전·관리계획 수립	117
1) 마을단위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활용	117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 수립방향	119
2. 농촌지역 지원사업과의 통합·연계 방안	121

참고문헌	123
------------	-----

Summary	126
---------------	-----

표차례

[표 1-1]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대상 범위	5
[표 1-2] 한옥 및 한옥마을의 법적 정의	6
[표 1-3]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	7
[표 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정의	10
[표 2-2] 농촌마을의 범위	12
[표 2-3]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농촌경향성	13
[표 2-4] 농촌 공간 분류	13
[표 2-5] 농촌지역 한옥 유형	15
[표 2-6] 「한옥등건축자산법」 기준에 맞추어 본 농촌 한옥 유형	16
[표 2-7] 농촌 유산 정의의 변화	20
[표 2-8] “Resolution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 Activ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ups and Areas of Buildings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중 일부 발췌 번역문	24
[표 2-9] ICOMOS(2005), “The Seoul Declaration on Tourism in Asia’ s Historic Towns and Villages 2005” 전문, 2.2, 3.4 중 발췌	26
[표 2-10] Valletta Principles 중 일부 발췌	27
[표 2-11] UNESCO Asia-Pacific Heritage Award 수상작	28
[표 2-12] Valletta Principles - Proposals and Strategies	29
[표 2-13] 보존과 보전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석	31
[표 2-14]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32
[표 2-15] 농촌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해당 유형	32
[표 2-16] 건축자산 기초조사 포함 사항(「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4호 중)	33
[표 2-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분류	38
[표 2-18]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주요내용	39
[표 2-1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사업 내용	40

[표 3-1]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현황(2015.12. 기준)	42
[표 3-2]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현황(2015.12. 기준)	47
[표 4-1] 구림마을 일반현황	54
[표 4-2]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 변화상	58
[표 4-3]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 변화상	59
[표 4-4]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지원 현황	60
[표 4-5] 삼지내마을 일반현황	64
[표 4-6] 삼지내마을 내 민속문화재 및 고택	67
[표 4-7]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70
[표 4-8]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71
[표 4-9] 운곡·모평마을 일반현황	74
[표 4-10]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76
[표 4-11]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의 마을 변화상	78
[표 4-12] 운곡·모평마을 한옥지원 현황	79
[표 4-13]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에 실행된 농촌 사업	82
[표 4-14] 구림마을 지원사업	84
[표 4-15] 왕인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지역역량강화(S/W)사업	88
[표 4-16] 영암군 왕인촌 권역 종합정비사업	91
[표 4-17] 삼지내마을 한옥 및 한옥 관련 사업	92
[표 4-18] 창평면사무소 공사내역	96
[표 4-19] 창평 권역 연차별 사업비 집행상황	98
[표 4-20] 창평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99
[표 4-21] 삼지내마을 기타 지원사업	103
[표 4-22] 함평군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4
[표 4-23]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타 지원사업	110
[표 5-1]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118
[표 5-2] 상향식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 건의(안)	120
[표 5-3]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련 중앙정부 지원 연계사업 예시	121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대상의 범위	5
[그림 2-1] 농촌지역의 정위와 범위	11
[그림 2-2] Former Barracks, Jerome County, Idaho(좌), Historic Rural Schoolhouses, Helena, Montana(우)	18
[그림 2-3] 농촌 유산의 관찰 및 평가방법론(1)	22
[그림 2-4] 농촌 유산의 관찰 및 평가방법론(2)	23
[그림 2-5]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건축 스케일의 조화 사례)	30
[그림 2-6] 「한옥등건축자산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항	34
[그림 2-7] 유지보전형 농촌마을 리모델링 개념도(전남 진도 안농마을)	36
[그림 2-8] 연계개발형 농촌마을 리모델링 개념도(충남 서천 송림마을)	36
[그림 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37
[그림 2-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흐름(기능별 분류 중심)	38
[그림 3-1] 한옥구역의 범위	44
[그림 3-2] 한옥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	45
[그림 3-3] 문화재 가옥을 기반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나주 도래마을)	46
[그림 3-4] 자연자원(월출산)을 기반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영암 용흥·회문) ...	46
[그림 3-5] 영암군 용흥·회문리 지원한옥 분포 현황(면적이 넓은 경우)	48
[그림 3-6] 구례군 수락마을 지원한옥 분포 현황(면적이 좁은 경우)	48
[그림 3-7] 삼지천마을 주변 경관사업 제안	49
[그림 4-1] 영암군 용흥·회문리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범위	52
[그림 4-2] 구례군 수락마을 내 지원받은 한옥(좌), 기존 가옥군(우)	52
[그림 4-3] 영암군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범위	54
[그림 4-4] 구림마을 한옥분포	55
[그림 4-5] 구림마을 포함하는 행정경계	55
[그림 4-6] 구림마을 간척지	56

[그림 4-7] 구림마을 역사적 마을권 (역사적 맥락과 2016년 현황의 중첩, 추정)	56
[그림 4-8]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 변화상	58
[그림 4-9]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 변화상	59
[그림 4-10] 주거 변천사 야외 전시장 사업부지(현재 한옥 펜션 휴림, 2016.11.)	60
[그림 4-11] 구림마을 신축 지원 한옥 배치유형	61
[그림 4-12] 신규부지조성에 따른 마을 경계의 변화	61
[그림 4-13] 맥락순응형 한옥 배치유형(동구림리)	62
[그림 4-14] 죽정마을 단독건축형 한옥	63
[그림 4-15] 삼지내마을 행정구역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경계	63
[그림 4-16] 삼지내마을 한옥분포	65
[그림 4-17] 삼지내마을 도시지역 및 농림지역 현황	65
[그림 4-18] 삼지천 수공간 창평초등학교 북측 천변(좌), 삼지내마을 물길(우)	66
[그림 4-19] 창평춘강고정주고택(좌상, 좌하), 담양고재환가옥(우)	67
[그림 4-20] 창평면 돌담 원형 추정 및 쌓기 방식	68
[그림 4-21] 삼지내마을 돌담길 및 문화유산 현황	69
[그림 4-22]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70
[그림 4-23]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72
[그림 4-24] 상곡리 한옥마을 현황	73
[그림 4-25] 상곡리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73
[그림 4-26] 상곡리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시설	74
[그림 4-27] 상곡리 취락지구 및 한옥 신축 지원 현황	75
[그림 4-28] 운곡·모평마을 한옥분포	75
[그림 4-29] 한옥민박(좌), 한옥다실(우)	76
[그림 4-30]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77
[그림 4-31] 모평마을 산내길 확장공사(2016.06.)	78
[그림 4-32]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의 마을 변화상	79
[그림 4-33] 운곡마을 신축 한옥 1	80
[그림 4-34] 운곡마을 신축 한옥 2	80
[그림 4-35] 모평마을 경로당(좌) 및 행복마을정보화센터(우)	81
[그림 4-36] 행복마을 지원 한옥	81
[그림 4-37] 영암군 월출산 중심 관광종합개발계획도(2014.10.)	86
[그림 4-38] 구림마을 취락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87

[그림 4-39] 상대포 공원, 회사정, 마을쉼터(좌측부터)	87
[그림 4-40] 왕인촌 대동누리관(지역역량강화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농촌체험휴향마을 사무국)	89
[그림 4-41] 행복마을 콘테스트 구림마을 발표 자료(마을 컨설팅업체 제작)	89
[그림 4-42] 한옥보존시범마을과 농촌지역 지원사업의 장소적 관계	90
[그림 4-43] 주민 체육시설, 죽정마을회관, 동계마을회관, 한옥쉼터(좌측부터)	90
[그림 4-44] 군서 구림천 정비 및 보행로 조성: 정비 이전(좌), 정비 이후(좌측 두 번째부터)	90
[그림 4-45] 농촌지역 소득증대 지원 시설: 전통가마솥 누룽지 가공공장(구림마을), TMR사료공 장(군서면 권역), 삼지내마을 쌀엿 체험장, 해보농공단지(좌측부터)	91
[그림 4-46] 삼지천마을 체험관	93
[그림 4-47] 공가 현황 사진	94
[그림 4-48] 창평면사무소	95
[그림 4-49] 창평면사무소 업무공간(좌), 창평면사무소 주민참여공간(우)	95
[그림 4-50] 2012년도 이전 창평면사무소	96
[그림 4-51] 문화사랑방(좌), 전통가옥 보수(우)	97
[그림 4-52] 보건소를 개조한 달팽이가게(방문자 센터)	97
[그림 4-53] 남극루	100
[그림 4-54] 슬로시티 일주문	101
[그림 4-55] 창평면 쌀엿 체험장	101
[그림 4-56] 창평면 농민건강증진센터	102
[그림 4-57]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4
[그림 4-58] 물레방아 복원(좌) 및 인공 섬 조성(우)	106
[그림 4-59] 조경 시설물(울타리, 좌) 설치 및 마을공원 조성(우)	106
[그림 4-60] 마을 담장(좌), 수벽사 담장(우)	107
[그림 4-61] 모평현 숙박시설 개보수	107
[그림 4-62] 하모마을 쉼터(좌), 산내길 쉼터(중), 상모마을 정화연못(우)	108
[그림 4-63] 해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9
[그림 4-64] 해보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109
[그림 4-65] 구림마을 한옥 증축현황(상), 삼지내마을 한옥 증축현황(하)	112
[그림 4-66]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한옥의 기능과 마을 발전 방향	114
[그림 4-67] 단양군 한드미 마을 영농조합법인(좌상), 홍성군 문당리마을 적정기술체험관(우상), 영암군 금정면 모정마을(하)	114
[그림 4-68] 변형한옥의 분포(운곡 · 모평마을 현황)	116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농촌마을의 쇠퇴와 정책적인 지원에 따른 변화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경제활동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쇠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농촌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각종 농산어촌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마을은 커다란 변화를 겪기도 한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농경지·마을·자연 경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 내외이고, 응답자의 63.5%는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¹⁾ 이는 그간 농촌마을의 변화가 적어도 경관형성의 측면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며, 농촌지역 및 마을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²⁾

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02.17.), “농어촌지역 난개발 실태에 대해 응답자 63.5%가 심각하다고 인식 -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참고.

2)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2011), 농어촌 토털 디자인 기술개발(2013), 농촌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2013), 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 개정(2015)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중.

□ 보전³⁾과 개발의 가치가 상충하는 농촌지역 한옥마을

농촌지역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⁴⁾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농촌마을과 같이 쇠퇴와 변화 과정에서 전통주거지로서의 특성을 잃기 십상이며 마을 내에서 보존과 개발의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농촌지역의 한옥은 도시지역의 한옥과 달리, 지역산업과 유리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농촌지역의 한옥은 현재까지도 농업 등 생계유지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주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지역에 집단화된 한옥 및 한옥마을은 그 태생이 근대 도시화로부터 비롯되었거나 비교적 근래에 관광⁵⁾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군집의 객체인 한옥이 지역기반의 생업공간과 일치하는 경우는 농촌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한옥마을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목표·비전, 시·군 단위에서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전을 위한 방침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공간인 마을 단위에서는 개발이라는 명제는 보전의 가치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충하는 가치를 조정하는 토지이용 관리수단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법」에 따른 특정경관계획·농어촌경관계획⁶⁾이 수립되고 있으나, 한옥마을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오래된 한옥마을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옥보존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보존은 영미권 문화유산 분야에서 사용하는 Conservation의 의미라 사용함을 밝힌다. Preservation이 존재하는 원형과 완전성의 파괴를 지체시키므로 현재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Conservation은 문화유산의 세이프 가딩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함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출처: Frank Matero(2000), "Ethics and Policy in Conservation", *Conservation Perspectives, The GCI Newsletter 15.1*, 재구성) 국내에서는 이 두 용어를 각각 보전 또는 보존으로 번역하여 혼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용어와 의미가 교차하는 경우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전이라는 말을 대표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제하도록 한다.

4) 중요민속문화재(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안동하회마을, 성읍민속마을, 경주양동마을, 고성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등 총 7개 마을이며, 마을 전체가 사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다. 옛 담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은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 16개이다.

5) 최근 조성되는 관광 목적의 테마형 한옥마을은 지역 산업이 관광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과 생활의 공간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시하는 농촌한옥은 한옥 자체를 대상화(Objectification)하는 관광목적의 한옥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역의 맥락 또는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옥마을 중 한옥은, 마을 단위에서는 전체에 속한 부분으로 인식해야한다.

6) 경관법의 시행 이후에도 비도시지역에서 경관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기본 경관계획 수준의 ‘계획’과 마을 단위에서 기본설계 등과 관련된 ‘사업’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이유직, 한국농어촌지역발전 학술단체 연합회 포럼 중, 2016.10.22.)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마을 내에서는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는 한옥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필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촌지역에서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일례로 농촌지역과 관련된 마을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에서 각각 실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과 같이 도 단위의 각종 계획과 사업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각종 정책적인 지원 하에서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여타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한옥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에 따른 한옥마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에 따른 마을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옥보존시범마을은 한옥의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의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농촌지역에 선행적으로 존재했던 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살피는 데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한옥 보존의 개념이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옥 및 한옥마을의 보존을 위한 제도의 실행 형식을 마련하는 좋은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은 각 군별로 공모를 진행하여 지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차원의 기초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한옥 건축에 대한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 등을 요구하는 개별 건축주와 마을 단위 논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마을 단위의 논의로서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을 대신하여, 10호 이상의 집단화된 신축 한옥에 지원하는 ‘전라남도 행복마을사업’을 통한 건축을 할지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소통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한옥보존시범마을을 단순히 한옥의 위한 행위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지역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으로써 타 사업간 예산 및 실행절차의 교류를 살피며, 그 방식이 어떻게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마을 중 한옥이 밀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현황 진단 및 대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보전은 전통적인 마을 양태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농촌지역에 소실되어 가는 한옥마을을 유지 또는 부흥하는 것을 말한다.⁷⁾ 따라서 최근까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련 제도 및 제반 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에서 한옥마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을 위한 행위는 비도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원하는 마을계획 및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농촌의 현황에 적합한 한옥마을 보존·계획·정비의 시의적 당론을 마련하여, 국가적 비전 및 지자체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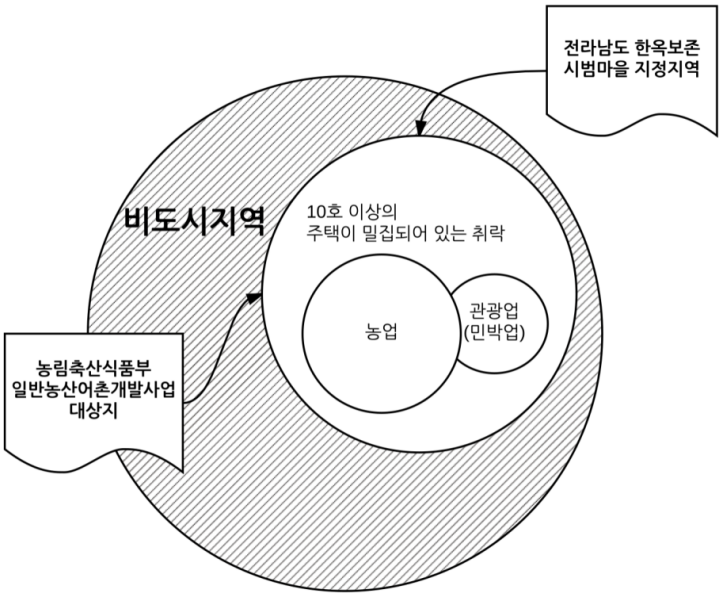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전 정책의 개선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그 주변의 관련 제도에서 발굴하는 것을 큰 줄기로 삼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사업과 계획을 포괄하면서 정립된 지원책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또는 관련되었던 농촌지역의 계획 및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 정비 및 개발이 있고, 둘째는 농촌 체험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서 주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한옥마을의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이 문장은 ICOMOS(1987),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Washington Charter 1987)”에 의거한다. 이 헌장에는 “역사적 마을과 도시지역의 보존”은 각 마을과 지역, 그리고 현대적 삶 조화로운 적응을 위한 보호, 보존, 수리에 필요한 방법상의 절차에 대한 이해라고 적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는 한옥마을 보존에 대한 입장은 이와 같은 맥락이며, 전통적 마을의 원형보전을 포함하여 -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다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이해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마을의 장소 및 형태적 속성에 따른 ‘공간적 경계’, 마을 주요 산업구조를 의미하는 ‘산업적 속성’,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 의해 마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존재했던 대상지를 의미하는 ‘제도적 범위’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대상의 범위

[표 1-1]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대상 범위

공간적 경계	산업적 속성	제도적 범위
비도시 지역에 위치	농업위주 ⁸⁾ 로 구성된 공간구조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 지정지역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취락	농촌 경관 및 체험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관광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8)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이 실행되는 공간의 범주는 농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중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영암군 구림마을·함평군 해보면 운곡·모평마을의 주요 수익창출원이 농업임을 감안하여 속성의 범주를 농업으로 한정한다.

위와 같이 한옥마을의 대상 범위를 설정한 것은 문화유산으로서의 한옥 및 한옥마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농촌의 자리한 한옥을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로 이해할 경우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보존 방침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까지의 농가 중 80%는 초가집이었으나,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근대화의 국가적 의지⁹⁾를 실천하는 단계에서 전통건축물 중심의 취락은 훼손된다. 따라서 한옥의 법적 정의에 의해서 바라보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제한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옥마을에 대한 보존과 개발, 정비 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이미 완전성이 결여¹⁰⁾되어 있으며, 보전(補填)이 필요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표 1-2] 한옥 및 한옥마을의 법적 정의

한옥	한옥마을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17조)

이에 따라서 농촌 마을의 공간적 경계는 비도시 지역으로 정한다.¹¹⁾ 비도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의거한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취락으로 설정된 경계는 「한옥등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을 적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한옥마을로 연구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주택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농촌지역 마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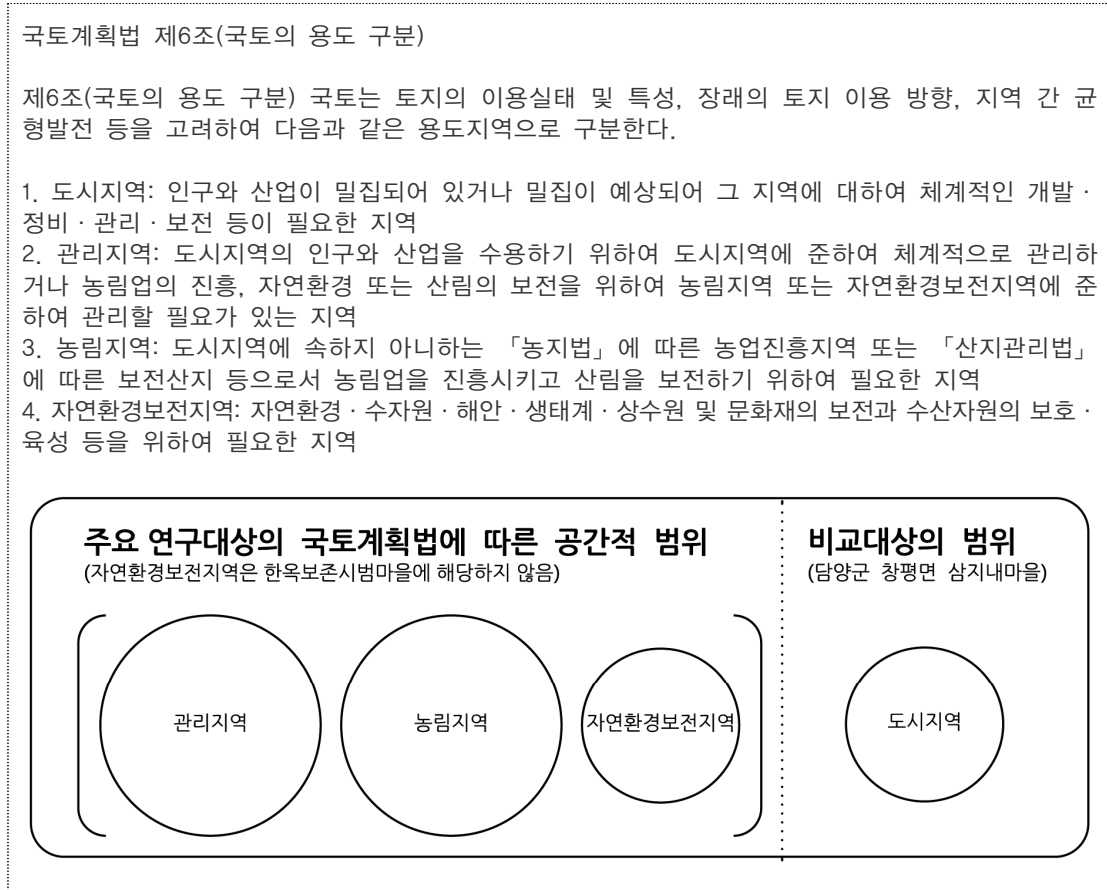
9) 국가기록원(2016), “새마을운동 기록과 현장”,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semaul/field01.do>, 검색일: 2016.07.08.

10) 건축 및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완전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완전성의 개념은 제2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차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 목적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농촌지역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해한다.

11)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루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의 한옥보존시범마을인 삼지내마을은 그 경계가 실제로는 ‘도시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촌의 정의를 따르면 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지내마을을 제외한 다른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내마을을 포함한다.

이해한다.

[표 1-3]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



산업적 속성은 농업이 주된 산업을 이루는 지역을 의미한다. 농지에 따라 농촌을 정의한다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¹²⁾가 대부분을 이루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내 농지의 비율을 정량화하여 대상을 이해하지 않으며, 행정구역상 농가인구 비율로 농촌임을 판단하도록 한다. 선정 대상지 산업 비율 중 농업의 몫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농촌 경관 및 체험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관광업을 농촌지역의 소득원 중 하나로 이해한다.¹³⁾

12) 「농지법」 제2조.

13) 농촌마을의 산업적 특성에 관광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농촌경제 붕괴 등에 따라 대안적 산

제도적 범위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마을 및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를 연구 범위로 포함한다. 한옥보존시범마을은 제정 목적에서 명쾌히 한옥의 보호를 위하여 마을을 지정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농촌의 정비 및 개발이 선행적으로 기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서 한옥보존시범마을은 장소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한옥의 보존 및 보호가 반드시 원형에 대한 형태적 지속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한옥마을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이분법적인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로써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고찰

-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따른 한옥보존시범마을
- 농촌관련 지원법 및 이 법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 검토
- 농촌지역 및 마을의 보전과 관련된 이론 고찰

□ 한옥보존시범마을 현황 조사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현황 등 개요 파악
- 지정 대상에 대한 계획·사업 자료 수집
- 지정 대상에 대한 예산 활용 내역 조사
- 대상지 내 농촌마을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 한옥보존시범마을 변화 진단

- 연도별 항공지도 수집분석
- GIS를 통한 공간정보화 및 지표 도출
-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대한 진단 및 보존 방안에 대한 지역 대표 및 사무장 인터뷰

업 역시 한옥마을 보존 철학의 방향성에 따라 존속될 수 있는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제2장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 관련 이론 및 제도 고찰

1.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의 개념과 세계적 흐름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련 국내 법제도 고찰

본 장에서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보존과 관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의 상황만으로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지역에 대한 세계적 움직임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우 OECD 지표에 의하면 도시화가 진행된 농촌지역인 (IN)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 농촌상황이 완전한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옥마을 보전 관련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국내 관계법뿐만 아니라, 해외의 농촌유산과 관계된 현황을 살피므로 ‘건축자산으로서의 농촌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건축자산의 범주에서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이해하는 이유는 농업 생산 활동 및 기타 관광사업, 농촌 경관 및 개별건축물에 대한 개발과 보존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르면 전국토의 모든 건축물은 잠재적인 자산의 가치를 내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건축물 역시 한옥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축물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마을 등 집단적 유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는 농촌 지원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가 농촌 환경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주민 생활기반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비, 사업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를 한옥마을 보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의 개념과 세계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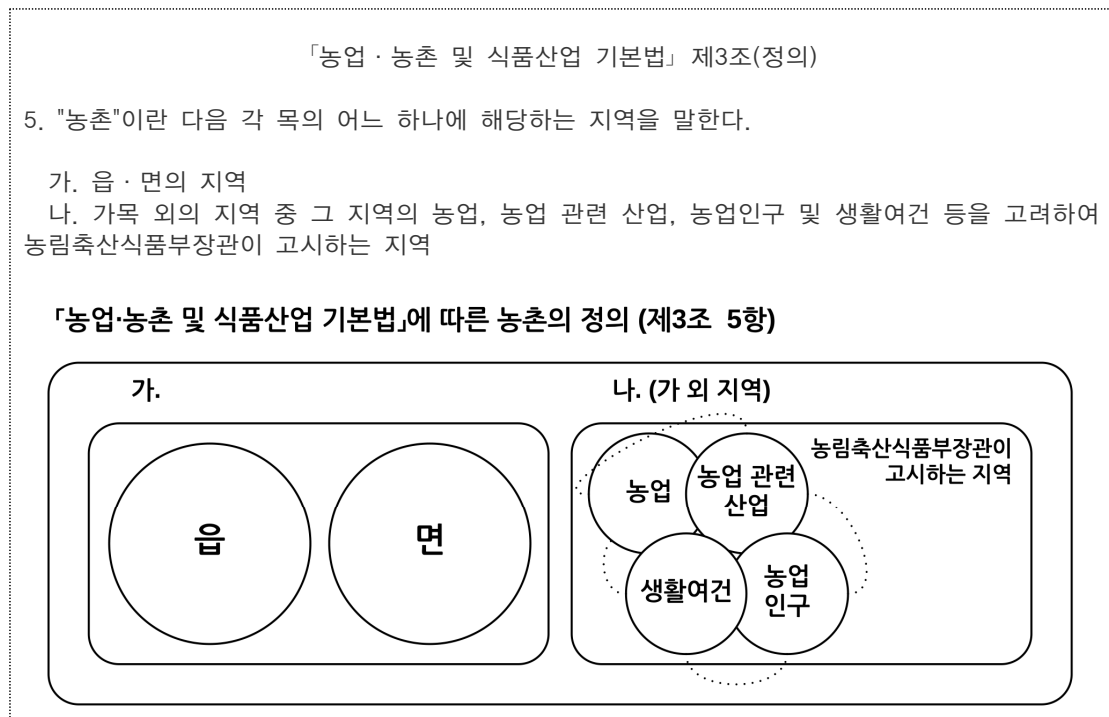
1)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개념

① 농촌지역의 범위 설정

□ 법적 정의에 따른 농촌의 범위

농촌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법적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르면 농촌의 범위는 ‘읍·면의 지역’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고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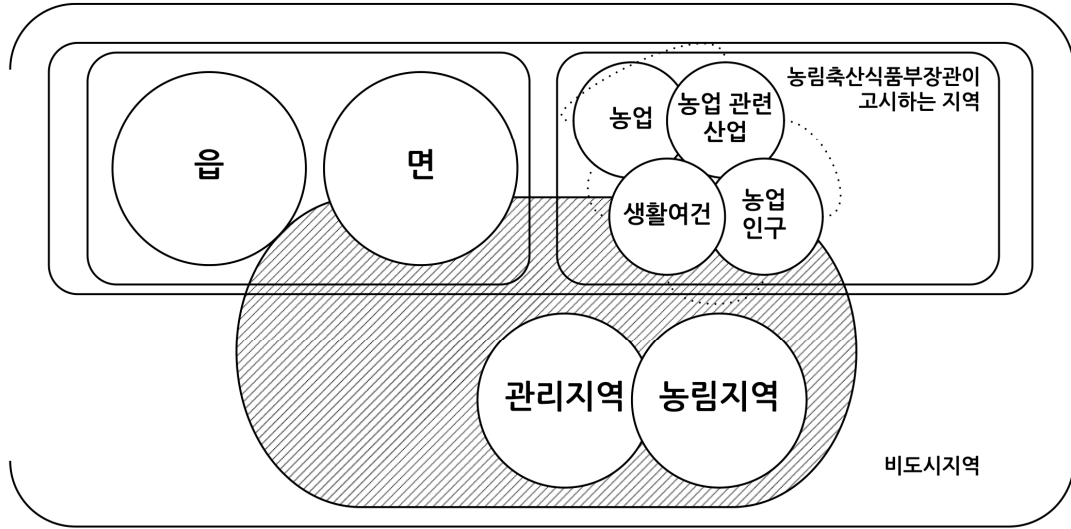
[표 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정의



위에서 살핀 농촌의 법적 정의는 행정구역과 산업, 인구·생활여건을 통하여 농촌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 농촌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다소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농촌지역의 큰 테두리는 가목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와 교집합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교집합에 따른 농촌지역 범위



[그림 2-1] 농촌지역의 정의와 범위

비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농촌지역을 도시지역 밖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에서 작동하는 지구단위계획¹⁴⁾과 같은 체계적 관리수법이 농촌지역에서는 수립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내에서는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가 상충할 때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기본으로 하여, 환경관리계획·경관계획 -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담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¹⁵⁾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변경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당해 지역이 추구해야할 기본적 방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장소이다. 농어촌 경관 및 농어촌민의 삶의

1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함이다. (출처: 「국토계획법」 제2조)

15)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들이 제정된 점은 이런 요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위와 같은 정책적 이슈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 통계적 정의에 따른 농촌마을의 범위

앞서 정성적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범위를 설정했으나, 정량적으로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지표화 되어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인구 규모·인구의 구성적 특성(질적 특성)·경제적 지표·사회적 특질¹⁶⁾에 따른 분류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농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주된 속성으로 산업적 측면을 살피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적합한 구분 기준은 인구의 구성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농촌마을의 범위

농촌 경향성	총 인구 대비 농촌지역(Rural Local) 거주 인구 비율
Predominantly Urban (PU)	15% 이하
Intermediate (IN)	15% ~ 50%
Predominantly Rural (PU)	50% 이상

OECD Regional Typology를 따르면, 15~50%의 인구가 지방(Rural Local)에 거주하면 Intermediate(IN)으로, 지방에 50%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면 Predominantly Rural(PR)로 규정하고 있다.¹⁷⁾ OECD는 지방(Rural Regions)을 농업 생산물과 직접 관계하는 지역으로 말하고 있는데¹⁸⁾,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 Rural Local을 농업지역으로 치환하였다. 이 틀을 활용하여 연구의 대상지인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농촌 경향성을 이해하면 모든 지역이 중급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6) 강대구(2009),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 기준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v.16 no.3, 한국농촌지도학회, p.560.

17) 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2011), *OECD Regional Typology*, p.3., 강대구(2009)는 OECD의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농촌을 구분하여, 농촌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로 절대농촌지역 - 상대농촌지역을 구분하였다.

18) OECD(2016), “Rural Development - the Issues”, <http://www.oecd.org/governance/regional-policy/oecdworkonruraldevelopment.htm>, 검색일: 2016.09.10.

[표 2-3]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농촌경향성

한옥보존시범마을 (3개 마을)	농가인구 ¹⁹⁾	총인구 ²⁰⁾	농가인구 비율	OECD 농촌경향성 분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1493	3377	44.2%	(IN)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1088	4198	25.9%	(IN)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880	2996	29.3%	(IN)

인구 구성상의 특성이 농촌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농촌지역 공간구성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특정 산업이 높은 비중의 인구구성과 관련되더라도 해당 인구의 주생활 공간이 지역 산업에 맞추어 변형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이와 달리 농업이라는 산업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일치 또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은 [표 2-4]²¹⁾과 같이 농촌생활공간, 농업생산공간, 자연환경공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촌생활공간은 가옥과 가로경관을 담고 있으며, 농업생산공간은 논·밭·과수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농촌마을은 전통 경관적 측면에서 생활과 생산의 공간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4] 농촌 공간 분류

요소별 경관		
농촌생활공간	농업생산공간	자연환경공간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
상징 및 신앙경관		

농촌주거의 특징으로는 생산부분이 있다는 점을 도시주거와 근본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생산공간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결핍되어있다. 이의 일환으로 농촌환경 및 농기구 변화에 따른 부속사 공간에 대한 주거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생산 도구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는 가로환

19) 통계청(2015), “연령계층 및 성별 농가 인구”, 「2015년도 통계청 - 농림어업총조사」.

20) 통계청(2015), “행정구역별 총인구”, 「2015년도 통계청 - 인구총조사」.

21) 김상범 외(2013), 「농촌의 전통경관 보전 길라잡이」,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p.7.

22) 한필원(1989), “농촌주거 근대화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공간」, 265호, pp.52~56.

경에도 변화를 야기한다. 트럭 보급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도로체계, 도로와 주거공간사이의 실용적으로 변형되었다.²³⁾ 농촌지역에 전통적인 경관이 사라지게 된 주요 원인은 이처럼 생산공간의 변화와 밀접하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산지, 도로, 공공시설과 농업 창고, 주택 등을 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농촌지역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의

□ 한옥·변형한옥·유사한옥을 포함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본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은 변형 또는 개량된 한옥과 전형적 농가주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옥보존시범마을이 한옥의 집 단 존치 및 이것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마을에서 온전한 형태의 한옥을 쉽게 접하기 어렵다. 법적 테두리에 속한 한옥과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증·개축·대수선 및 수선 등을 통하여 변형이 진행된 한옥,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결과물이 건축적 요소로 특별히 연구되지 않는 실정에서 마을 구성요소의 가치를 쉽사리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나타난 건축양상이 양동·하회 마을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적 취락의 건축물과는 같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농촌지역 한옥은 ①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옥, ② 변형에 의하여 한옥 유산의 완전성(Integrity)²⁴⁾은 없으나, 태생적으로 한옥의 속성은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 ③ 한옥의 일부 의장을 차용하여 외관적으로 한옥과 유사성을 보이는 건축물로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3가지 유형의 건축물에 의하여 구성된 취락을 한옥마을로 보아야한다. ②와 ③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완전성이 결여되

23) 김준, 2016.08.09. 자문회의 중.

24) 완전성의 개념은 유산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폭 넓게 활용되는 개념이다. 완전성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헌은 World Heritage Center(2012)에서 작성한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88조에는 유산의 전체성(Wholeness)과 온전성(Intactness)을 기준삼아, 완전성을 이해하고 있다. 완전성에 요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의 포함 여부
- b) 유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과 과정이 완벽하게 구현될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의 여부
- c)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세계문화유산이 표명하는 완전성의 가치는 농촌지역 한옥과 한옥마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유효하며, 이를 견지할 경우 농촌의 한옥 중 일부는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있지만, 잠재적인 건축자산의 가치를 내재한 한옥마을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도록 한다. 이 요소들은 한옥 유산이 가지는 완전성에 결핍을 채우거나 또는 마을 유산이 가진 맥락(Heritage Setting)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관리될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표 2-5] 농촌지역 한옥 유형

농촌지역 한옥 유형 ①, ②, ③ (영암군 구림마을 사진을 중심으로)			
구분	① (완전성의) 한옥	② 변형된 한옥	③ 유사한옥(한옥건축양식)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한등건축자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옥(유형①-1) - 특별한 건축 및 보수행위가 없더라도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 근대기에 보급된 경량목 구조로 주요 구조를 형성하고, 전체적인 외관에서 한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축물(유형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구조를 구조(기둥, 보, 인방, 서까래)가 외관에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부 재료들이 변형되어 있는 한옥(유형②-2) - 주요구조를 외부에서 인지할 수 없으나, 변형이전에 한옥의 구조가 내부에 남아있는 건축물(유형②-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외형이 한옥과 유사한 형태·규모·색채로 이루어진 건축물(유형③-1) - 목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외형이 한옥과 유사하지만, 규모·색채가 한옥과 이질적인 건축물(유형③-2)
유형1			
유형2			

□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자산으로 바라본 한옥 및 한옥마을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옥마을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자산’에 대한 광의적 해석이 요구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

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²⁵⁾ 한편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²⁶⁾에서는 ‘한옥 구역’을 보호와 진흥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의 한옥 구역은 10호 이상의 한옥 건축 구역²⁷⁾·한옥보존시범마을·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유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옥 구역 내 한옥은 법정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선행하여 만들어져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으나, 잠재적 유산으로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중요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농촌지역에서의 한옥 및 한옥마을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 및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진 한옥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구성요소인 한옥은 법적정의에 따른 한옥 및 이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변형된 한옥·유사한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앞서 정리한 농촌지역 한옥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해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6] 「한옥등건축자산법」 기준에 맞추어 본 농촌 한옥 유형

「한옥등건축자산법」 기준에 맞추어 본 한옥 유형		
① (완전성의) 한옥	② 변형된 한옥	③ 유사한옥(한옥건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전통양식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한옥건축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수선행위 등을 통하여 완전성을 갖추거나 한옥마을 경관에 이로운 건축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옥은 한옥건축양식을 의미함 -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건축물 - 법적으로는 한옥에 속하지 않음

한옥보존시범마을 및 행복마을 사업 등에 의하여 한옥신축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이 ① (완전성의) 한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통양식의 시대적 범위를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경우 20세기에 건축된 다수의 한옥들은 해당되지

25)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정의), 단 지정 및 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6) 2016.10.27. 전부개정 기준.

27)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통양식의 기준은 시대적 기준을 다양하게 넓힌다. ② 변형된 한옥은 농촌지역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태생적으로 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하여 지붕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구조로 건축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쓰임에 따라 지붕을 개조하거나 벽을 보완, 또는 공간을 확장하면서 변형이 이루어진 한옥이 여기에 속한다. ③ 유사한옥(한옥건축양식)은 법적정의에는 한옥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이라는 말로 유사한옥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 또는 기준이 없어서 다소 혼돈의 우려가 있으나, 그 규모와 재료를 논하지 않고 전통적인 맥락을 수용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삼는다.²⁸⁾

2) 농촌지역 마을 보전 제도 및 이론의 세계적 흐름

농촌의 공간적 범위는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은 도시 외에 공간을 의미하며 역사적 맥락을 수용하여 발전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우리나라의 한옥마을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한옥과 같이 역사적인 맥락을 수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이해는 과거처럼 유물화하거나 기념비화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또한 지방의 유산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 공통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형성은 통칭 살아있는 문화유산(Living Culture)²⁹⁾으로 불리는데,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보호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적절히 수용하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① 농촌지역 마을 보전 제도

□ America's Rural Heritage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³⁰⁾

28) 한옥건축양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석은 1956년부터 1997년 사이의 건축물 중 전통성을 반영한 건축물은 외부재료·외부형식·외부조경·내부계획의 분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출처: 이재석(2016), 「건축적 전통성 : 한국 현대건축(1956~2015)에 나타난 전통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p.39.)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형태·구조 또는 재료·기술이라는 광범위한 부분으로 양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특정 표본을 한옥건축양식이라 지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9)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들이 지향하는 살아있는 문화로의 문화유산의 역할은, ‘한 점 위에서 있는 역사적 기념비’가 도시 조직 안에서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여 공존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출처: 김종범 외(2016),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사적지 인근 현상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지」, no.53, p.206.) 살아있는 유산이 담고 있는 현대적 가치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가치로,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경제 및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30)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2016), “America's Rural Heritage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Saving Places*, <https://savingplaces.org>, 검색일:2016.10.31., 번역 및 재구성.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미국의 역사적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1949년 조직된 비영리 단체다. 1996년까지 미국의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보전 캠페인 활동과 보전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방기금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독립적인 사기금 형태의 펀드운영 및 모집을 통하여 국가유산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National Treasures’, ‘11 Most Endangered Historic Places List’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내 다양한 유산의 관리 및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2] Former Barracks, Jerome County, Idaho(좌), Historic Rural Schoolhouses, Helena, Montana(우)
(좌) 출처: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2009), “Factory Farms and America’s Rural Heritag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Summer 2009, p.2.

(우) 출처: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웹사이트: savingplaces.org/places/montana-schoolhouses#.WBcns9WLRhE, 검색일: 2016.10.31.

1992년 개최된 제 17회 ‘Annual Midwest Regional Preservation Conference’에서는 ‘Building From Our Roots: Heritage and Rural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농촌(Rural)³¹⁾의 유산과 발전의 관계에 대해 조망을 하였다. 지방의 발전·공동체의 와해·경제 위축과 인구 문제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의 발전과 더불어 유산의 보전과 농촌 유산 보전을 위한 캠페인, 단체의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산에 대한 보전 방침 등을 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에는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 Preservation Leadership Forum’을 통하여 생산한 “Preservation Based Strategies for Rural Revitalization” 문서³²⁾에서는 ‘궁극적으로 지방유산 보전의 목적은 정주와 관광을 통하여 지방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고양해야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문화적 환경을 보전해야한다고 문서에 적고 있다.

31) Rural을 농촌으로 번역하였다.

32)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 Preservation Leadership Forum(2006),

(출처: <http://forum.savingplaces.org/viewdocument/preservation-based-strategies-for-r>, “Preservation Based Strategies for Rural Revitalization”, *Forum Journal & Forum Focus*, 검색일: 2016.06.07.)

- 시사점

이 제도는 초기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조직을 양성하고 후에 독립적인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국내 농촌지역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이탈 및 자구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자체 단위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예산이 마을 단위로 내려지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각각 독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하는 부담들이 농촌지역 공동체의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이슈를 마련하고 조율하며, 지역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직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이에 대한 지원이 초기단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농촌의 권역사업 및 체험마을 협의체, 마을 프로그램 사업 협의체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 사업에서 독립적 운영 자금과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발의 비전을 전면에 내세워 보전을 추진하는 점이 중요하다. 농촌지역은 생산·생활공간이므로 개발을 배제한 보전계획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국내 상황을 적절히 수용한 독립적인 농촌유산목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초적인 광관 또는 체험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지정문화재,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의 설정은 국가 및 지자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실행시키기까지의 행정자원의 투입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트러스트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을 보호·홍보하는 전략 마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성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CEMAT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The Good Governance Division’에 의하여 정부 간 협력 및 공조를 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CEMAT(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Spatial/Regional Planning)는 이 중 하나로 1970년에 출범하였다. 이 기구는 유럽 대륙의 토지 개발 정책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³³⁾

CEMAT는 2003년 열린 제80회 회의에서,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CEMAT”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농촌(Rural)의 물질적·비물질적 측면에

33) Council of Europe(2016),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http://www.coe.int>, 검색일: 2016.06.07.

서 농촌지역(Rural World)을 문화적·자연적·경관적 유산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 유산들이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호(Protect)와 증진(Promote)의 대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하여 도시(Town)와 비도시(Countryside)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을 찾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유산의 보호를 조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⁴⁾

[표 2-7] 농촌 유산 정의의 변화

좁은 의미(과거에 통용되던 의미)	넓은 의미(현재에 통용되는 의미)
농촌 활동과 관계된 건축물로 구성된 유산 (창고, 풍차, 예배당 등)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통합 토지와 관계하여 형성된 농촌 공동체와의 관계

이 가이드는 지역 및 공간 계획과 유산의 통합 관리하기 위한 유산의 평가(Observation Guide)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유산의 정의가 단순한 농업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란 좁은 의미로부터, 최근 들어서는 토지와 농촌 공동체 사이에서의 생산된 유형과 무형의 모든 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Assigning Heritage Value’ 개념이 중요하고 부각되고 있다. 이 개념은 지역사와 관계한 건설 기술 - 지역 경관이 가지는 미적 가치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유산을 평가해야한다는 개념이다.³⁵⁾ 이는 덜 중요한(Minor) 대상으로 여겨졌던 농촌 유산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Observation Guide는 농촌 유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을 관찰하는 ‘농촌 유산의 관찰 및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이 방법론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³⁶⁾ ① 농촌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지역 전문가 자문단 확보·인구 관련 사항의 해제가 첫 번째 단계이다. 지역의 관찰대상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써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과 보존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가이드에서는 인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개발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탄탄히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② 두 번째 단계는 우선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관찰의 선행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로, 농촌 유산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살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차원의 지역성을 이해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생태지리학적 접근을

34) CEMAT(2003),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p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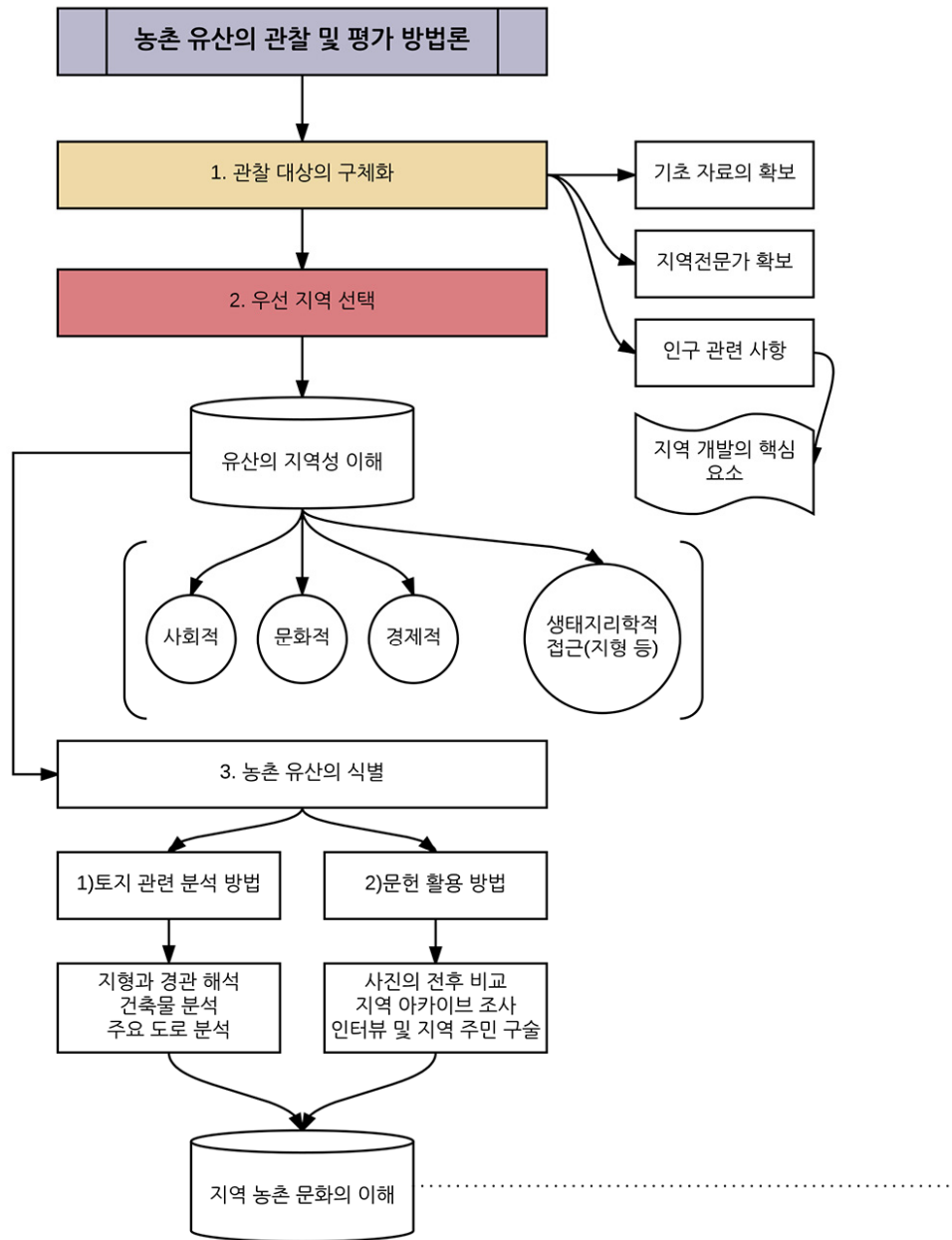
35) CEMAT(2003),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p.8.

36) 본 문단은 앞의 보고서의 포괄적 내용을 번역 및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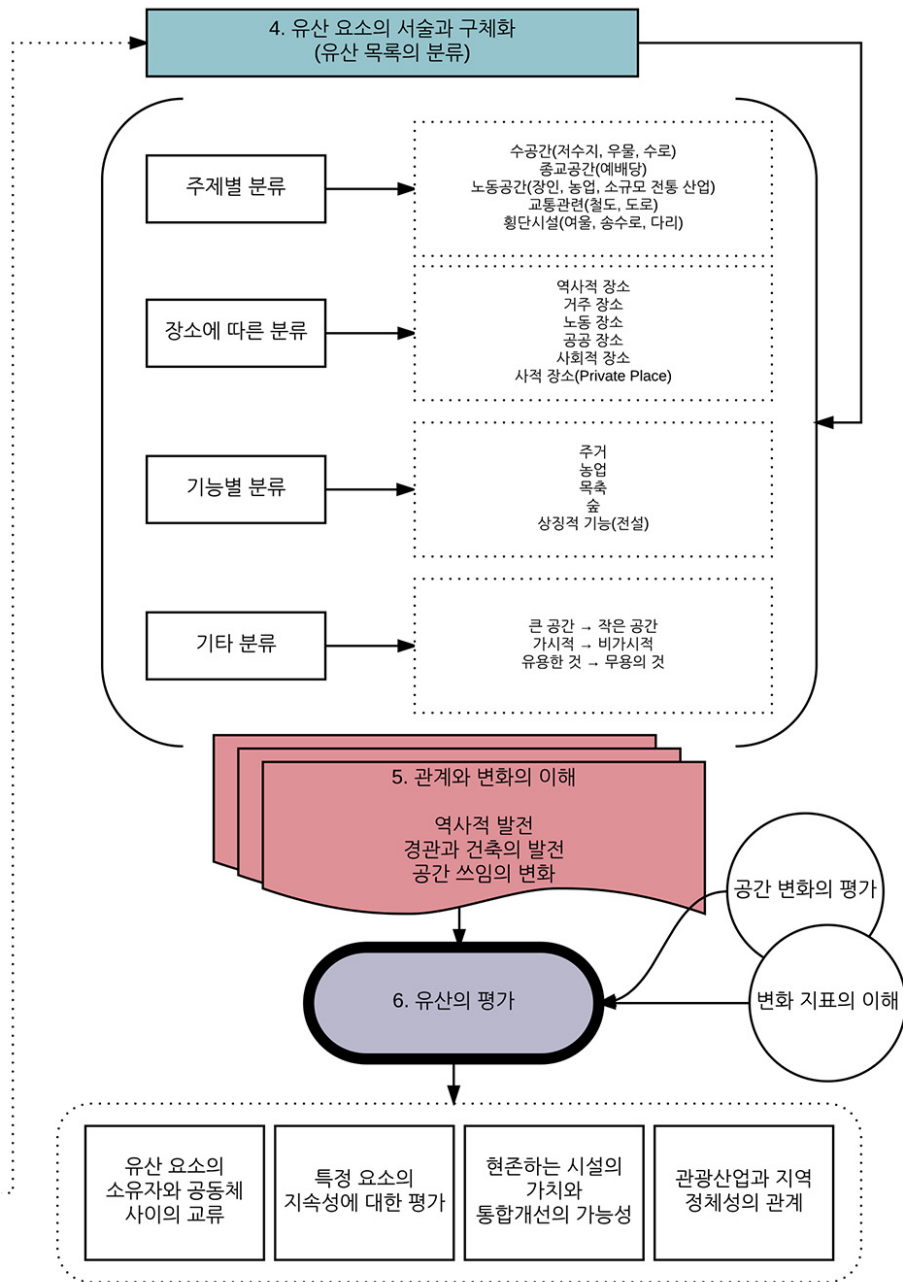
통하여 농촌 환경의 지형 및 생태계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세 번째는 농촌 유산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뉜다. 토지 관련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과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형·경관·건축물 및 도로망을 분석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며, 후자에는 공간 변화의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판독 작업과 지역 아카이브 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 전문가 및 주민을 인터뷰하여 정보를 얻거나 직접적인 구술행위를 통하여 유산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④ 네 번째는 유산의 요소를 실제로 분류하는 단계다. 유산은 목적에 의하여 주제별·장소별·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선 단계에서 유산을 식별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 농촌 문화의 이해를 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⑤ 관찰의 마지막 단계는 지역에 발생한 변화와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것인지 -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⑥ 마지막은 평가의 단계이다. 평가는 앞선 지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산 요소별 소유자와 공동체의 관계, 지속가능성, 공간의 통합 가능성, 관광산업과 지역 정체성의 정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시사점

본 가이드는 ‘Assigning Heritage Value’를 중심으로 주류의 건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농촌지역의 유산, 특히 건축자산의 측면에서 농촌을 이해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한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한옥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② 유형 - 변형한옥의 경우는 도시지역에서는 유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맥락이 없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해하면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한옥의 경우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 유산의 평가방법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각 유산을 평가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성의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농촌지원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진흥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처 및 도 단위의 지자체에서 군 단위로 계획과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므로, 거시적인 지역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꾸려지고 있다. 그러나 도 단위에 속한 수많은 군에서도 개별적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최소 지자체의 단위에서 지역성의 경계를 자구적으로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Rural Heritage - Methodology of Observation’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3] 농촌 유산의 관찰 및 평가방법론(1)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 2-4] 농촌 유산의 관찰 및 평가방법론(2)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② 역사적 공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세계문화유산 헌장

- Committee of Ministers, Council of Europe(1968), “Resolution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 Activ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ups and Areas of Buildings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³⁷⁾

[표 2-8] “Resolution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 Activ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ups and Areas of Buildings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중 일부 발췌 번역문

- 역사적 또는 미적 취향이 반영된 군집이나 지역의 보호, 보전, 그리고 재생은
 - 옛날과 지금의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인류의 삶의 방식에 적합한 틀과 척도를 부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역사적 또는 미적 취향이 반영된 군집이나 지역의 재생은 개발기본계획(General Plan of Development)과 어긋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재생은 또한
 - 교육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 문화 관광의 가망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A. 다음에 대하여 회원국 정부에 추천한다.
 - 역사적 또는 미적 취향이 반영된 군집이나 지역의 일반적 분위기나 특성, 그리고 이에 포함된 기념비 등을 보존하는 관점으로 특별법을 채택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제정법을 조정하는 것, 이런 목적을 위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것
 - 공공의 선택권을 발전, 관심고양, 동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지방 당국, 시민단체 사이의 진정한 협력을 보장할 것
- B. 다음에 대하여 회원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 역사적 또는 미적 취향이 반영된 군집이나 지역, 그리고 이들이 포함하는 기념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재생 또는 더 나은 변용(Adaptation)의 관한 발전계획을 준비할 필요성
 - 이러한 재생이나 변용이 인류적 및 금융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투자로 여겨진다는 사실

이 문서는 앞서 살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각료회의 (Committee of Ministers)에서 결정한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역사적 또는 미적 취향이 반영된 건축물의 집단 또는 지역의 적극적 보전(Active Preservation)과 재생(Rehabilitation)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사점

이 문서는 1968년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유럽은 대중문화의 성장과 경제적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사 문화 환경이 맹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를 위한 유산의 변용과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문서는 농촌지역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37) The National Institute of Anthropology and History - INAH(2016), “Resolution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 Activ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ups and Areas of Buildings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 Conservacion,INAG,gob.mx., 검색일: 2016.06.19.

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유럽 및 미국지역에서의 농촌지역 보전에 관한 정책 및 운동은 이와 유사한 기조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취향이 반영된 지역은 비단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농촌 환경 역시 해당 공동체의 역사와 예술적 감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을 재생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개발계획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적극적 보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후에 성장하여 오늘날 세이프가딩(Safeguarding)이라는 통합적 개념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현재적 상황을 중시하면서 보전과 개발을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

□ ICOMOS(2005), “The Seoul Declaration on Tourism in Asia’s Historic Towns and Villages 2005”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가 2005년 채택한 ‘아시아의 역사도시 및 전통마을의 관광 자원화 전략에 관한 서울 선언문’에서는 ‘문화유산’의 정의를 세계유산으로의 유적지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혔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마을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체험형 관광에 대한 언급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체험 관광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한편, 지역의 미칠 모든 방면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히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시사점

이 선언은 관광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어떠한 측면에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적고 있는 점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체험관광은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 사업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체험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농촌지역 체험마을은 농촌 환경을 경험하고, 별도로 개발 또는 지원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인프라, 관광이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비단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사례만 보더라도, 마을 내의 한옥을 정주공간이자 사적영역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광 및 체험의 일환으로 한옥을 짓고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들이 빚어내는 갈등 양상은 마을의 발전 및 보전 방향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다.

서울 선언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에서부터 비롯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업은 크게는 중앙정부부터 도 단위에서의 계획 및 지원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예산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의 면밀한 검토 및 자구적인 이해, 갈등 요소의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는 관광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농촌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과 계획 실행의 핵심적인 열쇠는 군 단위의 지자체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9] ICOMOS(2005), “The Seoul Declaration on Tourism in Asia’ s Historic Towns and Villages 2005” 전문, 2.2, 3.4 중 발췌

1. 전문 중 발췌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도시 및 전통마을에 지역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유적들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사회문화적 구성물인 점에 주목하고,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유산(부동산 형태의 흔적, 고고학 자원, 건물, 유적지, 문화경관, 예술품, 조각, 필름·서적·고문서·박물관 전시물 등과 같은 장비나 설치물, 음악·노래·춤·풍습·지식·의식 등과 같은 무형유산, 현존하는 인간이 제작한 유산·역사적 건물의 주변 환경·전통 음식과 음료 등과 같은 생활유산)들을 인식하며, (중략)

2.2 체험 관광 대두에 대한 대응

회의 참석자들은 기존의 단체 관광에 비해 관광객의 체험에 보다 중점을 두는 생태 관광과 체험 관광의 등장에 주목하였다. 체험 관광에 참가한 관광객은 육체적 활력, 정신적 활기, 문화적 풍요로움 및 영적 고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세계유산 지역에 대한 고유성 인정 및 경외감 함양을 가능케 하는 문화 관광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관광 관리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관광 개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유산 영향 평가 시에는, 관광 인프라와 방문자 수가 유적지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 물리적 특징, 통합성, 자연 환경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ICOMOS KOREA(2010), “아시아의 역사도시 및 전통마을의 관광 자원화 전략 에 관한 서울 선언문2005” ,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 pp.242~247.

□ ICOMOS(2011), “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38)

발레타 원칙(Valletta 원칙)은 ICOMOS에 의해 2011년에 채택된 역사도시와 마을에 관한 보존과 관리의 원칙으로서, 이는 현재까지 나온 모든 현장과 문서 중 가장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과 유산의 관계에 대하여 양립하는 가치를 존중할 것을 적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현장들을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수정된 것들이어서 그

38) ICOMOS(2011), “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 http://www.icomos.org/Paris2011/GA2011_CIVVIH_text_EN_FR_final_20120110.pdf., 검색일: 2016.06.10.

의미가 크다. 아래 표에는 본 원칙 중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이해하는데 관계된 것들을 발췌해 번역하였다. 주변 환경으로 번역할 수 있는 Setting의 개념은 역사문화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Setting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포함되는 요소와 그 범주가 다르다. 그러나 주변 환경의 개념은 과거 기념비적 건축이 일방적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해되던 기존의 견해가, 최근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상호 존중되어야 하고 보전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세이프가딩이라는 포괄적인 보전방침을 설정함으로써 환경의 개선과 향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살핀 ‘적극적 보전’과 ‘변용’에 해당하는 행위 역시 보전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10] Valletta Principles 중 일부 발췌

1 - 정의

b - Setting(주변 환경)

Setting은 역사적 도시 맥락이 취한 자연적·인공적 맥락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적이거나 동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지역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인지·경험·향유할 수 있는 맥락을 갖는다.

c - 세이프가딩

세이프가딩은 역사적 마을과 도시지역,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보호, 보전, 향상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 삶의 방식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개발과 조화로운 변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 변화의 양상

b - 변화와 건조환경

현대적 건축물 요소의 도입은 반드시 대상지와 그것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의 연속성의 가치에 생기를 가져올 것이며, 마을의 풍요로움의 기여할 것이다. 공간적, 시각적, 무형적,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건축적 개입의 기초는 역사적 가치와 패턴, 레이아웃을 준용하는 데에 있다.

새로운 건축물은 반드시 역사 지역에 대한 공간적 조직과 전통적 형태를 담아야 한다. 동시에 동시대와 장송의 건축적 트렌드를 반영한 유효한 표현이 존재하도록 한다. 양식과 표현에 상관없이, 모든 새로운 건축물은 극단적이거나 과도한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지양하고, 도시조직과 공간의 연속성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하도록 한다.

3 - 개입의 기준

d - 통일성

‘Nairobi Recommendation’의 일반원칙 3에는 통일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다: 모든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환경은 전체적으로 통일성 가져야 한다. 즉 유적지의 균형성과 특징이 그 주변의 모든 구성요소와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 구성요소에는 건물, 공간체제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³⁹⁾

39)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62&page=5&SearchItem=&searchStr=&Gubun=&Cate=, 검색일: 2016.07.11., 일부 번역 발췌.

역사적 마을과 도시 지역, 이들의 주변 환경은 반드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들의 균형과 본질은 각 요소별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세이프가딩은 반드시 도시구조와 그것의 주변 환경의 보편적인 이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는 역사적 마을을 모든 계획 단계, 동시에 언제나 그들의 사회 조직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일관적인 경제·사회적 발전 정책들을 요구한다.




출처: ICOMOS(2011), “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 p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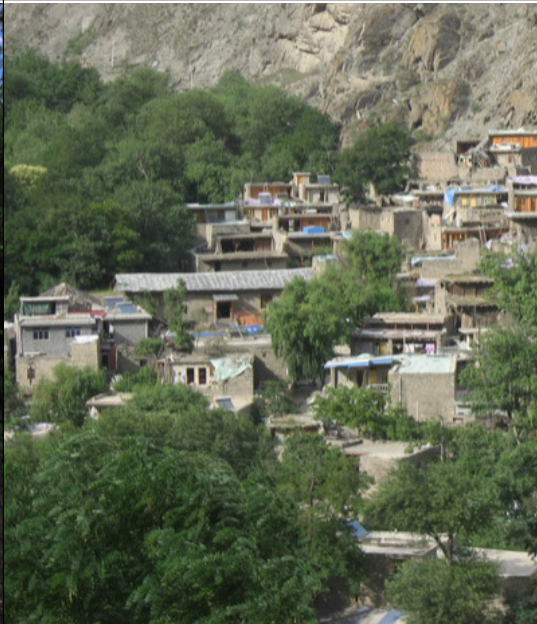
-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문화환경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

이 원칙은 변화하는 건조환경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 환경에서도 새로운 건축물의 등장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의 새로운 건축의 형태와 공간적 조직은 전통적 형태를 반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존 공간구조와의 연계, 구조 및 장식과 같이 세밀한 건축적 요소, 전통 기술의 측면 등을 보전해야할 대상으로 적고 있다.

발레타 원칙을 수용하여 유네스코는 아시아지역의 우수한 신축 및 증개축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 환경과의 관계성을 잘 해석하고 적정 기술을 도입하여 장소성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건축물을 「UNESCO Asia-Pacific Heritage Award」를 통해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 대상 건축물들은 해당국의 문화재로 분류된 것들이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전통성을 잘 구현한 대상만을 선별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표 2-11] UNESCO Asia-Pacific Heritage Award 수상작

Wak Hai Cheng Bio, Singapore	Fudewan Miner' s Village of Wenzhou Alunite Mine in China, Zhejiang Province, China	Wanslea Cancer Wellness Centre, Cottesloe, Western Australia
		

Restoration of Sanro-Den Hall at Sukunahikona Shrine in Ozu City, Ehime Prefecture, Japa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aoping Qiang Village, Sichuan Province, China
	

출처: Unesco Office in Bangkok(2016), 「Asia-Pacific Heritage Awards」,
<http://www.unescobkk.org/> 검색일: 2016.10.11.

- 재건축에 대한 주의점

[표 2-12] Valletta Principles - Proposals and Strategies

4 - 제안과 전략⁴⁰⁾

a - 보존해야할 요소

1 - 역사적 마을의 진정성과 완결성,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그것들이 가진 유형과 무형의 요소들의 본질과 통일성으로부터 표현된다.

a - 도로 그리드, 부지, 녹지, 건축물과 녹지 및 공지 사이의 관계성

b - 구조, 규모, 양식, 척도, 재료, 색채, 장식으로 정의되는 건축물의 형태, 외관, 내장 및 외장

c - 자연 환경과 인공적인 것 모두로서의, 마을 또는 도시지역과 그것들의 주변 환경의 관계성

d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게 된 마을 또는 도시지역의 다양한 기능들

e - 문화적 전통성, 전통적 기술, 장소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모든 것들과 장소의 혼(Spirit of Place)

2 - 부분과 전체로서의 대상지의 관계, 대상지의 맥락, 맥락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41)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62&page=5&SearchItem=&searchStr=&Gubun=&Cate=, 검색일: 2016.06.11., 일부 발췌.

c - 현대적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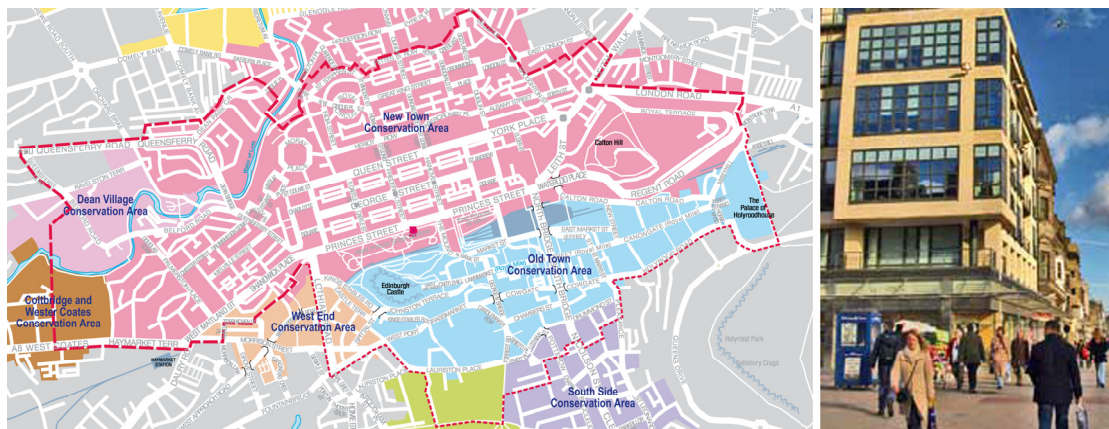
현대적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이 필요할 때, 현대적 건축물은 반드시 기존에 존재하던 도시 환경의 일부로서 역사적 마을의 레이아웃과 통일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대적 건축물은 대상지의 규모를 존중하는 동시에, 기존 건축물과 맥락이 발전하는 패턴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들의 표현방식을 찾아내야한다.

새로 짓는 건축물들이 역사적 건물의 공간적 구성과 배치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수립,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건축을 짓기 전에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분석의 대상에는 건축군의 일반적인 특징과 주요특징(건축 높이의 조화, 색깔, 재료, 형태, 지붕과 벽면의 비율, 건물의 크기와 공간의 관계, 건물의 평균 크기와 위치 등)이 있다. 어느 한 구역의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재건축의 규모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⁴¹⁾

출처: ICOMOS(2011), “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 pp.11~12.

현대적 건축물은 역사문화환경에서 조화를 무너뜨리기 쉬운 요소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 환경을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된다. 주변과의 건축 높이, 색채, 재료 및 형태들을 유지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발레타원칙에서는 건축의 규모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다. 건축행위와 관계된 자들은 대상 환경의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주변 건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그림 2-5]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건축 스케일의 조화 사례)

출처: Ewht(2007), “Edinburgh WHS Annual Review” , pp.6~7.(좌), Unesco WHS(2011), “The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2011-2016” , p.32.(우)

- 세이프가딩과 보전, 보존의 용어의 의미

보존과 보전을 대표하는 영어의 단어는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이다. 두 용어

에 대한 국내 번역 및 쓰임은 분야마다 각기 다르다. ICOMOS에서는 둘 다 우리말로 ‘보존’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ICOMOS 현장과 선언문은 그 지향하는 방향이 두 용어 모두 유적이나 기념물의 보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문맥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존’을 쓰는 방침을 갖고 있다.⁴²⁾

그러나 유사한 분야에 속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보존과 보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존은 유산의 본래 의미를 확고히 해주는 것을 말하며, 보전은 그 퇴락의 속도를 늦추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존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은 유산의 핵심대상과 주변 환경을 포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둘은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에서는 크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의미가 다소 혼용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세이프가딩의 정의가 담고 있듯이, 문화유산은 그 범위를 주변 환경과 이를 둘러싼 포괄적인 인문환경을 모두 담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보존과 보전을 양분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의 통합적 이해를 저해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보존·보전의 방침은 발레타원칙이 설명하는 세이프가딩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제목에서 적고 있듯이, 연구의 방향이 ‘보전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옥보존시범 마을을 통하여 지원된 (법적정의에 해당하는) 한옥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전’시킬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적절히 다룰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표 2-13] 보존과 보전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석

보존과 보전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석

보존(Conservation)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는, 문화유산 자체와 더불어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존의 목적은 문화유산이 지닌 고유 의 의미를 가능한 한 손상 없이 예술적, 역사적 의미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며,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보전(Preservation)은 퇴락의 속도를 늦추고 현 상태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즉 해당 유산의 사용 혹은 방문을 제한하는 기술적, 제도적 규정에 대한 연구가 수반 됩니다. 현 상태의 구조라 함은 현존하는 형태, 재료, 그리고 해당 유적의 본래의 모습 전반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2016).

“소통마당” ,<http://www.nrich.go.kr/kr/board/faq/content.jsp?id=210&code=>, 검색일: 2016.10.12.

42) ICOMOS KOREA(2010),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p.6.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련 국내 법제도 고찰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7조에는 건축자산의 진흥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건축자산 중 아래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흥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14]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7조 중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건축자산이란 개념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활용할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 국토에 있는 건축물은 잠재적인 건축자산의 후보군이 되었으며, 개별 또는 집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여지를 갖게 되었다.

위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한옥 및 한옥마을 또한 건축자산으로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한옥은 완전성이 결핍된 상태로서 본 법에서 정의하는 한옥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이 ① 한옥 양식 외에 지니는 건축자산의 가치가 있거나, ② 또는 유지 관리를 통하여 건축물의 완전성을 수복하여 한옥 자산의 기준에 적합해질 경우 농촌지역의 한옥 또는 변형 한옥이 건축자산으로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한옥 및 한옥마을은, 이와 관계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관리 및 보존 방침을 수립하여 건축문화의 진흥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로 기대할 수 있다.

[표 2-15] 농촌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해당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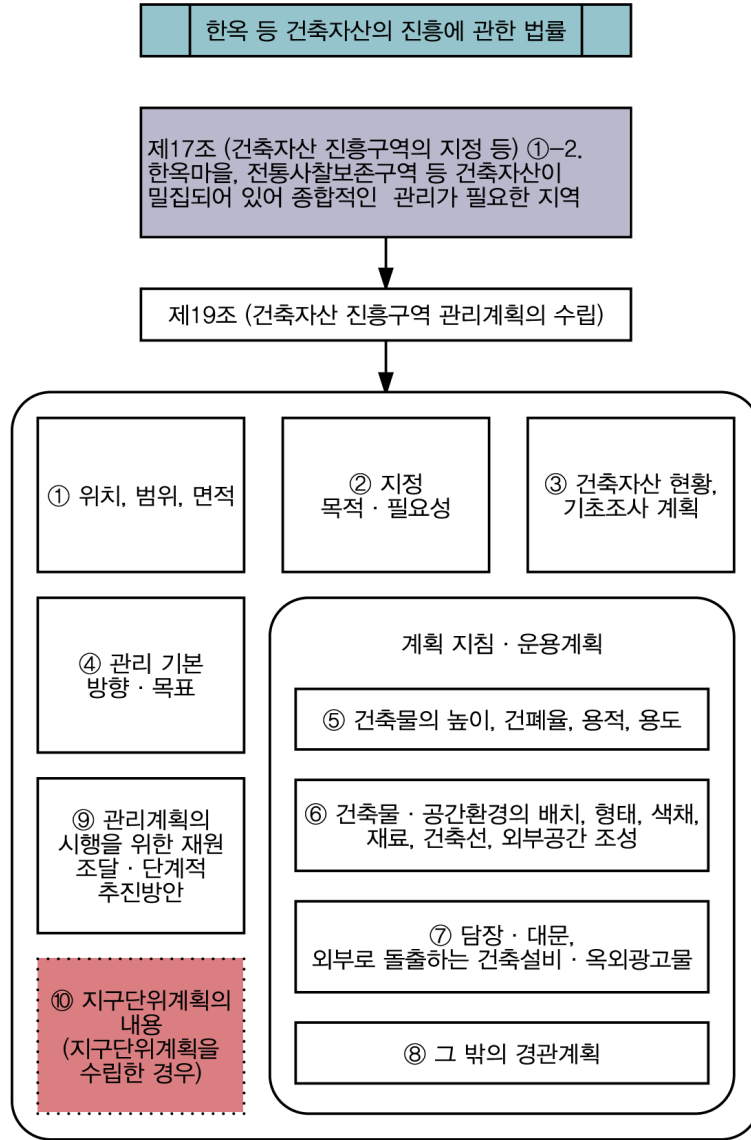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해당 유형	
우수건축자산 중심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a)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수건축자산 건축물 주변에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c)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지역
b) 단독 건축물 또는 권역화 되어있고, 그 주변에 한옥마을이 조성된 경우	d) 건축자산(한옥 및 유사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지역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위에 기술한 두 목에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주변의 환경조건과 한옥마을의 구성요소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 중심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이 점적으로 존재하는지 - 또는 권역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관리계획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 내부요소의 구성이 한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인지 - 또는 건축자산 중 한옥 또는 한옥과 유사한 건축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이해할 경우 현황은 크게 c)와 d)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림과 같다. 먼저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기본현황 및 보존 가치·자산 가치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보존, 활용 관리 사항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과는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이 제도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로 시가지지역 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하며, 마을단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나 수립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2-16] 건축자산 기초조사 포함 사항(「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4호 중)

건축자산 기초조사 포함 사항(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4호 중)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존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존,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그림 2-6] 「한옥등건축자산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며 계획의 내용에는 농어촌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 체계,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⁴³⁾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농어촌경관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상당수에 이르며⁴⁴⁾ 이를 통해 해당사업이 농어촌경관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공 시설 등을 농어촌경관과 조화롭게 건축하는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효력을 지닐 수 없는 한계가 있다.⁴⁵⁾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촌에서 마을 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⁴⁶⁾로 이 법에 따라 농촌마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단위로 기반시설 확충, 빈집정비, 주택개량 등을 패키지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예정시기,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경관·전통마을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설계·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⁴⁷⁾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보상비, 마을경관정비,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공사, 주택 신축 및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어 계획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전면 재정비사업’, ‘연계형 개발사업’,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한옥마을과 관련된 사업 유형은 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함께 정비·개발하는 ‘연계형 개발사업’과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이 해당한다. 그러나 정비계획의 내용에 전통마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법의 취지가 노후 농촌주거지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옥마을의 ‘보전’에 관한 사항은 간과되지 쉽고, 정비조합의 설립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대적인 정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3) 「농어촌정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44) 이상민 외(2015),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5.

45) 백승석 외(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ol.19, no.4, p.188.

46) 2014.06.05. 시행.

4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그림 2-7] 유지보전형 농촌마을 리모델링 개념도(전남 진도 안농마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06.05.), “농어촌마을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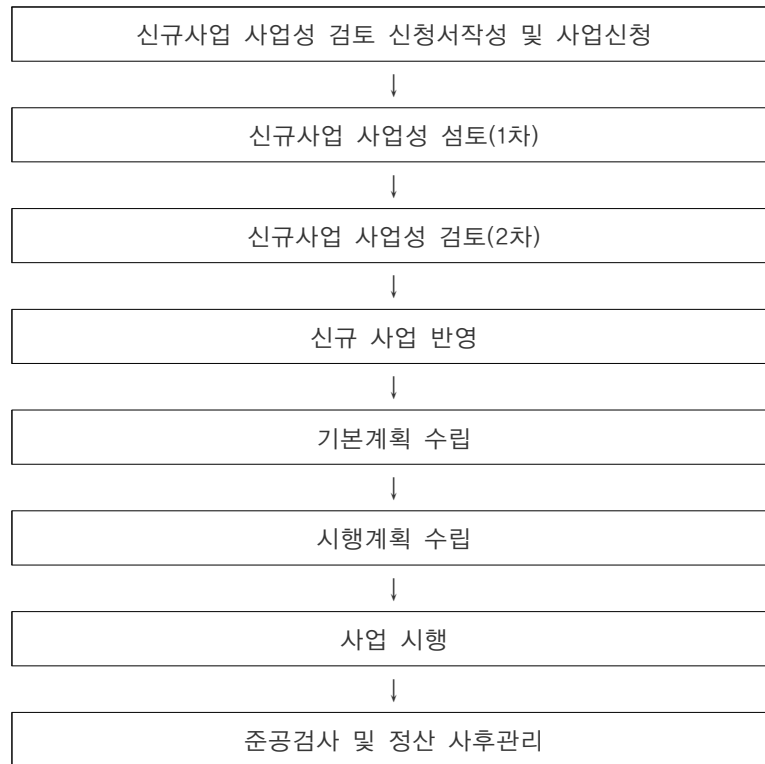
[그림 2-8] 연계개발형 농촌마을 리모델링 개념도(충남 서천 송림마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06.05.), “농어촌마을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원사업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함에 있다. 기초생활권별로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기능별 수준평가를 통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한다.⁴⁸⁾

4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05.18.), “농촌마을개발사업, 우리 농어촌이 달라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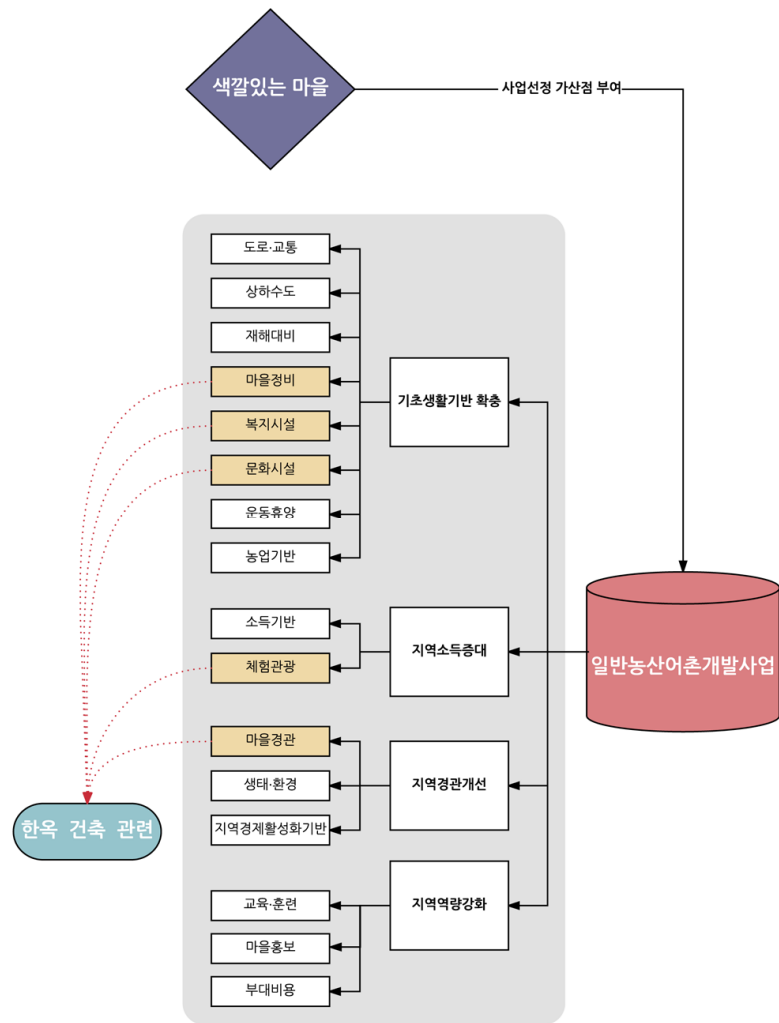
[그림 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p.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4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 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를 꾀하는 것이다. 넷째는 농촌지역의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를 통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⁴⁹⁾

[표 2-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분류

기능별 분류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역소득증대	지역자원, 특산물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지역경관개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출처: 농림수산물부 지역개발과 보도자료(2012.05.18.), “농촌마을개발사업, 우리 농어촌이 달라집니다!”



[그림 2-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흐름(기능별 분류 중심)

49) 농림축산식품부(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p.69.

②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표 2-18]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주요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장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p.916.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농촌의 특색 있는 토지이용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경관이나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자원을 복원·발굴하는 것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자원이 소재한 마을 단위로 국가농업유산의 보전계획 수립, 전통자원 복원·정비, 환경개선,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3년간 10억원 가량 지원한다.⁵⁰⁾

③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외의 유관 사업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의 공동사업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되며 행정리 단위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사무장 비용 지원, 마을보험 지원 및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⁵¹⁾

50)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p.916.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017년까지 전국의 8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는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 등을 시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⁵²⁾

[표 2-1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사업 내용

생활편의시설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체험기반시설	체험관, 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조성 등
마을경관조성	화단·꽃길, 흙담·돌담, 산책로 조성, 빈집 및 고가정비
기타 S/W 관련사업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팸플릿 제작 등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09),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p.116.

□ 색깔있는 마을 사업

색깔있는 마을 사업은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특성화·사업화·소득화하는 것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마을자체사업을 통해 마을협의체 운영·현장포럼·재능기부자 활용 계획 수립 등 마을의 경제적·사회적발전의 기반이 조성된 마을을 지정한다. 색깔있는 마을 사업은 농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농교류·생활기반정비·농어촌 경관·유산 관리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며 특산물·경관·유통·가공·전통문화·음식·테마마을 개발 등 다양하다.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원을 다원화를 기대하고 있다.⁵³⁾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되면 관련사업(우선 연계사업 40개, 사업비 2조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으로 선정 또는 가점 부여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농·수협 등 여러 지원주체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하게 된다. 색깔있는 마을은 생활기반형·농업형·유통가공형·도농교류형·생활만족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⁵⁴⁾

51)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한 번에 끝내기」, p.9.

52) 농림수산식품부(2009),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p.116.

53)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1.10.20.), “농식품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집 발간”

54)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2016), “색깔있는 마을이란”, 「농촌지역이야기」
<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9&menu=12>, 검색일: 2016.11.12.

제3장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옥보존시범마을 개요
2. 한옥보존시범마을 현황 및 문제점

1. 한옥보존시범마을 개요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제도적 근거

한옥보존시범마을은 2007년부터 시행된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⁵⁵⁾ 동 조례에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구체적인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은 타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보전 개념을 도입한 선도적인 제도로써, 조례 제정 당시에는 한옥을 집단적으로 새로 조성하는 행복마을 사업과 함께 전라남도 한옥 진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한옥보존시범마을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0개 마을이 활발히 지정되었으나, 전라남도의 한옥 정책이 도내 인구유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옥을 집단화하여 기존 마을을 정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행복마을 사업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정책적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옥보존시범마을 중 일부는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마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그 취지가 행복마을 사업과 불분명하게 되었다.

55)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2조제2호.

[표 3-1]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현황(2015.12. 기준)

마을명	위치			지정 일자	지정 면적(㎡)	기존 한옥(동)	문화재 (전통가옥)	비고
	시군	읍면	리					
20개 마을					10,233,399	923	11	
도래마을	나주	다도	풍산	2007.01.26.	391,800	53	3	
삼천마을 (삼지내)	담양	창평	창평	"	127,600	45	2	2개 마을
예동마을	보성	보성	옥암	"	54,700	20	3	
내동마을	장흥	관산	방촌	"	80,100	43	-	5개 마을
굴동마을	강진	도암	만덕	"	272,639	7	-	
대월마을	강진	성전	송월	"	160,000	10	1	
매정마을	해남	삼산	구림	"	333,473	43	-	
구림마을	영암	군서	도갑, 동·서구림	"	2,251,000	180	-	3개리, 7개 마을
영당마을	영광	묘량	운당	"	87,400	32	1	
수락마을	구례	산동	수기	2007.07.05.	102,312	7	-	
약실마을	무안	몽탄	약곡	"	48,725	30	-	
오두마을	함평	해보	대각	"	137,000	21	-	
모평마을	함평	해보	상곡	"	335,000	35	1	3개 마을
용흥회문	영암	영암	용흥, 회문	"	1,163,682	203	-	2개 리
명천마을	고흥	금산	신평	2008.01.31.	546,183	45	-	
상사마을	구례	마산	사도	"	246,670	12	-	
우산마을	장흥	장평	우산	"	1,346,360	12	-	
복룡촌	무안	일로	복룡	"	967,315	77	-	
석북마을	무안	현경	수양	"	1,003,102	22	-	
학례마을	무안	운남	성내	"	578,338	26	-	

출처: 전라남도청 내부자료(2016), ■: 한옥 건축비용 지원이 있었던 마을

* 지자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대한 지원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 내에서 한옥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등록 예정자에 대해 한옥 신축 및 개축, 대수선, 외관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옥 지원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2007.1) 기준으로 비용지원 금액⁵⁶⁾은 한옥 신축 및 개축의 경우 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3천만원, 대수선의 경우 보조금은 최대 1천5백만 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 원, 외관 수선의 경우 보조금은 최대 1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였다. 이후 2009년 1월 조례 개정으로 대수선 및 외관 수선의 경우에는 보조금 없이 융자금만 지원하게 되었다.

3)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에 대한 전라남도 정책의 변화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행복마을 사업을 통한 한옥마을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전통한옥이 잘 보존된 마을과 기 조성된 한옥마을을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016년 10월 27일 개정된 조례에는 ‘한옥구역’의 유형을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정의는 변함이 없으나 ‘한옥마을’의 경우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정의⁵⁷⁾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기존 농촌 한옥 및 한옥마을의 관리 및 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을 포함한 한옥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원 대상에 기존의 한옥건축 지원과 더불어 전통한옥 개보수와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를 따로 마련하고, 전통한옥을 도지사가 매수할 수 있는 규모 정도 신설하였다. 또한 기조성된 농촌 한옥마을의 경관보존을 위해 한옥마을의 구역을 확대하거나 구역 내 한옥건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금액의 경우 보조금의 한도를 소폭 낮추고 융자금⁵⁸⁾은 획기적으로 높여 공공부담을 줄이는 한편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건축주가 한옥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온 전통한옥⁵⁹⁾을 보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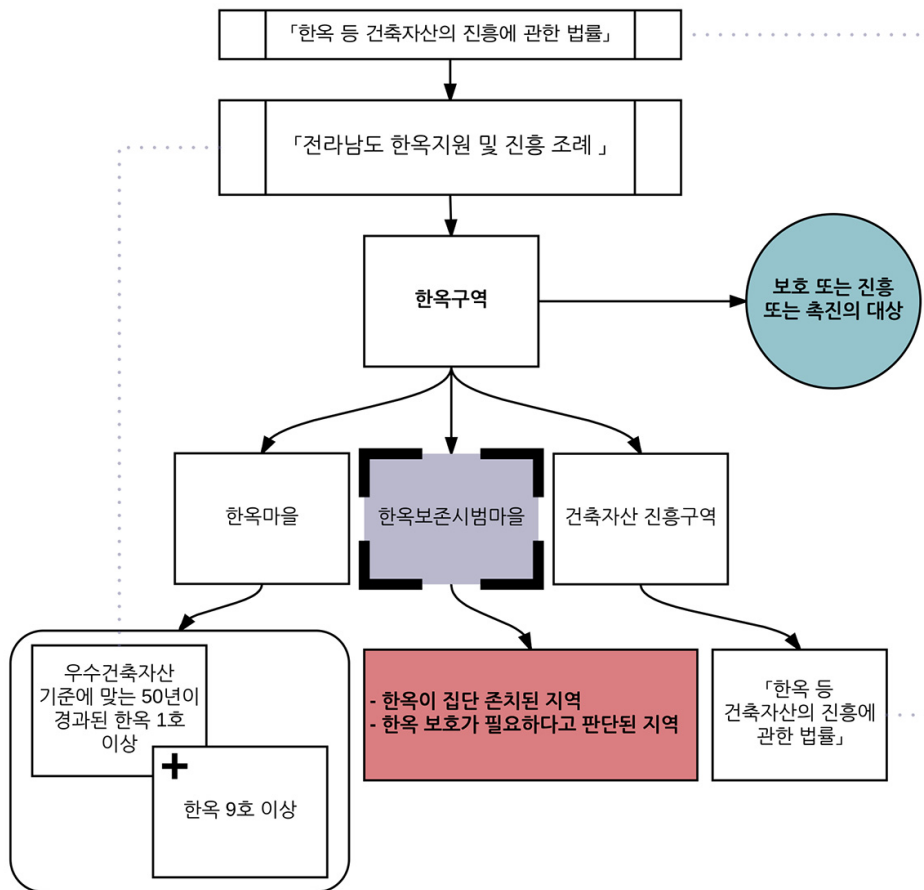
56) 도비 기준이며 모든 경우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금액을 설정하였다.

57)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2조제3호.

58) 융자의 경우 금리를 기존의 연 2%에서 농촌주택 개량자금 보다 1% 낮은 1%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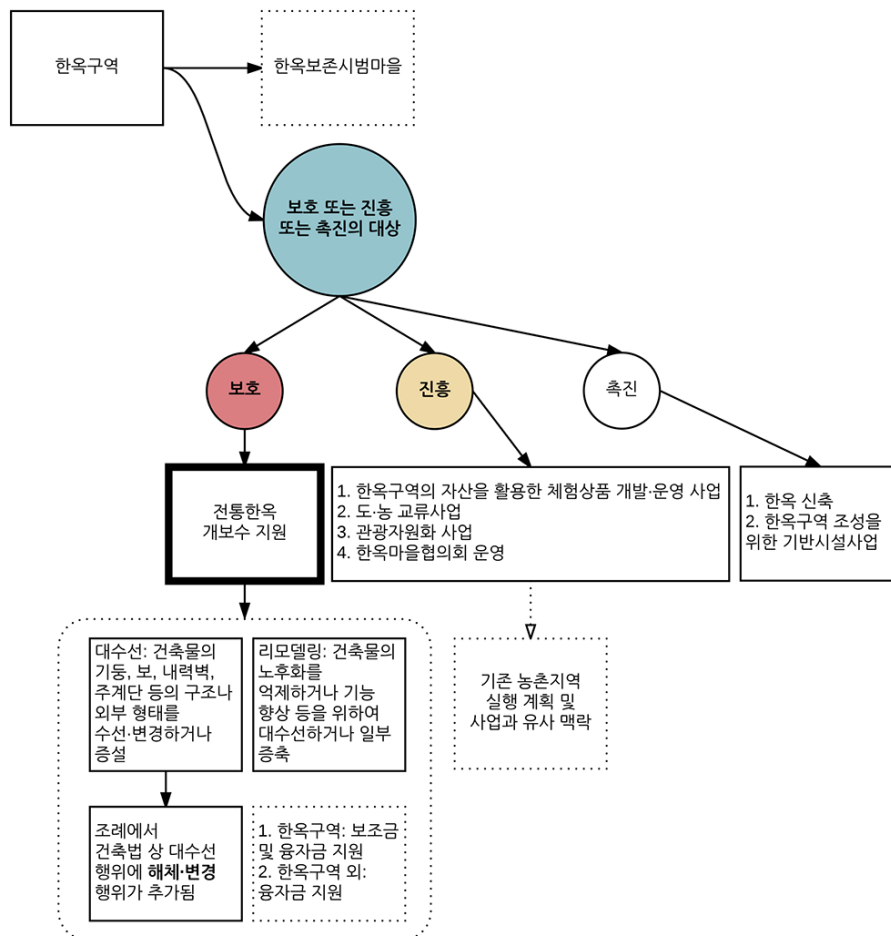
59) “전통한옥”은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된 한옥으로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기준에 맞는 한옥을 말한다. (출처: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2호)

고, 마을단위에서 전통한옥을 중심으로 농촌 한옥마을을 전통적인 주거지로 보전하는 한편 마을을 단지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한옥마을’과 달리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내 전통한옥을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추가 지정 시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한옥마을’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3-1] 한옥구역의 범위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

한편 전라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한옥건축 비용 지원 뿐 아니라 도 차원에서 한옥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책 사업에 포함 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한옥자산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 도·농 교류사업 및 관광 자원화 사업,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등이다. 본 사업내용은 기존 행복마을 사업에서 추진 하던 것이기는 하나 제도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부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시책 사업은 농촌지역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 한옥마을이란 장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패 키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한다.



[그림 3-2] 한옥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

2. 한옥보존시범마을 현황 및 문제점

1) 지정대상 선정 및 마을범위 설정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마을 내 기존 한옥의 동수가 최소 7동인 것에서부터 200호 내외까지 다양한 것으로 볼 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한옥의 수량이나 밀집도가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시·군에서 작성한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관할지역 내 역사적으로 오래된 마을이나 마을 내·외에 문화재 또는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을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림 3-3] 문화재 가옥을 기반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나주 도래마을)
(좌)출처: 나주시청 내부자료, (우)출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내부자료



[그림 3-4] 자연자원(월출산)을 기반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영암 용흥·회문)
출처: 영암군청 내부자료

60) 현재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당시의 근거자료는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전라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정신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한편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면적은 작은 것이 50,000㎡ 내외이고, 큰 것은 1,000,000㎡가 넘는 지역도 있다. 이와 같은 마을 면적의 차이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범위를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는 등 지정범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한옥보존시범마을이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거나 한옥을 보호 및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마을의 범위는 관리 또는 체계적인 개발의 대상으로서 역사문화적인 배경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실상 이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옥건축비용 지원방식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지원된 실적을 살펴보면 20개 지정 마을 중 5개 마을에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고, 모두 신축 및 개축 건이었다. 일부 마을에만 자원이 투입된 것은 전라남도의 한옥 지원 정책이 한옥보존시범마을보다는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는 행복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해당사업을 신청하는 시·군 단위에서는 한옥보존시범마을과 행복마을 사업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면 한옥의 신축보다는 대수선이나 외관 수선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나 실상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농촌의 노후 한옥을 수선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고 지원 금액도 신축 및 개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커서 수선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이 때문에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경우에도 마을 내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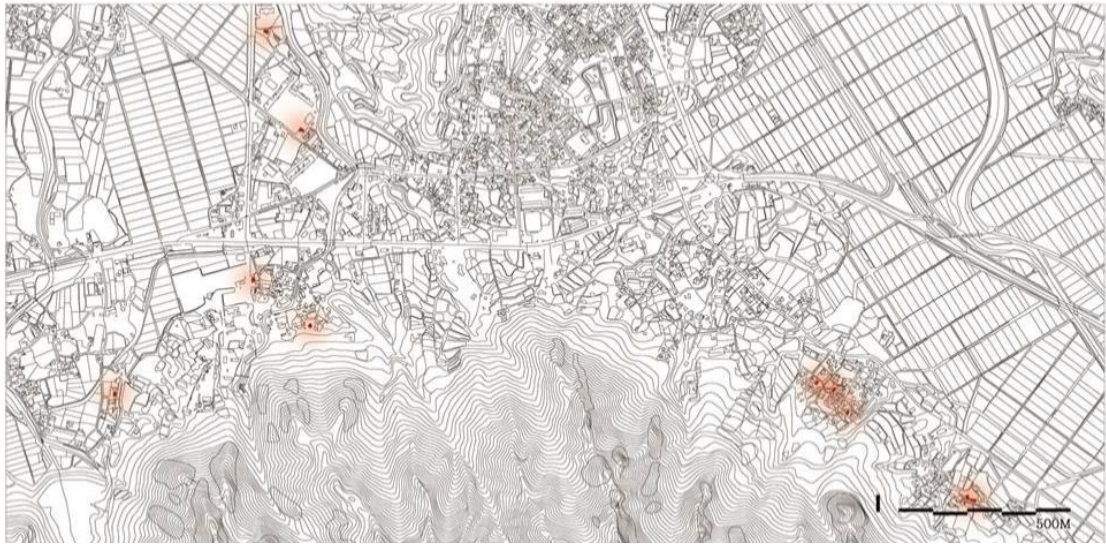
[표 3-2]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현황(2015.12. 기준)

시군	지정연도	마을명	확정가구수	완공	추진중	비 고
계			58	58	0	
담양군	2007	삼천마을 (삼지내마을)	1	1	-	신축 및 개축
구례군	2007	수락마을	5	5	-	
영암군	2007	구림마을	37	37	-	
	2008	회문·용흥리 마을	11	11	-	
함평군	2007	모평마을	4	4	-	

출처: 전라남도청 내부자료(2016)

61) 2016.11.16.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내용을 작성.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한옥건축 비용지원은 마을 내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을 건축하려는 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잔존하는 가옥의 중요도나 전통경관 형성을 위해 마을 내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구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마을 범위의 설정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면적이 관리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넓은 경우에는 한옥이 산발적으로 건축되어 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림 3-5] 영암군 용흥·회문리 지원한옥 분포 현황(면적이 넓은 경우)



[그림 3-6] 구례군 수락마을 지원한옥 분포 현황(면적이 좁은 경우)

3)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부재

한옥보존시범마을은 지정 목적에 따라 전통적인 경관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적으로 지정 후 마을 내 한옥건축 비용만 지원할 뿐 별도의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한옥마을에서 공공의 시설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속적인 민간 건축행위가 있을 때 한옥보존시범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강화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시·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지정되어⁶²⁾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나 도시지역에서와 같이 해당구역의 보존을 목적으로 상세한 계획이 수립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시·군 단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나 기초지자체 차원의 경관계획은 한옥마을의 보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구체적이지 못하고 높이, 건축물 형태 등 기초적인 사항이나 경관사업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7] 삼지천마을 주변 경관사업 제안

출처: 전남대학교(2014), 「담양군 경관계획 2020 최종보고서」, 담양군청, p.113.

62) 담양군 삼지내마을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영암군 구림마을은 개발진흥지구이다.

제4장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및 진단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의 개요
2.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공간변화를 중심으로
3.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농촌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4. 소결: 농촌지역 한옥마을 변화 진단 종합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특성 및 변화 검토

한옥보존시범마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마을로서 마을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을별 특성과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한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농촌지역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의 유형적인 특성과 공통된 변화 양상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지역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제시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과 같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은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농촌마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퇴락한 농촌마을이 정비 및 개발의 대상이라면,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마을 내 자산을 보전 및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촌 마을 지원 정책 및 사업이 한옥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대해 투입된 공공의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와 같이 농촌지원정책과는 별도의 한옥진흥정책을 수립·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분석 대상 및 범위

□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원된 3개 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20개 마을 가운데 지정에 따른 지원이 있었던 지역은 영암군 구림마을, 회문·용흥리, 담양군 삼지내마을, 함평군 모평마을, 구례군 수락마을 등 총 5개 마을이다. 이중 영암군 회문·용흥리는 역사적인 배경이 아닌 행정구역 범위로 한옥이 산재해 있고 지정 면적이 넓어 하나의 마을 또는 마을권역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구례군 수락마을의 경우에는 소규모 산골마을로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이 4동 있으나 그 외에는 기존 한옥이 없는 상황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2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마을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1] 영암군 용흥·회문리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범위
출처: 전라남도 내부자료(2016)



[그림 4-2] 구례군 수락마을 내 지원받은 한옥(좌), 기존 가옥군(우)

□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물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마을의 변화는 사회적·경제적·공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을 건축자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농촌관련 지원사업이 역사문화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마을의 물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분석 방법

□ 항공사진을 활용한 마을공간의 통시적 분석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의 비교를 통해 마을 공간의 생성, 마을 경계와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1970년대 농촌지역 경제 여건 개선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실행한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공간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그 이후에 농촌지역의 경계가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마을 하천 및 수공간 변화, 도로 확장, 농지 개조 등의 추가적 환경 변화를 살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권역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옥자산 등 건축물 정보의 공간정보화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한옥자산 등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제공하는 GIS건물통합정보를 기반으로 각 마을별 건축물 정보를 공간정보화하고 한옥분포현황 등 부족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된 공간 정보를 토대로 마을 공간, 길과 건축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파악하여 건축물 형성 및 마을 중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건축물 대장 정보를 통해 한옥의 신축 외에 대수선 및 증축 현황을 조사하여 개별 건축물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 한옥지원 실적 및 농촌지역 지원사업 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 자료 협조로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에 따른 한옥 지원 실적 및 분포를 파악하고, 농촌지원 관련 문헌자료 조사 및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농촌지역 지원사업 목록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조성된 건축물 및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공간변화를 중심으로

1) 영암군 구림마을

① 구림마을의 개요 및 특성

□ 구림마을의 한옥분포현황

[표 4-1] 구림마을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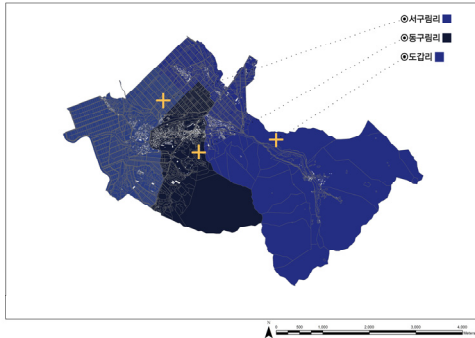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마을명	구림마을		
행정구역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면적(m²)	2,364,000		
건축물 현황	총 건축물(동)	1,643 (동구림리 909/ 서구림리 529/ 도갑리 205)	GIS 건물통합정보 기준 (2016.08.)
	목구조건축물(동)	408 (동구림리 168/ 서구림리 144/ 도갑리 96)	GIS 건물통합정보 기준 (2016.08.)
	한옥건축물(동)	217 (동구림리 88/ 서구림리 108/ 도갑리 21)	현장조사 기준 (2016.08.)

출처: 전라남도 내부자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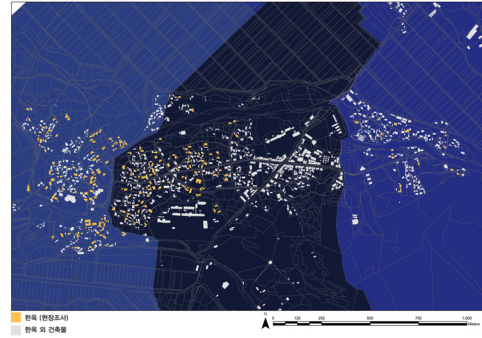


[그림 4-3] 영암군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범위
출처: 전라남도청 내부자료(2016)

구림마을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에 걸쳐있는 마을로 학암, 동계, 고산, 서호정, 남송정, 신흥동, 죽정 등 7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구림마을은 월출산의 서쪽 사면을 따라 발전한 해안평지에 위치해 있고⁶³⁾, 마을 앞 동쪽에는 영산강 하구로 곧바로 흘러들어가는 영산강의 마지막 지류 영암천이 자리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⁶⁴⁾



[그림 4-5] 구림마을 포함하는 행정경계



[그림 4-4] 구림마을 한옥분포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총 1,643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한옥이라 판단할 수 있는 건축물은 217동으로 전체 건축물 수의 약 13%를 차지한다. 행정구역별로는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해 있는 서구림리가 전체 건축물 대비 한옥 비율이 약 20%로 가장 높고, 동구림리가 약 10%로 가장 낮다. 이와 같이 마을 내 한옥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구역이 설정되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 한옥분포지도를 살펴보면 작은 마을별로 한옥의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구조건축물 중에는 육안으로는 한옥으로 볼 수 없으나 지붕이나 벽체가 변형되기 전에는 한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들도 많아 전반적으로 구림마을을 한옥마을이라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구림마을의 역사적 특징과 자산

구림마을은 왕인박사, 도선국사, 최지몽 등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2,200년 전통을 가진 마을로 ‘왕인과 도선의 출생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 마을은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어 고대에 서해로 연결되는 중국·일본 교류의 거점이었다. 고대에 마을이 어떻게 존재했

63) 정근식(2003), “구림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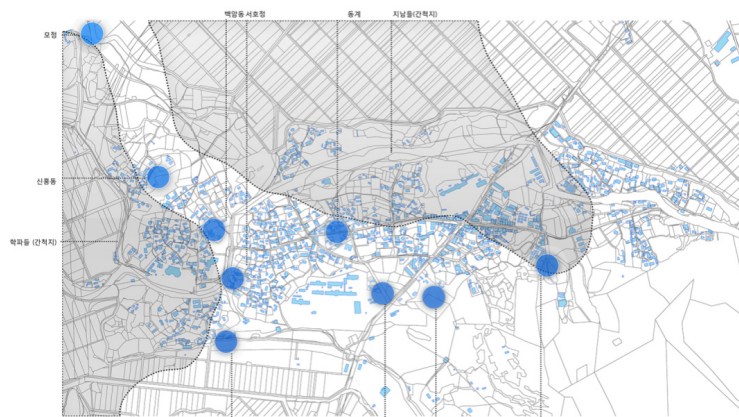
6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2016),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상징, 왕인, http://www.east-asia.or.kr/databank/data4_view.asp?mh_idx=31&page=, 검색일: 2016.07.05.

는가는 불분명하지만 포구를 가진 마을이었고 근대 이후에 마을들이 농지형성과 연관하여 형성되거나 변동했다. 기존의 마을은 점차 낮은 저지의 농지를 따라 내려오거나, 간척을 통해 새로 대규모의 농지가 조성되는 경우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⁶⁵⁾ 구림은 지남들, 학파들, 영산강간척지 등 3단계의 간척과정을 통해 토지가 확장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남들은 1540년 경 나주목사인 임구령에 의해 간척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의 농지가 만들어졌다. 이는 마을의 물적 기초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간척의 결과로 현재 마을의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6] 구림마을 간척지

공동체의 조직 측면에서 구림마을은 함양박씨, 풍양조씨, 낭주최씨, 해주최씨 등 16~17세기 사족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동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⁶⁶⁾ 마을에는 조선 시대 마을 자치규약인 영암구림대동계문서(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98호)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대동계와 관련된 건물 및 공간과 각 문중들의 사우나 정자 등 건축물이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⁶⁷⁾



[그림 4-7] 구림마을 역사적 마을권 (역사적 맥락과 2016년 현황의 중첩, 추정)

65) 정근식(2003), “구림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p.16, pp.32~33.

66) 김준(2003), “사회조직과 마을공간구조의 변동”,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p.266.

67) 정근식(2003), “구림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p.16.

② 구림마을의 거시적 공간변화(항공사진 분석)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 이전의 마을구조 변화상

구림마을의 현재 마을권은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 마을 경계는 동구림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신흥동마을까지며 동쪽으로는 죽정마을까지로 판단된다. 이는 신축 한옥의 건축 및 왕인촌 권역사업과 축제, 문화집회시설의 마을 내 입지의 영향을 받았다.

마을의 성장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림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약 12개 마을이 모여 살던 대규모 마을권이였다. 현재 동구림리 지역은 지난날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계마을·학암마을·고산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로 볼 때, 동구림리는 도갑리와 서구림리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림리는 마을 3개가 군집을 이룬 곳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⁶⁸⁾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동구림리의 가로는 마을권의 중심적 역할로 성장하며 현재의 마을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의 마을 권역은 역사적 배경 중심의 12개 대동계 권역 마을보다는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대동계를 지지하던 주변 마을은 실제 권역에서 현재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실질적 경계 밖으로 빠져서 독립적인 (한옥)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서구림리·동구림리·도갑리의 권역에 걸쳐서만 한옥마을이 형성되어있다.

1976년 구림공업고등학교가 건축되면서 마을의 공동산이 공공에게 개방되었으며, 이때부터 마을은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왕인박사 유적지까지 마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구림마을은 마을의 공동관리 영역인 산을 고등학교 부지로 제공하였다. 또한 읍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상대포 일대에 중학교를 건축하였다. 이처럼 마을을 위한 공간이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구조가 변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건축물은 모두 전통적인 마을 경관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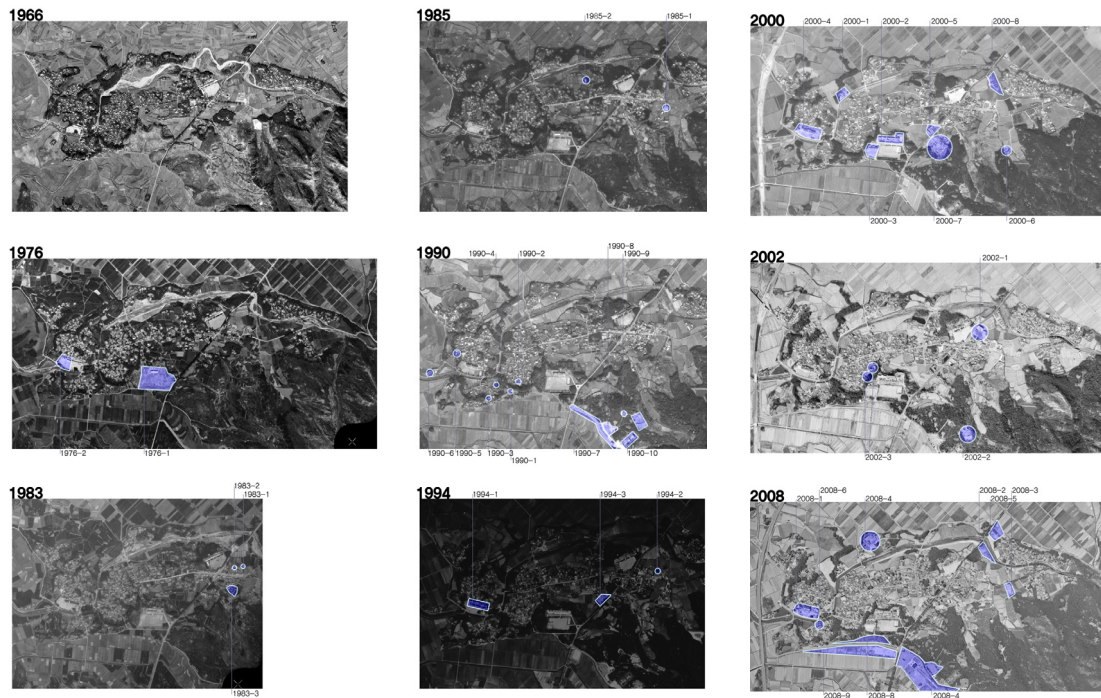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지붕을 현대적으로 개량하면서 한옥이 변형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때의 변화상이 현재 신축 한옥을 제외한 마을 대부분의 건축물

68) 김준(2003), “사회조직과 마을공간구조의 변동”,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p.269, 재구성.

외관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왕인촌 권역 사업에 의하여 마을의 권역이 새로 정비되었으며, 대규모 부지를 다루는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마을 정비사업은 실제 생활권인 마을 내부보다도 왕인촌 축제권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 변화상

변화 시기	변화 내용		변화 시기	변화 내용	
~1976	1	구림공업고등학교 설립(1967년)	1994~2000	1	죽정서원 건물 신축 및 정비(1999년)
	2	구림중학교 증축(현 도기 박물관 위치)		2	구림고등학교 증축
1976~1983	1	건물 신축		3	구림중학교 신축 이전(1996년)
	2	주택 건축		4	도기박물관 개관(1999년)
	3	주택 단지 조성됨		5~6	건물 신축
1983~1985	1	건물 신축	2000~2002	7	부지 정비(현 주거변천사야외전시장)
	2	지붕 교체		8	건물 신축
1985~1990	1~3	건물 개보수		1	건물 신축
	4	건물 철거	2002~2008	2	건물 개보수
	5~6	건물 개보수		3	공원 정비
	7	도로 정비		1	도기 박물관 신축, 주변 정비(2008년)
	8	부지 조성, 건물 개보수		2	건물 철거
	9	공원 조성		3	건물 신축
	10	왕인 사당 신축		4	전시관 및 왕인공원 신축(2006년)
1990~1994	1	구림중학교 건물 철거		5~6	건물 신축
	2	건축물 철거, 주변 정비		7	건물 신축
	3	건물 철거		8	가로수 식재
				9	부지 정비(현 목재문화체험장 위치)



[그림 4-8]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 변화상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 이후의 마을구조 변화상

구림마을은 왕인촌 권역 설정에 따라 권역사업이 마을 밖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권역 내 기존 마을의 비중이 저하되고 활력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마을 내에 존재하는 죽정서원 등 문화유산의 정비를 통하여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서구림리 일대에 집중된 것이므로 마을의 공간 중심이 이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동구림리 및 도갑리 일원에 위치한 마을이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영암도기 박물관 및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등 문화집회시설이 서구림리에 건립된 점은 마을 내 중점 관광콘텐츠의 편중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구림공업고등학교 도편에 위치한 주거 변천사 야외 전시장 사업은 당초 박물관이 기획된 부지였다. 문화체육관광부 33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결정된 장소였다. 동구림리와 왕인촌 권역을 잇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여 당시 개발의 양상은 이곳의 문화벨트를 구축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물관 콘텐츠 구축 역량 부족으로 현재는 한옥체험시설로 변경⁶⁹⁾되었으며, 2016년 11월 20일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표 4-3]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 변화상

변화 시기	변화 내용		변화 시기	변화 내용	
2008 ~2011	1	상대포 공원 조성	2011 ~2013	1	목재문화체험장 신축
	2	건물 신축(현 동원당과 목원당)		2	건물 신축
	3~4	건물 신축		3	건물 개보수
	5	주거변천사 전시장 신축		4	구림고등학교 건물 증축
	6	건물 신축		5~7	건물 신축



[그림 4-9]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 변화상

69)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유선 확인, 2016.12.27.



[그림 4-10] 주거 변천사 야외 전시장 사업부지(현재 한옥 펜션 휴림, 2016.11.)

③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에 따른 변화

구림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포함하여 한옥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마을로서, 기존 한옥과 신축 한옥이 함께 마을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지원예산과 현황을 살펴보면, 구림마을의 경우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14억8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축 한옥 37호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를 합산하여 각 4천만 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별도의 용자를 지원했다. 구림마을은 기존 한옥마을 내부에 행복마을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구림리 동계마을 일원에 11호의 한옥이 신축되었다.

[표 4-4] 구림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지원 현황

단위: 천 원

한옥보존시범마을(37호, 추정) ⁷⁰⁾			행복마을(동계마을 등, 11호, 추정)		
보조금		용자금	보조금		용자금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740,000	740,000	1,110,000	220,000	220,000	330,000
행복마을 대비 한옥보존시범마을 비율			77%		

구림마을은 타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비하여 건축자산이 풍부하며, 기존 마을의 맥락의 수용과 신축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신축에 지원된 한옥에 대한

70) 행복마을과 한옥보존시범마을 현황이 합쳐져 있어서, 지역에 지어진 행복마을 한옥을 제외하여 추정한 수치임.

유의미한 형태적 유형을 특징지을 수 있다. 각 유형은 마을 내 입지와 집단화 경향, 기존 맥락 등에 따라서 분류된다.



[그림 4-11] 구림마을 신축 지원 한옥 배치유형

□ A유형: 부지개발형 신축 한옥(서구림리 신흥동마을 일원)



[그림 4-12] 신규부지조성에 따른 마을 경계의 변화

서구림리 죽정서원길 일원은 한옥이 가장 밀집되어 나타났다. 서구림리 내 죽정서원·서호정마을·신흥동마을은 전통적인 촌락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각 영역 사이는 대지가 솟아 형성된 마을 숲으로 경계가 나뉜다. 이 공지를 11개의 필지로 조성하여 한옥을 집단화하여 개발하였다. 실제로 단지계획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어있던 것은 아니며, 원주민과 귀촌인 등이 각 필지를 규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에 이르고 있다. 서

호정마을을 경계로 하여, 그 밖에 위치한 신흥동마을은 구림마을의 주요세력 거점이 아니었으므로 거주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위치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숲을 통하여 마을의 내외부를 구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신규 부지를 개발하여 한옥을 집단화하여 새로운 한옥 경관을 만들어 낸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B유형: 맥락순응형 신축 한옥(동구림리 동계마을 일원)

동구림리 동계마을 인근은 맥락순응형 유형에 해당한다. 여기서 맥락은 특정 시점에서 비롯한 시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적 형태에 순응하여 기존 한옥 및 필지 형태를 말한다. 동구림리는 한옥보존시범마을보다 행복마을 사업에 의해 신축이 지원된 한옥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행복마을 사업과 같이 10호 이상의 한옥이 집단으로 건축되어야 했으며, 이는 기존 맥락을 유지하면서 건축하는 것이 신규부지에 조성하는 마을에 비하여 더 많은 고려가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미 마을에 남아있던 한옥 및 변형 한옥 등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여 증축이 용이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4-13] 맥락순응형 한옥 배치유형(동구림리)

□ C유형: 단독건축형(도갑리 죽정마을 일원)

단독건축형에 해당하는 마을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주거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호당 필지의 면적이 넓다. 따라서 한옥이 신축될 경우 특별한 배치의 형태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에서 특징적인 점은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적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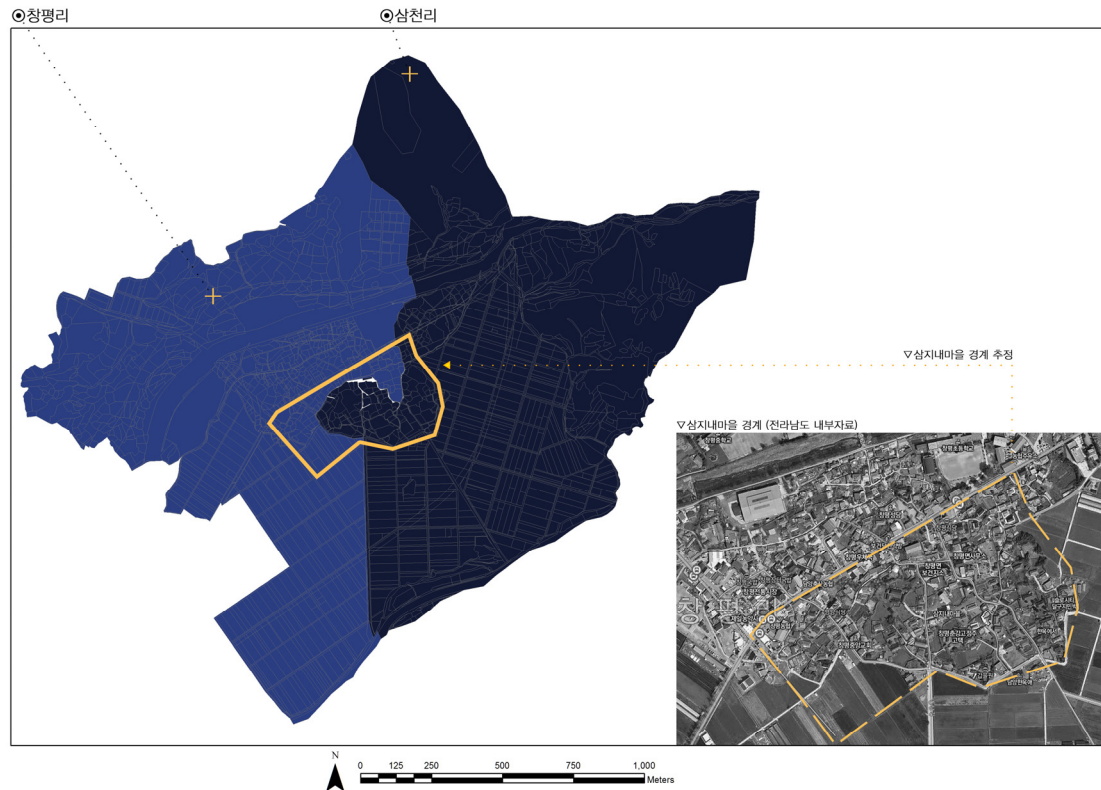


[그림 4-14] 죽정마을 단독건축형 한옥

2) 담양군 삼지내마을

① 삼지내마을의 개요 및 특성

□ 삼지내마을의 한옥분포현황



[그림 4-15] 삼지내마을 행정구역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경계

삼지내마을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와 창평리에 걸쳐 위치한 마을이다.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있지만, 마을의 실질적인 한옥 관리는 슬로시티 국제연맹이 삼지내마을을 슬로시티로 지정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슬로시티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삼지내마을의 한옥분포는 타지역이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에 따라 신축에 의한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하여, 기존에 마을에 있던 한옥이 주된 구성을 이룬다. 행정구역상 삼천리와 창평리에는 총 1,705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이 중 마을 내 한옥이 88동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약 5.1% 비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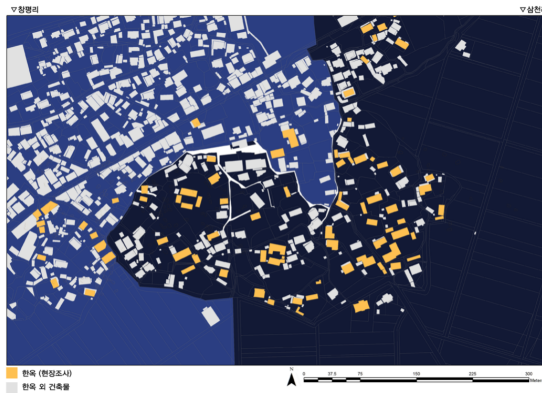
농촌지역에서 목구조건축물이 잠정적으로 변형한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 전체 행정구역상 목구조 건축물 대비 마을 내 목구조건축물은 66동이며 이는 38.1%에 이르는 수치이다, 한옥보존시범마을 내 한옥의 경우는 목구조건축물 대비 1.33배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결과 마을 내 한옥의 양상이 목구조건축물 대비 더 많이 나온 것은 GIS건물통합정보의 정보가 모든 건축물의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한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로 이 수치를 보정할 경우, 실제 행정구역상 목구조건축물은 38.1%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농촌지역 한옥의 경우는 관리의 미비와 부속사 등의 증축이 빈번한 점을 볼 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유의미한 점은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계를 설정할 때, 단순히 외부로 노출되는 한옥의 형태만으로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라남도청이 지정한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면적은 158,955m²이며, 그 경계에는 국토계획상 도시지역·농림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림지역에 건축된 슬로시티사업 관련 한옥의 경우는 본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수치가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를 기반으로 한 통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옥마을 관련된 제도 및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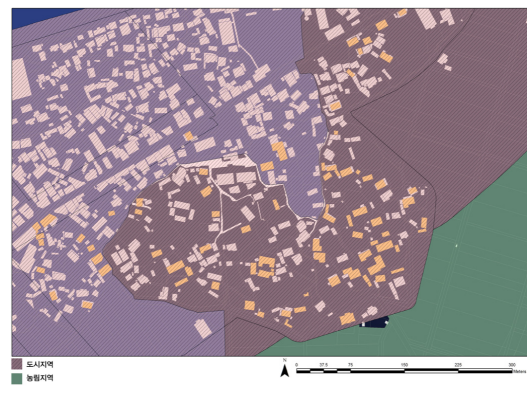
[표 4-5] 삼지내마을 일반현황

구분	내용	비고
마을명	삼지내마을	

구분	내용		비고
행정구역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창평리		
면적(m ²)	158,955		전라남도 내부자료(2016)
건축물 현황	총 건축물(동)	1,705 (삼천리 681/ 창평리 1024)	GIS 건물통합정보 기준 (2016.08.)
	목구조건축물(동)	173 (삼천리 72/ 창평리 101)	
	마을 내 목구조건축물(동)	66 (삼천리 51/ 창평리 15)	
	마을 내 한옥건축물(동)	88 (삼천리 73/ 창평리 15)	현장조사 기준 (2016.08.)
	마을 내 한옥건축물 (필지별, 채)	71 (전체 채 수 187)	



[그림 4-16] 삼지내마을 한옥분포



[그림 4-17] 삼지내마을 도시지역 및 농림지역 현황

□ 마을의 역사

삼지내마을은 백제시대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¹⁾ 그러나 현재 마을의 형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배경은 1793년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행정구역인 창평면의 지명은 고려 때 붙여진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14년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창평군이 담양군에 합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⁷²⁾

71) 문선옥(2011),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의 경관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p.95.

72) 담양주간신문, <http://w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595>, 2014.11.24., 재인용: 차윤정(2016), “로컬 서사를 통해 본 차이의 가능성 - 삼지내마을의 슬로시티 인증과 문화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 마을의 특성(건축자산)

• 삼지내(삼지천)

삼지내마을 동편에는 만덕산과 월봉산, 남편에는 국수봉과 까치봉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비교적 낮은 구아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산들로부터 시작하는 월봉천, 운암천, 유천의 세 하천이 모여서 삼지내라는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³⁾ 삼지내마을의 공간구성의 특징적인 점은 이 수원지로부터 공급받은 물길이 마을 내외부에 실개천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남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된 고재선 가옥은 가옥 내 연못과 마을 외곽의 2개 연못을 통과하여 마을 앞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설계를 보여주고 있어서⁷⁴⁾, 삼지천과 마을, 건축물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중요한 건축자산으로 판단된다. 슬로시티 지정이후 가옥 보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삼지천과 가옥 내 물길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신 가옥의 경계를 흐르는 물길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림 4-18] 삼지천 수공간 창평초등학교 북측 천변(좌), 삼지내마을 물길(우)

• 장흥고씨 가옥

장흥고씨는 삼지내마을의 가장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현재는 가옥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다수의 구성원이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씨 일가의 자산은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장흥고씨가 삼지내마을에 터를 잡은 것은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되며,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던 고인후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형성⁷⁵⁾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장흥고씨와 관련한 건축자산

으로 -”, 「한국학연구」, 제4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407.

73) 문화재위원회(2012),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록, p.182.

74) 김흥식(2011), “전통마을 친환경 건축계획요소 분류체계 설정에 따른 창평 삼지내마을 적용실태 분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18권 제6호, p.727.

75) 문화재위원회(2012),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록, p.182.

은 삼지내마을 범위에 현재 4채가 남아있다. 이 중 고재옥 가옥을 제외한 나머지 3채는 전라남도 민속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고재옥 가옥은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⁷⁶⁾받았으나 현재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⁷⁷⁾ 장흥고씨의 가옥은 건축적 가치 외에도 마을의 공동체 역사 속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고씨 일가는 일제강점기 시절 창평학교와 창평상회를 세워 지역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⁷⁸⁾,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역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⁷⁹⁾

[표 4-6] 삼지내마을 내 민속문화재 및 고택

문화재명	종목	지정일 및 관리자 ⁸⁰⁾
담양고재선가옥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5호	1986.02.07., 고재선
담양고재환가옥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37호	2001.09.27., 고재환
창평춘강고정주고택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42호	2008.04.11.
담양고재옥가옥	-	-



[그림 4-19] 창평춘강고정주고택(좌상, 좌하), 담양고재환가옥(우)

76) 문화재위원회(2012),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록, p.178.

77) 담양군청 문화관광과 유선 확인, 2016.12.27.

78) 담양창평슬로시티삼지내마을, 「슬로시티창평소개」,

http://www.slowcp.com/truecms/web?site_id=10&menu_id=15&, 검색일: 2016.11.02.

79) 심충 인터뷰, 정○○.

80) 문화재청, 「문화재검색」,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NS_04_03_01&mc=NS_04_03_01, 검색일: 2016.12.22.

- 담양 삼지천마을 옛 담장

창평면 삼천리 8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담장은 2016년 6월 19일부터 등록문화재 제 265호 기타시설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화강석 계통의 둥근 돌을 사용하여 쌓은 토 석담으로,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형식과 막쌓기 형식이 혼재되어 있다.⁸¹⁾ 이중 막쌓기 형식이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창평면사무소가 위치한 앞에 조성된 공원은 2009년 슬로시티 경관관련 사업으로 추진된 ‘소공원 조성사업’의 결과이다. 소공원 사업 당시 2층 근대가옥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는데, 이때 돌담의 일부가 허물어졌다. 긴급보수과정에서 하부에 남아있던 돌담 위에 기존 재료를 다시 사용하여 쌓은 상태가 현재 남아있는 돌담길의 모습이다. 소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돌담구간을 없애는 대신, 공원 진입문을 조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수·정비가 이루어졌다.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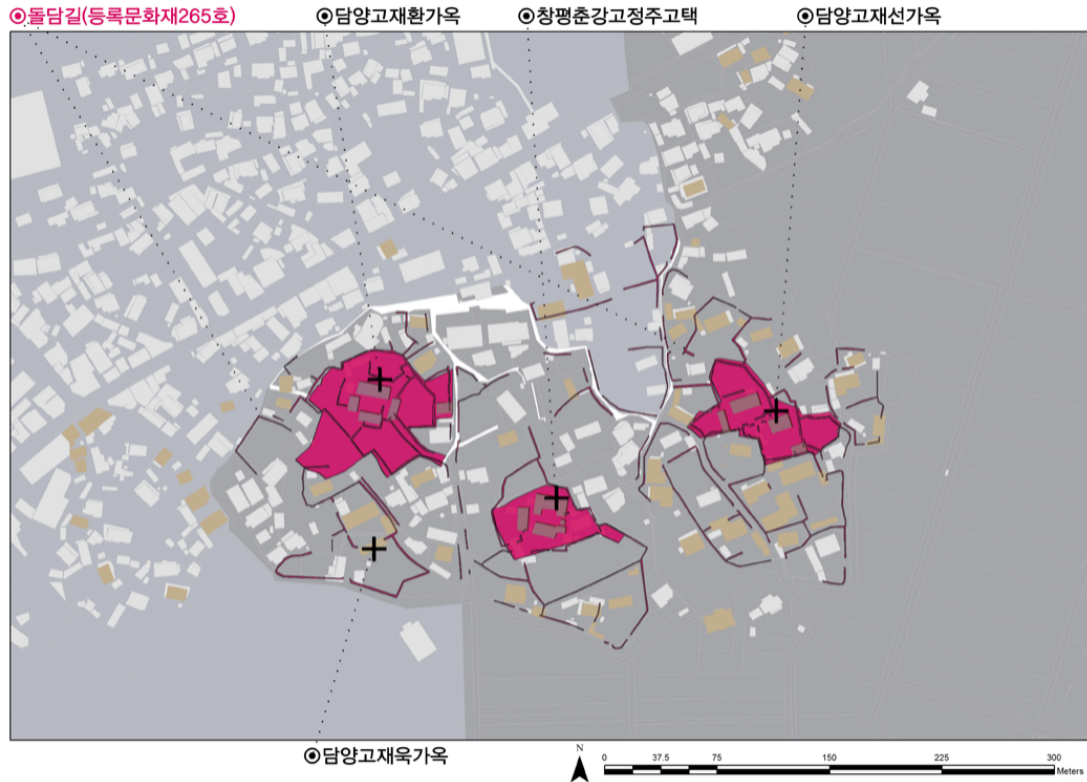
[그림 4-20] 창평면 돌담 원형 추정 및 쌓기 방식

삼지천마을 옛 담장은 특정 시점에 대한 원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영역을 창평면 삼천리지역으로 한정하여 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돌담길과 더불어, 고택 등 문화유산이 한옥보존시범마을 전체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1) 문화재청, 「문화재검색」,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NS_04_03_01&mc=NS_04_03_01, 검색일: 2016.12.22.

82) 심충 인터뷰, 정○○.



[그림 4-21] 삼지내마을 돌담길 및 문화유산 현황

② 삼지내마을의 거시적 공간변화(항공사진 분석)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구조 변화상

삼지내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된 경계의 내부에서는 마을의 변화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북측 경계에 해당하는 의병로를 중심으로, 그 북측에 해당하는 지역에 집중적인 변화가 있었다. 삼지내마을의 가장 오래된 항공지도는 1954년도 것으로 당시에도 현재 국토계획상 농림지역 구분되는 경계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외곽에서 창평초등학교, 창평중학교, 창평시장과 같은 공공시설 및 상업공간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창평면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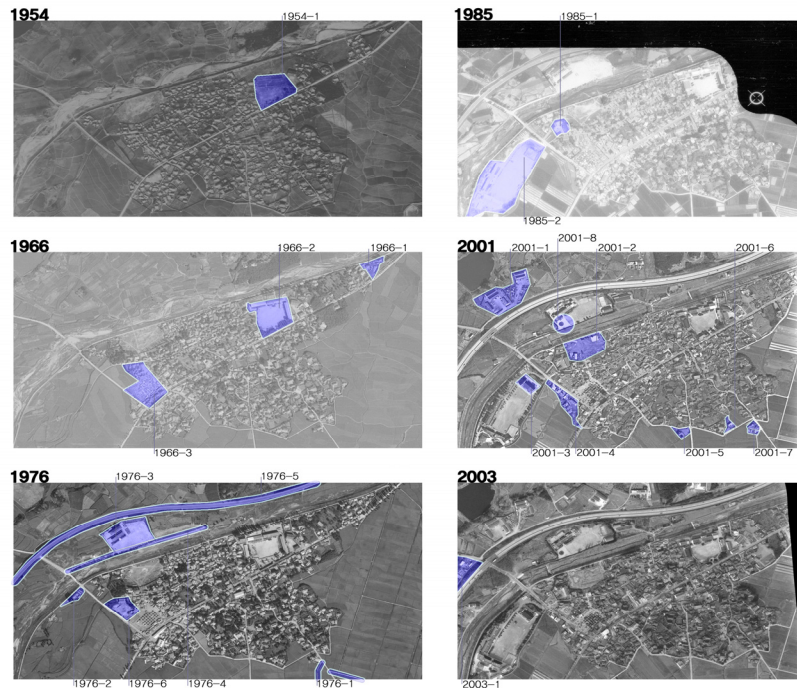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는 마을의 남측입구로 이어지는 길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길은 현재 슬로시티 일주문 및 남극루가 위치한 장소에서 이어지는데, 이로써 마을의 진입이 의병로를 통한 북측 진입 외에도 남측 진입도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1985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한옥이 밀집한 삼천리 지역의 마을 경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 중 일부는 현재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 시점을 항공사진이 남아있는 2003년까지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삼지내마을은 타 지역에 비하여 한옥보존시범마을 및 슬로시티 사업 이전까지는 마을구조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7]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변화시기	변화 내용		변화시기	변화 내용	
~1966	1	건물 신축	1976~1985	1	공장 신축
	2	창평초등학교 건립		2	창평고등학교 개교(1980년)
	3	창평시장 조성	1985~2001	1	공장 신축
1966~1976	1	마을 길 조성		2	공지 조성
	2	하우스 신축		3	창평고등학교 증축
	3	창평중학교 개교(1968년)		4	상가 단지 조성
	4	도로 정비, 가로수 식재		5~7	주택 신축
	5	창평 톨게이트 · 고속도로 개설		8	창평중학교 일원 정비
	6	창평시장 일대 상가 건축물 조성	2001~2003	1	주택 신축



[그림 4-22]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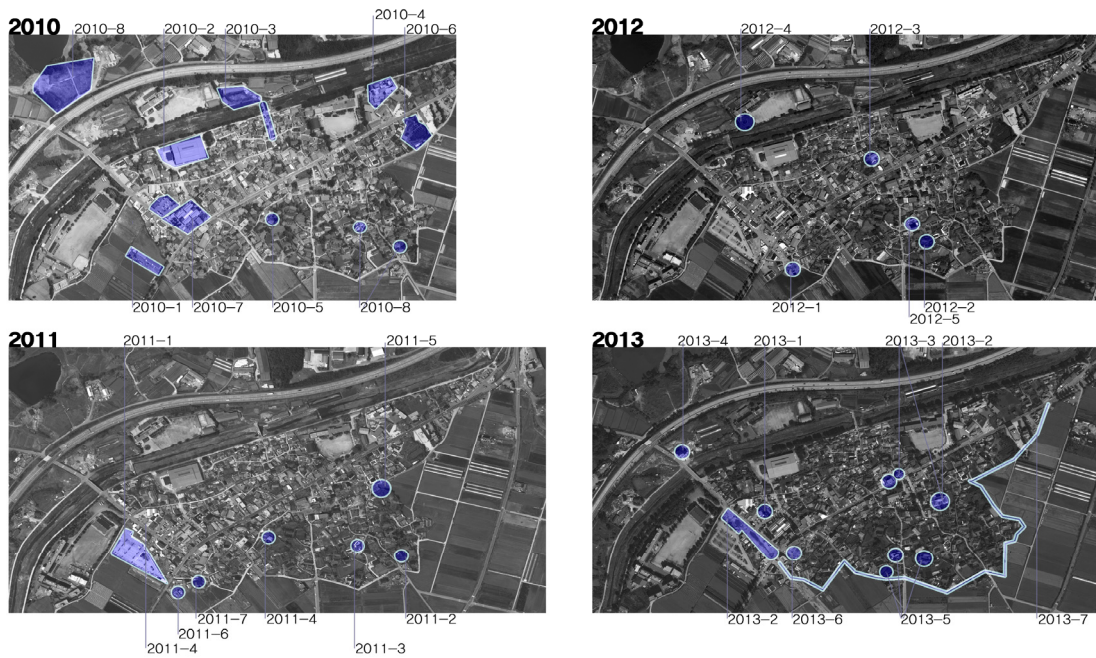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의 마을구조 변화상

삼지내마을이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시점은 2007년 1월 26일⁸³⁾로 알려져 있다. 슬로시티가 지정된 것은 같은 해 12월 1일이다. 삼지내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었지만,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었다. 그러나 슬로시티의 지정이후, 관련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마을 환경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또한 마을의 주된 경관요소인 돌담길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있어,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서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적절한 보수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8]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변화시기	변화 내용		변화시기	변화 내용	
2003~ 2010	1	공장 신축	2011~ 2012	1	건물 철거
	2	창평 게이트볼장 건립(2004년)		2	지붕 교체
	3	건물 신축		3	조경 정비
	4	주택 신축		4	창평중학교 일원 정비
	5	도로 재정비로 구조 변경		5	주택 신축
	6	요양병원 건립(2010년)	2012~ 2013	1	지붕 교체
	7	창평시장 지붕 교체		2	주택 신축
	8	건물 철거		3	지붕 교체
2010~ 2011	1	창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4	주택 신축
	2	지붕 교체		5	지붕 교체
	3	건물 신축		6~7	건물 철거
	4~5	지붕 교체			
	6	건물 신축			
	7	지붕 교체			
	8	주택 건축			

83) 전라남도 공고 제2007-54호,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공고, 2007.01.26., 당시에는 ‘담양 삼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의 상삼천마을, 하삼천마을에 해당하는 127,600㎡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6년도 정리된 전라남도청의 내부자료에는 그 면적이 다르므로 현재 지정경계와 면적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 4-23] 삼지내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마을의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을 내에는 건축물의 신축과 철거가 있었다.⁸⁴⁾ 2007년 슬로시티의 지정과 관련해서 마을의 관광 사업이 크게 융성한다. 이에 따라서 시장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 진입 도로의 정비로 인하여, 마을 주변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2010년 이후에는 한옥의 신축과 정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와 함께 마을 내 고택을 정비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마을 외곽에는 농촌 체험시설을 건립하였다. 마을의 관광화가 진행될수록 창평시장과 긴밀히 연계됨에 따라, 삼지내마을의 북쪽 공간 - 특히 창평면사무소와 파출소 인근의 공간이 활성화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슬로시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이 마을의 남측 경계와 그 밖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마을 경계가 점차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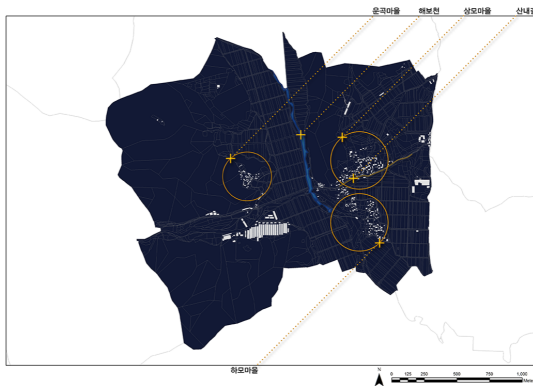
84) 다만, 이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지정과는 관계가 없다. 2006년에는 창평면의 한옥지구를 지정하고, 행복마을 사업을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삼지내마을의 주택과 관련한 변화는 한옥 관련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3) 함평군 운곡·모평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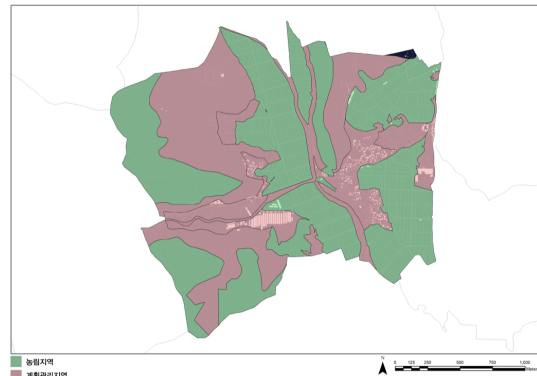
① 운곡·모평마을의 개요 및 특성

□ 운곡·모평마을의 개요

운곡·모평마을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2007년 7월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었다. 모평마을은 마을 주요 진입도로인 산내길을 중심으로 위로는 상모마을, 아래는 하모마을로 나뉘어져있다. 18세기 후반까지 기록된 『戶口總數』에는 모평마을과 관련하여 상평지·중평지·하평지으로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상모·하모만으로 구분하고 있다.⁸⁵⁾ 모평마을 서편에 위치한 해보천 너머에는 운곡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운곡이라는 이름은 모평의 파평 윤씨 입향조인 윤길에 의해서 ‘골짜기에 끼는 구름이 신선도를 보는 듯 천하일품의 경관’이라는 뜻으로 정했다⁸⁶⁾는 설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운곡과 모평은 본디 같은 마을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모·하모·운곡마을 및 원산마을을 포함하는 범위가 농촌지역 권역사업에서 ‘모평 권역’으로 설정되어 하나의 마을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4-24] 상곡리 한옥마을 현황



[그림 4-25] 상곡리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운곡·모평마을의 한옥분포현황

상곡리 행정구역 경계 내에는 운곡·모평마을의 취락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운곡마을 남측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시설 유형의

85) 「한국지명 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3147&cid=43740&categoryId=44174>, 검색일: 2016.07.08.

86) 한국매일, 「남도 고택 1」, <http://hankukmail.com/newshome/detail.php?number=1501&thread=21r03r06r13>, 2010.06.01.

건축물을 포함하여, 상곡리에는 총 397동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별 건축물 분포를 살펴보면 상모마을 118동, 하모마을 123동, 운곡마을은 59동이 건축되어있다. 마을 내 한옥분포 및 비율은 상모마을 42동(35.5%), 하모마을 20동(16.2%), 운곡마을 13동(22.0%)으로, 상모마을이 가장 높은 한옥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6] 상곡리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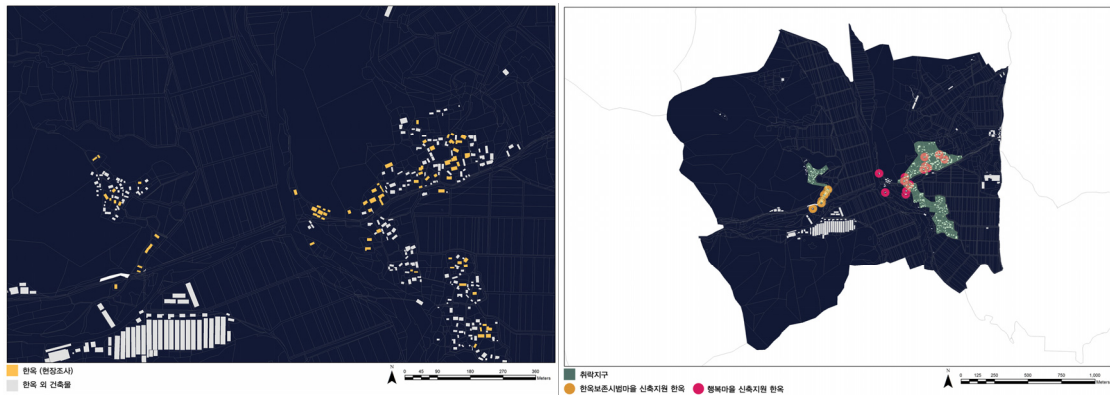
[표 4-9] 운곡 · 모평마을 일반현황

구분	내용		비 고
마을명	운곡 · 모평마을		
행정구역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면적(㎡)	335,000		전라남도 내부자료(2016)
건축물 현황	총 건축물(동)	397	GIS 건물통합정보 기준 (2016.08.)
	목구조건축물(동)	48	
	마을 내 목구조건축물(동)	34	
	마을 내 한옥건축물(동)	75 (상모마을 42동, 하모마을 20동, 운곡마을 13동)	현장조사 기준 (2016.08.)
	마을 내 한옥건축물 (필지별, 채)	66 (전체 채 수 264)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신축한옥 총 4건의 건축에 대하여 지원되었으며, 이 신축한옥은 모두 운곡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모평마을 일원에는 행복마을 사업으로 한옥이 지어졌고, 정보화 마을 사업 등으로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⁸⁷⁾ 따라서 당초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의도대로라면 운곡마을 일원만이 지정 및 관리 대상이었으나, 추후에 한옥보존시범마을이 행복마을 사업에 편입되면서 운곡

87) 함평군청 민원과 유선 확인, 2016.12.21.

마을과 모평마을의 지원 경계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마을이 합쳐진 이후 한옥시범마을의 명칭은 운곡·모평마을로 정해져 그 권역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청 문서에는 모평마을이라 명명하고 있어서, 마을의 범위와 경계에 대한 행정적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에 설정된 취락지구의 범위와 한옥지원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취락지구는 3개 마을의 영역을 포함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보천 인근에 새로 지어진 한옥은 마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마을 경계가 넓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28] 운곡·모평마을 한옥분포

[그림 4-27] 상곡리 취락지구 및 한옥 신축 지원 현황

□ 마을의 건축자산

동호정, 추당재 등과 같이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 알려진 전통 건축물이 모평마을 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운곡마을 쪽에는 고분과 고인돌군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원형이 완전하지 않아, 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마을규모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모평현의 관아가 위치하고 있던 큰 규모의 마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는 개별 건축물보다는 집단으로 건축물이 위치한 마을 규모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모평마을의 한옥 중 많은 수가 민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한옥은 정비를 통하여 관광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은 개별 한옥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일단의 형태로 존치되고 있는 현재 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두게 하는 요소이다.



[그림 4-29] 한옥민박(좌), 한옥다실(우)

② 운곡 · 모평마을의 거시적 공간변화(항공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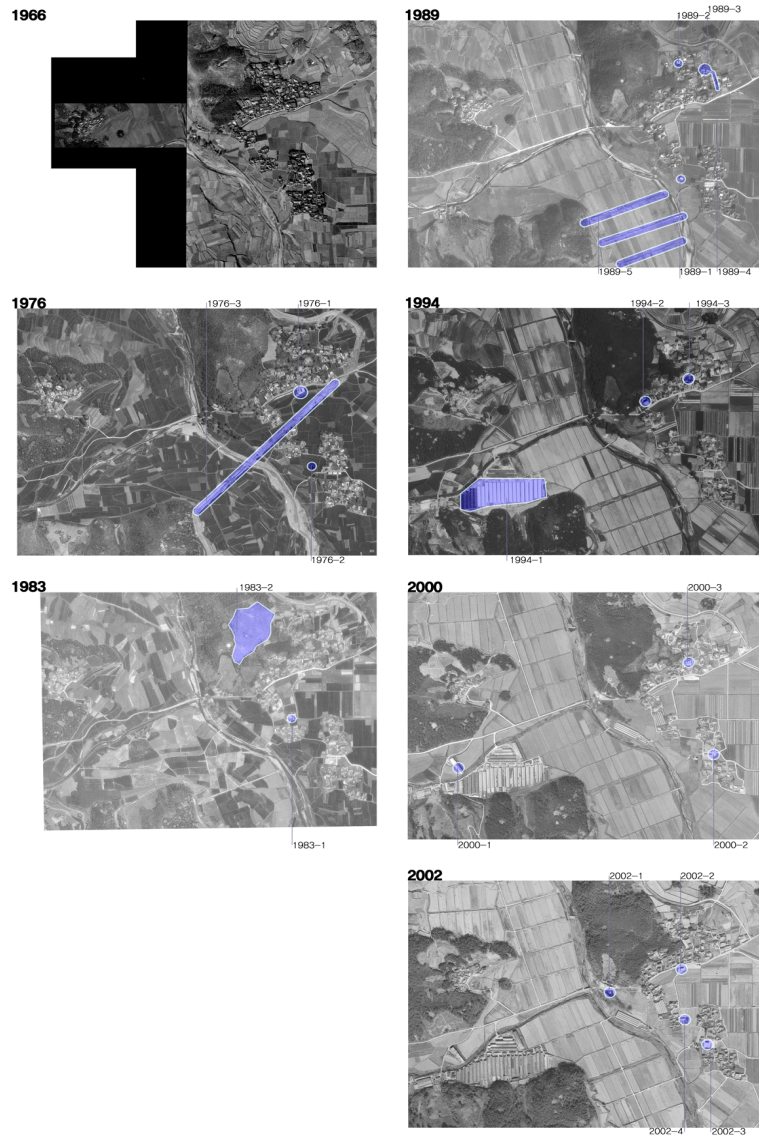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구조 변화상

상모·하모 마을로 구성된 모평마을과 운곡마을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 마을은 통칭하여 모평마을로 부르는데, 마을 서쪽을 흐르는 해보천에 건너에 위치한 운곡마을을 포함하여 두 마을은 모두 개별 한옥 신축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마을의 한옥지원 및 공간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동쪽에 위치한 상모마을은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의 대상지로 10호이상의 한옥이 일단의 형태로 남아있다. 반면 운곡마을의 경우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지원을 받은 지역으로서, 마을 입구 부분에 4호의 한옥이 건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모마을의 경우는, 1980년대 마을 공간이 확장하면서 등장한 마을이다. 상모마을과 하모마을은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뉜다. 상모마을이 구릉지에 건축된 입지조건이라면, 하모마을은 넓은 평지에 군집을 이루지 않는 신규 한옥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운곡 · 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변화 시기	변화 내용		변화 시기	변화 내용	
~1976	1	주택 신축	2000~2002	1	마을 조경 정비
	2	건물 철거		2	건물 신축
1976~1983	1	건물 철거		3	건물 철거
	2	임천산 작목(斫木)		4	주택 신축
	1	주택 신축	2002~2008	1	마을길 형성
	2	주택 신축		2	주택 신축
	3	건물 철거		3	건물 철거
	4	마을길 형성		4	건물 철거
	1	광진산업개발 신축 (공장 건물)		5	지붕 교체
	2	주택 신축		6	주택 신축
	3	건물 철거		7	주택 신축
1994~2000	1	경량철골조 건축 신축 (1999년)		8	퇴비사, 축사 신축
	2	건물 철거			
	3	주택 신축			

1960년대에는 상모·하모·운곡의 구분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해보천 직선화 사업 및 다리 개설 등으로 현재는 하나의 마을 권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1970년대 전후에 상곡리 주변으로 위치한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개천을 확장하였고, 방죽공사의 일환으로 수로를 정비하였다. 당시 공사한 수로는 현재는 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에는 모산 남사면 수림을 제거하였으며, 현재 하모마을 경로당 자리를 공공영역으로 설정하여 마을을 확장하였다.



[그림 4-30]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전의 마을 변화상

□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의 마을구조 변화상

한옥보존시범마을 이후의 변화는 마을 내 주택 조성 및 정비 등 취락관련 변화가 주요하게 나타난다. 전라남도청은 해보 권역의 농촌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인구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⁸⁸⁾ 이후 진행된 한옥보존시범마을 및 행복마을 사업에 따라서 취락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주택건설이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목할 만한 변화상은 운곡 마을 진입도로의 개선이며,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영역 역시 마을 진입공간에 배치됨에 따라 마을 진입공간의 경관이 한옥을 중심으로 경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변화는 지속적인 한옥의 신축과 지붕 등 경미한 부분의 수리와 교체가 주를 이룬다. 2016년에는 모평마을의 주진입도로인 산내길을 확장하고, 담장 주변의 수로를 정리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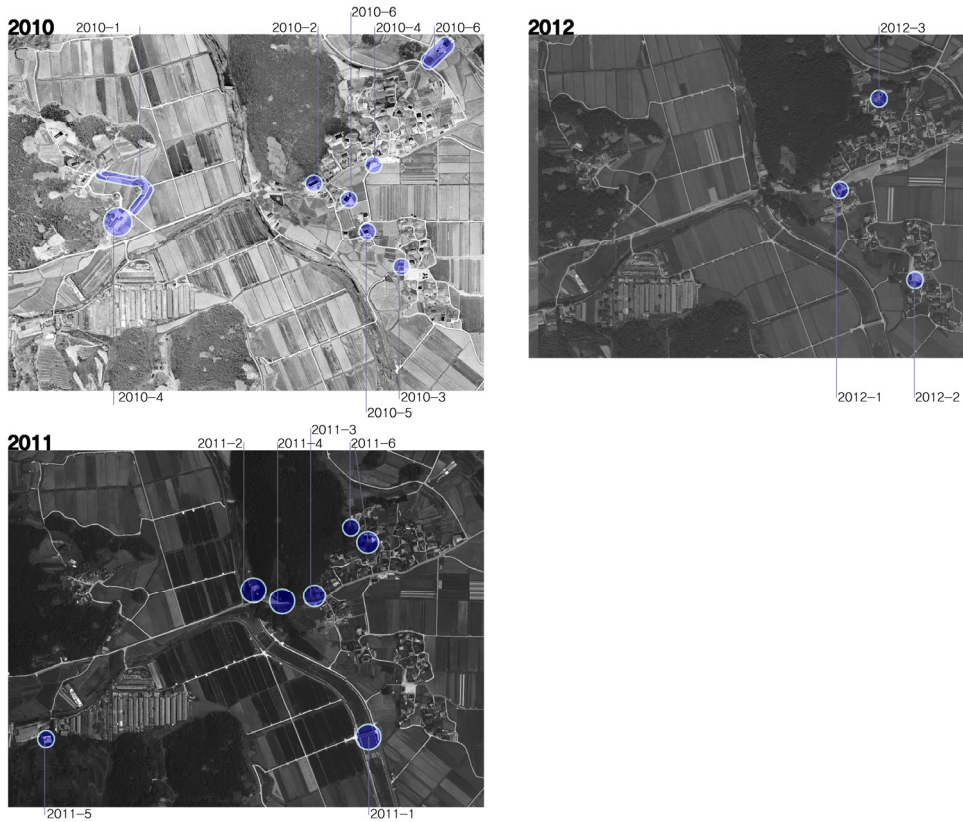
[표 4-11]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의 마을 변화상

변화 시기	변화 내용	
2008~2011	1	마을길 조성
	2~3	주택 신축
	4	건물 철거
	5	건물 신축
	6	주택 신축
2011~2012	1	건물 철거
	2~3	지붕 교체
	4	건물 정비
	5	건물 신축
	6	지붕 교체
2012~2013	1	지붕 교체
	2	마을회관 앞 정비
	3	지붕 교체



[그림 4-31] 모평마을 산내길 확장공사(2016.06.)

88) 전라남도청 내부자료(2016).



[그림 4-32] 운곡·모평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의 마을 변화상

③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운곡·모평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과 행복마을이 동시에 조성되었다. 모평마을 중 하모마을은 취락지구 외에 신축을 지원하여 마을의 권역을 해보천 인근까지 확장하였다. 상모마을의 경우는 문화재로 관리되는 고택은 없었으나, 한옥 및 한옥의 형태를 일부 갖고 있는 변형한옥들이 마을의 다수 남아있었다. 이와 함께 한옥 신축, 행복마을 지원시설이 건축되면서 현재 마을 모습에 이르고 있다.

[표 4-12] 운곡·모평마을 한옥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운곡 한옥마을(4호 지원)			모평마을(12호 지원, 추정)		
한옥보존시범마을			행복마을		
보조금		용자금	보조금	용자금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80,000	—	30,000	360,000	—	360,000

□ 운곡마을 한옥 신축 지원



[그림 4-33] 운곡마을 신축 한옥 1



[그림 4-34] 운곡마을 신축 한옥 2

운곡마을은 기존의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던 필지를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을 받으면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⁹⁾ 실제 한옥보존시범마을은 마을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마을의 농업을 지원하는 창고 등 시설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취락의 맥락을 수용하여 한옥을 배치한 것이 아니며, 대지의 형태를 따라 길게 가로로 4채의 한옥이 늘어선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첫 번째로 추구하는 가치가 한옥 및 한옥마을의 보호인 측면에서 보면, 운곡마을은 다소 지정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존의 의미가 세이프가딩이라는 광의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지형을 수용하더라도, 신축된 한옥들이 각 건물 간 완결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은 이 마을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가로로 배열된 한옥 간 담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공사가 중단된 한옥이 방치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를 차용한 거대한 문간채의 구성 등은 오히려 지역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판단된다.

89) 심충 인터뷰, 김○○.

□ 행복마을 공공기간시설사업

운곡·모평마을에서 한옥 지원에 관해 주목할 사항은, 한옥 지원을 위한 농촌권역 사업의 내용 구성에 있다. 행복마을정보화센터 및 한옥정자, 기타 부대시설은 약 4억4천만원 규모의 농촌지역 권역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었다.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 사업목적이 구축되지 않아 그 시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옥건축양식을 활용한 건축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운곡·모평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및 행복마을 사업 추진, 농촌지역 권역사업이 동시에 수행된 마을로서, 사업의 담당 역시 함평군청 내 친환경농산과에서 맡아 진행하였다. 즉, 한옥 및 농촌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35] 모평마을 경로당(좌) 및 행복마을정보화센터(우)

□ 행복마을 지원 한옥

모평마을의 행복마을 사업은 한옥보존시범마을과 밀접한 관련은 없다. 다만 영암군 구림마을과 같이 다수의 한옥이 존치 또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의해서 조성된 경우에 비하여, 운곡·모평마을은 행복마을의 규모가 더 크다. 행복마을은 개별한옥의 형식 및 의장적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아, 사용자의 요구 및 지역 설계·시공업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⁹⁰⁾



[그림 4-36] 행복마을 지원 한옥

90) 모평마을 내 행복마을 사업으로 지원된 한옥은 마을의 고유한 맥락을 수용하여 건축되지는 않았다. 특히 한옥의 퇴칸보다 공간을 확장할 목적으로 건축된 ‘까대기’의 사용이 빈번한 점은 모평마을이 생활 중심의 한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3.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분석: 농촌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은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유관 지원사업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구림마을은 역사적 맥락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업보다 농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지내마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슬로시티사업의 중복지원을 받아 문화콘텐츠 중심의 마을로 성장하였다. 앞서 다룬 3개 마을은 모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⁹¹⁾이 실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표 4-13]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에 실행된 농촌 사업

	영암군 구림마을	담양군 삼지천마을	함평군 모평마을
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존 농촌마을 종합개발)		
범위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창평리, 삼천리, 용수리, 유천리	상곡리 (상모마을, 하모마을, 원산마을)
사업기간	2012~2016	2006~2010	2005~2009
사업비	6,900백만 원	7,369백만 원	5,010백만 원
사업명	농촌체험휴양마을		
범위	군서면 구림로 43-14 일원	창평면 돌담길 56-24 일원	해보면 산내길 506 일원
지정년도	2011.04.	-	2011.05.
제정지원	200백만 원(체험관 건립),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보험비 지원 ⁹²⁾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보험비 지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보험비 지원
사업명	색깔 있는 마을		
범위	동구림리 구림마을(2011) 동구림리 고산마을(2012) 도갑리 죽정마을(2012) 도갑2리 평리마을(2014)	돌담길57 일원 삼지천마을(2012) 의병로163 일원 창평마을(2012)	-
제정지원	사업비 지원 없음 (단, 연계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9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또는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불린 농촌지역 지원정책으로써, 현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92) 보험비 지원은 체험 및 시설 안전 관련 보험에 대한 지원이다.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을 지원하며, 일부 보험에서는 마을에서 20%의 보험료 자부담을 필요로 한다.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약 5년 동안 50~80억 원 사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비하여 예산이 월등히 큰 규모이며, 권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업이 진행되므로 개별 한옥에 지원하는 한옥지원사업보다 마을의 물리적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강하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정보에 의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 보조사업에 편성된 국고 예산은 84억8천만 원이며,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7:3이다. 이 예산은 제주시·서귀포시·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19개 시군에 지원되었다.

대다수의 농촌지역 지원정책은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지 않는다. 한옥 정책은 대부분 수요자에게 직접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반면, 농촌의 사업은 포괄보조금 형태로 마을 및 협의체를 통하여 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즉 지원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마을 내 대표 및 협의체의 구성,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세부 사업들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1) 영암군 구림마을

①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대상의 농촌 사업

□ 영암군 농촌 지원사업의 특성

구림마을과 같이 마을이 넓은 행정구역 및 권역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농촌지역 사업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마을인 모평마을의 상곡리 권역 사업과 같은 경우는 계획상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사업장소의 밀집이 가능한 반면, 소규모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 복지·편의 시설,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사업의 경우는 마을 곳곳에 분산이 된다. 특히 3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마을 및 사업권역이 설정되어있는 구림마을의 경우는 사업을 콘텐츠로 하는 마을권의 경계 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의 성과와 공간 구조, 장소성에 대한 관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마을 맥락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향후 마을 보전방안을 제안한다.

구림마을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마을사업이 미완되어, 2017년까지 1년이 추가 연장되어 진행될

예정이다.⁹³⁾ 구림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는 영암군청에서 군서면에 지원된 사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목록을 통하여 세부사업을 추정하였다.⁹⁴⁾

[표 4-14] 구림마을 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 원 ■ 음영은 마을 및 한옥 관련 사업(토목공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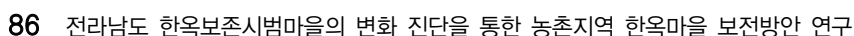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기간	예산	비고
1	영암 소각장 후단시설 보수공사	2008	20,000	
2	도기문화센터 준공표지석 설치공사	2008	18,000	
3	구림관광지 내 연못 보강공사	2008	13,000	
4	구림관광명소화 상대포 떼배 이설공사	2008	18,000	
5	군서동계지구 농로포장공사	2008	14,000	
6	군서지구 교량난간 보수공사	2008	14,000	
7	죽정제 그라우팅공사	2008	13,000	
8	왕인문화공원 관정개발사업	2008	50,000	
9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설치	2008	12,000	
10	군서 모정 소공원 조성	2008	18,000	
11	군서면 주차장 조성공사	2008	18,000	
12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느티나무 굴취이식사업	2008	17,000	
13	군서 서구림 상대 농로포장공사	2008	12,000	
14	상대포 주변 가로수(느티나무) 식재사업	2008	10,000	
15	군서 서구림리 소공원조성	2008	13,000	
16	왕인박사유적지 진입다운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9	23,180	
17	서구림 농로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구입	2009	11,295	
18	왕인공원 조경수(단풍나무) 식재	2009	12,910	
19	왕인공원 주차장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	2009	73,267	
20	군서 서구림 회사정 주변 숲 조성	2009	17,988	
21	한옥음식문화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9	33,326	
22	도선국사 풍수지리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9	30,360	
23	학파지구 경작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2009	16,278	
24	군서 죽정 뒷뜰 농로포장공사	2009	13,025	
25	군서 동구림리 전통마을 숲 조성공사	2009	98,394	
26	왕인유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2009	19,436	
27	군서 망향미술관 편입부지 내 수목 굴취이식사업	2009	17,761	
28	군서 서구림 남송정 공원정비	2009	18,000	
29	회사정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	2009	19,479	
30	군서 농공단지 가로수 전정공사	2009	12,880	
31	왕인유산 천인천자문책자 발간	2009	21,000	
32	군서 모정 소공원 정비사업	2009	19,570	

93) 심충 인터뷰,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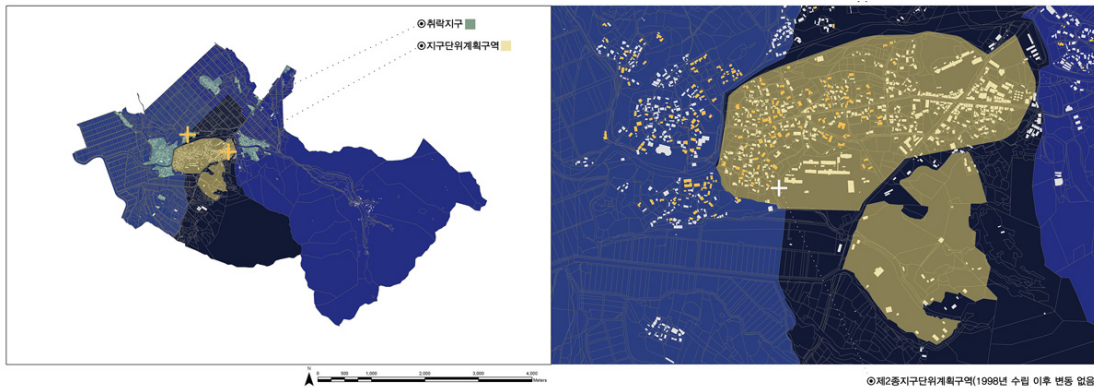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기간	예산	비고
33	군서 모정마을 여성경로당 보수공사	2009	11,400	
34	왕인박사유적지 조경수(소나무)전정	2009	14,476	
35	도갑사 소공원 조성사업	2009	16,691	
36	군서 서호정 농로 포장공사	2009	12,724	
37	하미술관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2008~ 2012	5,500	서구림리 381-1 필지
38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010~ 2014	5,193	월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 조경영, 상대포로 37번지 일원
39	군서면단위 하수처장 설치사업	2011.01.~ 2017.12.	25,290	하수처리장 및 우·오수관로 분류 설치, 영암군 군서면, 서호면 소재지 일원
40	남송정 신흥교차로 선형 개량공사	2013.04.~ 2014.04.	2,600	위험도로 개선사업 서구림리 일원
		2013.04.~ 2014.04.	762	농어촌도로와 지방도 연결 공사, 서구림리 일원
41	조사료(TMR)공장건립	2007~ 2009	27,470	도갑리787-2
42	2014 영암 군서 도갑 계류보전사업	2014.12.~ 2015.02.	59,958	도갑리
43	2016 영암 구림 대동계문서 보존처리사업	2016		문화재보수정비사업
44	구림 5일 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120 ,000	철근콘크리트조 33.75㎡
45	작은 목욕탕 건립	2014~ 2018	400,000	군서, 도포, 미암, 삼호 에너지절감 설비
46	한옥체험장 전시관 및 한옥건축박람회	2015~ 2016	23,000	국토부(도시개발) 동구림리 일원
47	구림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	2015~ 2018	4,513,000	
48	구림마을 슬로시티지정사업	2015~ 2016	120,000	
49	구림 한옥체험관 숙박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2015~ 2023	193,000	
50	구림 문화·역사 빌리지 기본계획 (영암군 군기본계획 2020, 10대 전략 사업)		77,000,000	왕인박사유적지, 성기동관광지와 연계 관광지 확대 및 관광편의시설 설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94) 현재 국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의하여 세부사업 현황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사용된 예산(토목공사 외)은 약 53억9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69억 원과 집합을 이루는 구성이며, 이에 따라 실제 마을 환경을 변화시킨 사업비용은 최소 69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암군은 군기본계획2020-10대 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구림화·역사 빌리지 기본계획⁹⁵⁾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로서 2024년까지 770억 원의 예산이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⁶⁾ 월출산 중심 계획이며, 구림마을에 속한 도갑리 일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림 한옥체험관 숙박 캠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마을의 변화를 추동할 요인을 파악된다. 예산의 규모만으 봤을 경우, 구림마을은 농촌지역 한옥마을 중 매우 활발한 사업과 이에 따른 변화가 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관리



[그림 4-38] 구림마을 취락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림마을 중 동구림리는 1998년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 수립이후 재수립이 없어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용적률 및 건폐율 관리를 통하여 소도읍 규모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구림마을은 그 권역의 발전정도가 타 농촌마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건축자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대동계를 중심으로 파생된 마을 공동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구림마을 공원 조성 및 조경 지원사업

앞서 살핀 구림마을의 역사적 자산은 마을 지원업에서 소공원 조성 및 조경 관련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상대포 공원·회사정·한옥형 마을쉼터의 건립은 기존의 맥락을 적절히 수용하여 개발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39] 상대포 공원, 회사정, 마을쉼터(좌측부터)

② 영암 왕인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및 지역역량강화(S/W)사업

□ 지역역량강화(S/W)사업 및 대동누리관 건축

구림마을 농촌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

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를 진행하였다. 구림마을은 대동계에서 파생된 마을 공동체가 상존하는 마을이며, 타 농촌마을보다 많은 마을 수가 농촌 지원사업 권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 양성과 주민 참여 의식 제고가 사업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이에 대한 결과로 행복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등 구림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을 협의체의 대표는 1인이 중복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4-15] 왕인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지역역량강화(S/W)사업

구분	분야별	예산액 (단위: 천 원)
교육	주민 교육	12,000
	리더 교육	25,800
	권역 특성화 교육	22,500
	소계	60,300
견학	국내선진지견학	32,000
	국외선진지 견학(자부담별도)	24,000
	소계	56,000
컨설팅	브랜드 개발	20,000
	권역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10,000
	권역 특산물 개발 컨설팅	20,000
	체험 프로그램 및 코스 개발 컨설팅	20,000
	왕인촌 권역 통합 활성화 전략 컨설팅	20,000
	사업 모니터링	20,000
	소계	110,000
홍보마케팅	권역 특산물 포장패키지 시범 제작	6,000
	인쇄홍보물(리플릿) 제작	24,000
	홍보동영상제작	20,000
	TV프로그램 유치 홍보	30,000
	축제 기획 및 지원	40,000
	소계	120,000
정보화	홈페이지 구축	20,000
	정보화기기 구축	14,600
	소계	34,600
계		380,900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201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왕인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S/W)사업 시행용역 과업설명서, p.7.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로 예산 지원 방식이 변함에 따라, 지역에서 필

요하며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상향식 사업의 개발이 농촌 사업에서 선결과제가 되었다. 특히 과거 하향식 방식에서 행하던 지역 기반시설 개발과 달리, 상향식 개발방식은 마을 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구축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요 대상이 된다. 한옥마을이 조성된 지역의 경우는 마을 경관과 한옥 숙박 등 체험이 주된 콘텐츠가 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건립된다. 구림마을의 경우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에 따라 민박시설이 가능한 한옥들의 신축이 이루어져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체험휴향마을 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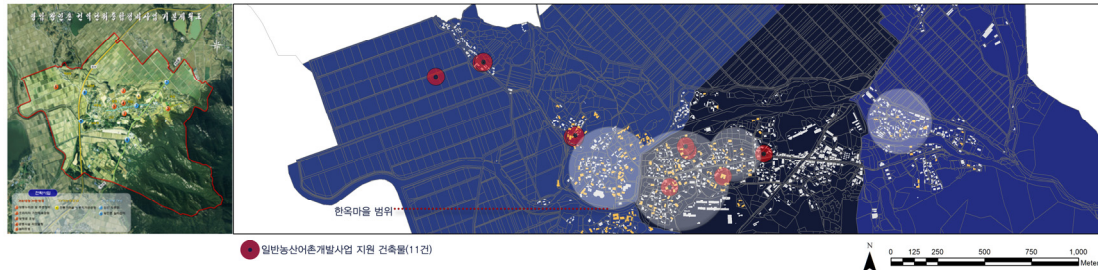
[그림 4-40] 왕인촌 대동누리관(지역역량강화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농촌체험휴향마을 사무국)



[그림 4-41] 행복마을 콘테스트 구림마을 발표 자료(마을 컨설팅업체 제작)

출처: 구림마을 협의체 내부자료(2016)

동구림리에 위치한 왕인촌 대동누리관은 왕인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장으로 활용되는 한옥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 한옥이다. 대동누리관은 농촌체험휴향마을 사무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대동누리관 및 주변 정비에 소요된 사업비는 21억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42] 한옥보존시범마을과 농촌지역 지원사업의 장소적 관계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사업



[그림 4-43] 주민 체육시설, 죽정마을회관, 동계마을회관, 한옥쉼터(좌측부터)



[그림 4-44] 군서 구림천 정비 및 보행로 조성: 정비 이전(1970년대, 좌), 정비 이후(좌측 두 번째부터) 출처(정비 이전 구림천 사진): 영암신문, 「포토만평」, 2010.12.21.

구림마을의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소득증대·지역경관개선·지역역량강화의 4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중 지역경관개선은 마을 전반에 걸쳐 전선 지중화 및 길잡이 안내시설을 설치한 것이며, 지역역량강화는 S/W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을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구림마을의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앞서 살핀 대동누리관 건립사업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기찬 체육공원·보행로 조성·마을회관 6개소 리모델링·쉼터 조성 사업이다. 체육공원과 보행로 조성사업은 군서 구림천 일대 정비를 통하여 정리된 보행로와 부지를 통하여 조성되었다. 둘은 모두 주민을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한옥 및 농촌체험을 온 외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기도 하다.⁹⁷⁾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은 모두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을회관은 기존 건축물에 한옥건

97) 심충 인터뷰, 최○○.

축양식을 덧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마을별로 건축된 4개소의 쉼터는 모두 한식 목구조로 건축된 특징이 있다. 마을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이며,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이해되는 건축물에 대한 농촌지역 지원사업은 모두 한옥 및 한옥건축형태를 차용하여 마을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소득증대사업과 한옥 마을 내 공장시설

실제 구림마을 생활권 내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 건축물 중 주민 지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1동이 존재한다. 이 건축물은 식품 가공공장으로 구림마을 내 동계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동계마을은 행복마을 사업이 실행된 지역으로 한옥이 집단화되어 있으며 주거용 건축의 밀도가 높다. 담양군 삼지내마을 및 함평군 운곡·모평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마을의 영역이 구림마을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소득증대시설은 마을 권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구림마을은 마을권역이 넓으며, 마을 사이에 다양한 근린생활도 존재하므로 구림마을 내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경관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5] 농촌지역 소득증대 지원 시설: 전통가마솥 누룽지 가공공장(구림마을), TMR사료공장(군서면 권역), 삼지내마을 쌀엿 체험장, 해보농공단지(좌측부터)

[표 4-16] 영암군 왕인촌 권역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음영은 마을 및 한옥 관련 사업(토목공사 제외)			
기능별 분류	사업명	사업비	비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왕인촌 대동누리관	1,660	
	대동누리관 주변 정비	500	
	기차 체육공원	838	
	보행로 조성	340	
	공동시설 리모델링	91	마을회관 6개소
	쉼터조성	170	쉼터 4개소
지역소득증대	전통가마솥 누룽지 가공공장	257	
지역경관개선	전선 지중화	1,460	
	왕인촌 길라잡이	300	
지역역량강화	S/W 사업	480	
	기타경비	667	
	예비비	137	
합계		6,900	

2) 담양군 삼지내마을

① 슬로시티 사업

삼지내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이후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따른 옥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옥 관련 지원정책에 따
른 변화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자치조례 이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
어서, 이를 통하여 삼지내마을의 변화를 살펴도록 한다.

삼지내마을의 한옥 및 한옥마을 관련 사업은 주로 슬로시티 관련 사업에서 실행되었
다. 이를 제외하면 창평면사무소의 한옥 건립, 한옥민박 지원, 돌담길 정비의 사업이 진행
되었다. 이중 창평면사무소 한옥 건립 및 슬로시티 체험관 건립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었거나 관광 관련 사업이다.

[표 4-17] 삼지내마을 한옥 및 한옥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기간	예산	내용 (비고)
1	슬로시티 정주환경 정비사업	-	-	삼지천 개울복원 사업
		-	-	삼지천마을 체험관 건립
		-	-	삼지천마을 환경정비(탐방로 개설)
		-	-	삼지천마을 가로조경
		-	-	삼지천마을 대문 및 공가 정비
		-	-	담장 복원
		-	-	옛 담장 보수
2	담양창평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2009	-	삼지천마을 탐방로개설
			-	체험관 건립 및 부대비
			-	가로 조경
			-	대문 및 공가정비
			-	유실수 감나무 구입
			-	슬로시티 안내판 정비
		2010	-	싸목싸목 탐방로 정비
			-	유기농 농장 운영지원 및 환경정비
			-	슬로명품길 정비
			-	명품돌담길 및 수변공간 조성
		2016	150백만 원	-
3	역사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		-	-

구분	사업명	기간	예산	내용 (비고)
4	창평면사무소 한옥건립 추진	2012.01~ 2012.10	1,000백만 원	(도비50%, 국비50%)
5	삼지천마을 옛 담장 보수	2007~ 2012	8,617백만 원	(사업규모 3,600m)
6	한옥 민박사업		40백만 원	-
7	창평 슬로시티 옛 길 조성 사업		-	-
8	전통가옥 보수정비공사	2003~ 2011	-	-
9	슬로시티 고택활용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2011	68백만 원	면사무소 내 고택보수 55㎡, 방문자센터 보수 69㎡ (고재육고가 보수 등)

출처: 나라장터 조회 및 담양군 홈페이지 소개 자료, 담양군청 홈페이지 재구성

- 삼지천마을 체험관 건립⁹⁸⁾



[그림 4-46] 삼지천마을 체험관

삼지천마을 체험관은 슬로시티 방문객 센터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한옥건축 1동 375.49㎡⁹⁹⁾ 규모로 지어졌으며, 마을의 남측 진입로로 접근하기 용이하게 배치되어 있다. 현재 이 건축물이 위치한 자리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계와는 다소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건축물은 슬로시티 사무국 사무실 및 교육·체험 시설로 이용되었으며, 현재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체험관 앞 공간을 관광버스 등 외부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삼지천마을 공가 정비

삼지내마을은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 공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공가

98) 삼지내마을은 농촌지역 권역사업 당시 ‘삼지천마을’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후속 마을 사업은 삼지내 대신 삼지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있다.

99) 나라장터 입찰 공고문 기준.

는 지역 원주민이 외부로 전출하면서, 그 집을 남겨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삼지내마을은 집성촌의 성격이 강하여, 마을 내 공가 및 이에 따른 공지에 대한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⁰⁰⁾ 소유자의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4-47] 공가 현황 사진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4년도에 담양군 관광레저과의 관리책임 하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이 조례는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고유한 전통생활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통한 자연생태 생활방식을 발전시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¹⁰¹⁾으로 만들어졌으며, “군수 및 사업자는 슬로시티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역민의 참여 속에 상호간의 신뢰, 이해와 협력 관계가 성립”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¹⁰²⁾ 이 조례는 슬로시티 사업이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맞추어 진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슬로시티의 기본이념이 추구하는 바가 지역민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 활성화 저해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동체 사이의 지역 내 우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외부인의 유입 및 환경 정비 등이 기존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마을 내 갈등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가에 대한 접근 역시 마을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므로, 경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의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창평면사무소 한옥 건립

창평면사무소는 2012년부터 약 2년의 기간동안 건립된 한옥 공공건축물이다. 대지면적 3,220㎡, 건축면적 604.6㎡의 규모로 지어진 이 건축물은, 조선시대에 창평현청(昌

100) 심충 인터뷰, 정○○.

101)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102)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림 4-48] 창평면사무소

平縣廳)이 자리하고 있던 장소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역사적 맥락도 있어서, 현재 지어진 창평면사무소는 창평현청을 복원한 성격이 강하다.

창평면사무소는 현판을 창평현청이라 적고 있다. 공적 행정기구의 명칭을 과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의 역할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¹⁰³⁾



[그림 4-49] 창평면사무소 업무공간(좌), 창평면사무소 주민참여공간(우)

현재 창평면사무소는 한옥구조와 조적조가 복합된 구조물이다. 그러나 이전 면사무소는 목구조건축물이 아니었다. 조적조 및 시멘트 벽돌로 주구조를 구성하였고, 2009년에 12.96㎡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목구조와 기와로 증축하였다. 이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및 슬로시티 마을 지정 이후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사무소의 보수 및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옥 공공건축물로 면사무소를 바꾼 이후 마을 자산

103) 이기환(2015, 담양군 부군수), “기고-국내 유일 힐링서비스 '창평현청(昌平縣廳)'을 아시나요?”, 뉴스1코리아, 2015.02.09.

및 경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0] 2012년도 이전 창평면사무소

출처: <http://blog.daum.net/gane/769>, 검색일: 2016.08.11.

[표 4-18] 창평면사무소 공사내역

공사내역	입찰공고일	내용	예산설계 금액 (백만원 이하 버림)
창평면사무소 리모델링공사	2006.03.27.	리모델링 (면적 275.4m ²)	70백만 원
창평면사무소 개보수공사	2009.12.15.	면사무소 리모델링(목공사) 등	26백만 원
창평면사무소(한옥) 건립사업	2012.06.08.	—	1,471백만 원

출처: 나라장터, 재구성

- 삼지천마을 대문 정비 및 한옥 민박사업

슬로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삼지내마을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북측 경계에 위치한 의병로 일대까지 마을 대문 정비를 하였다. 이 사업은 필지 내 건축물이 반드시 한옥이 아니더라도 대문에 대해서 정비를 실행하였다. 각 집과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여, 작은 간판 형식으로 제작하여 대문에 설치하였다. 한옥 민박사업에 지원된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 슬로시티 홈페이지(www.slowcp.com)에서 약 10채의 민박을 소개하고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 고택활용 문화사랑방 조성 및 전통가옥 보수 사업

창평면사무소 주변은 한옥형 창평면사무소가 건립되기 이전인 2009년에 소공원사업이 있었으며, 이 당시 공원 내에 위치한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2층 가옥의 보수 및 개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조를 통하여 현재는 소공원 내 카페테리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면사무소 서측에 위치한 도서관 용도의 문화사랑방은 2011년도에 활용을 위한 정비

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건축물은 기존의 용도를 바꾸어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지내마을 안에는 앞서 살핀 장흥 고씨 일가의 가옥을 제외하고도, 건축 연도의 1930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건축물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건축물의 원형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정에 의한 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고택이 원형보존에 대한 보수 철학을 요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보수를 위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1] 문화사랑방(좌), 전통가옥 보수(우)

- 달팽이가게(방문자 센터)



[그림 4-52] 보건소를 개조한 달팽이가게(방문자 센터)

삼지내마을에는 한옥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 외에도, 기존 마을의 건축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살핀 슬로시티 체험관의 폐쇄로 인하여 그 기능은 현재 달팽이가게라 불리

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은 옛 보건소 건물로서, 현재 슬로시티 사무국 및 마을 주민의 농산물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② 창평 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삼지내마을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약 69억 원에 해당하는 권역사업이 실행되었다. 현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불리는 농촌지역 지원정책이, 당시에는 이의 전신격으로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존재했다. 권역단위 사업은 현재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다소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 지정지역: 창평 권역
- 사업비: 7,369백만 원 (국비 5,277 · 지방비 1,667 · 자부담 425)
- 사업기간: 2005 ~ 2010년

[표 4-19] 창평 권역 연차별 사업비 집행상황

2005~2010년 창평 권역 연차별 사업비 집행상황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사업비		연차별 사업비 집행상황(국비+도비+시군비)					집행액 소계
총 액	국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944	5,277	625	1,697	1,844	1,559	1,219	6,944

출처: 담양군청 공개자료

삼지내마을의 경우는 국토계획상 도시지역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권역에도 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 지역에 대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평면 일대는 창평 1구(시동)·2구(사동), 삼천1구(하삼천)·2구(상삼천), 용수 1구(수곡)·2구(용운동)가 창평 권역으로 설정되어 농촌사업이 이루어졌다. 삼지천마을은 창평 1구와 삼천1구 및 2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권역단위 사업은 현재 삼지내마을보다 넓게 설정되었으므로, 정확한 사업의 실행 장소를 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삼지내마을의 경우는 국토계획상 마을이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슬로시티 사업에 의하여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실제 권역단위 사업의 비중이 타 권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권역단위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명만으로도 어떤 지원이 이

루어졌는지 파악이 가능했다. 삼지내마을에 실행되었던 농촌지역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0] 창평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예산 단위: 백만 원 ■ 음영은 마을 및 한옥 관련 사업(토목공사 제외)

부문별 분류	사업명	사업비	비고
기초생활	마을 진입로(용수1구)	534	524m
	마을 진입로(용수2구)	187	575m
	진입로 정비(용운동)	290	320m
	간이 상수도	11	1식
문화복지	천제 주변 정비	12	1식
	남극루 정비	206	1식
	농민건강증진센터	1,345	490m ²
	다목적 회관(유천1구)	446	184m ²
	다목적회관 주변정비(유천1구)	39	1식
소득기반	유기축산단지	1,099	1,567m ²
	쌀엿 체험장	600	278m ²
농촌관광	일주문 설치	124	1식
	종합안내판	21	1식
	마을하수도 정비(용수1구)	73	1식
환경시설	친환경하천 정비(용수2구)	946	575m, 2.4km
운동휴양	커뮤니티 공간 정비	50	1식
재해대비	유천 배수로 정비	16	130m
	창평 배수로 정비	113	829m
	지역 역량강화 사업	424	
	제경비 등 기타	408	

출처: 담양군청 공개자료

□ 남극루 정비

남극루는 1830년대 장흥고씨(高氏) 고광조(高光駒) 등 30여명이 그 종중의 노인들의 휴식소로 신축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1919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¹⁰⁴⁾ 남극루는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제3호로 등록되어 있다. 담양군 향토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하략)”¹⁰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104)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jsp?cid=1624502&out_service=Y,

검색일: 2016.11.10.

등록된 남극루의 경우는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장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¹⁰⁶⁾ 남극루는 창평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문화 복지 분야에서 정비가 지원이 되었다. 남극루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2억6백만 원이다.

향토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에 비하여 관리와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권역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는, 한 마을에 사업이 완료되면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새로운 분야가 추가될 경우에 한하여 재지원이 가능하다. 남극루의 경우는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유사 규모의 추가적인 농촌지역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차원의 지원 및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인 수익원 창출을 통한 기금 등으로 운영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3] 남극루

□ 일주문 설치

일주문 및 종합안내판은 권역사업 중 농촌관광 분야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일주문의 경우는 1억2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일주문은 마을의 남쪽 입구에 설치가 되었으며, 남극루 인근에 설치되어 마을의 진입로를 안내하고 있다. 남극루와 일주문은 모두 전통건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영역이 한옥보존시범마을과는 분리되어있다. 한옥보

105)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2조(정의).

106)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14조(경비보조 등).

존시범마을이 주거 용도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경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마을권의 설정을 고려할 경우 두 건조물을 포함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4-54] 슬로시티 일주문

□ 쌀엿 체험장

쌀엿 체험장은 소득기반 분야에서 지원된 권역사업 중 하나이다. 삼지내마을의 경계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3동 278㎡ 규모에 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자부담금 1억5천만 원이 더해져서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은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각 동마다 건축구조가 상이하다. 이 건축물은 남극루에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55] 창평면 쌀엿 체험장

□ 농민건강증진센터 건립

삼지내마을의 농민건강증진센터는 13억4천만 원 규모의 권역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진 한옥 목욕탕이다. 이 시설은 삼지내마을에 독특한 농촌지역 지원정책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건강증진센터는 슬로시티사업의 방문객 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어진 삼지천마을 체험관과 같은 필지(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56-24)에 위치하고 있다. 두 건축물 모두 한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마을 진입공간의 한옥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본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농촌지역 권역사업은 초기 사업금이 지원되지만, 추후 시설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따라서 농민건강증진센터는 슬로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되었지만, 운영측면에서는 관리 및 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삼지천마을 체험관 및 농민건강증진센터가 모두 운영되고 있을 사업 초기 단계에는, 두 시설 모두 슬로시티 사업 중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경상 경비를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로시티 사업과 농촌지역 지원정책 간 공조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는 목욕탕 등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4-56] 창평면 농민건강증진센터

□ 삼지내마을 기타 지원사업

삼지내마을 북측 의병로 위에 위치한 창평시장과 창평초등학교 일원 역시 농촌사업의 권역으로 설정되어있다. 특히 이 지역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있으며, 지역의 유입관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삼지내마을과 연계한 계획 및 협의체 구성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지내마을의 전통적 이미지를 차용한 주차장 시설 및 화장실 시설, 시장 아케이드와 버스정류장이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되어 마을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1] 삼지내마을 기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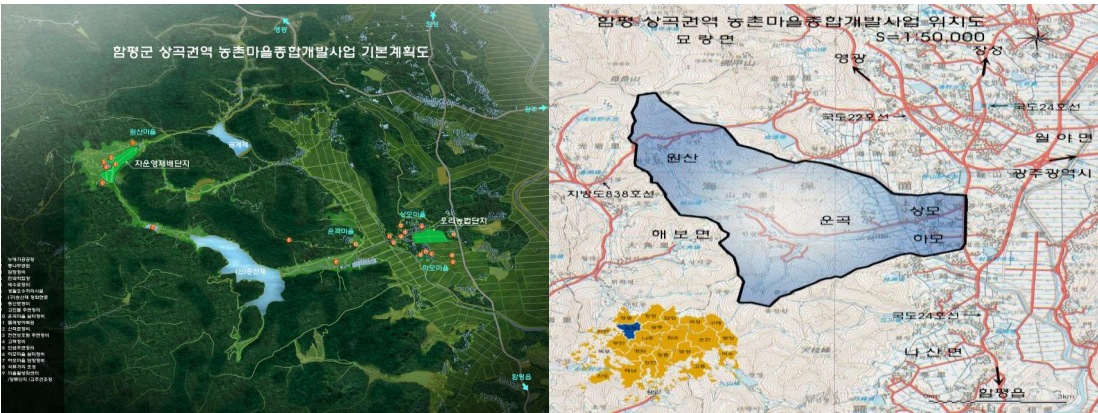
삼지내마을 기타 지원사업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화장실)
	
창평시장 아케이드 교체 보수	버스정류장 개선
	
삼지내마을 가로등 설치공사(2013년)	유천1구 다목적회관(공사비: 446백만 원)
	
삼천리 마을회관 정자	삼천리 마을회관

3) 함평군 운곡·모평마을

① 상곡 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1리, 상곡2리, 산내리 일원
- 사업비 : 5,0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2005년부터 진행된 상곡리 권역(모평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는 운곡·모평 마을은 생태 전원마을 육성을 목표¹⁰⁷⁾로 하여 진행되었다. 전통 요소가 가미된 물레방아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현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림 4-57]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표 4-22] 함평군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명			비고(예산 설계금액)
1	2009년 모평 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누에가공공장 건립	405,703,000 원
		한과작업장 건립	-
2	모평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2016년)		46,000,000 원
3	한옥형 화장실 신축 1동		38,215,000 원

107) 전라남도청 내부자료(2016).

사업명			비고(예산 설계금액)
4	마을 환경 정비	고택 정비 및 물레방아 복원	
5		마을활성화센터 건립	
6		뽕나무공원 정비	
7		담장 정비	
8		천연보호림 주변정비	
9		운곡마을 쉼터정비	
10		하모마을 쉼터정비	
11		하모마을 담장정비	
12		석류거리 조성	
13		송산제 정화 연못 조성	
14		등산로 정비(임천산 등산로)	
15		고인돌 주변정리	
16	상모지구 행복마을 공공기간시설사업	정보화 시설	447,691,000 원
		한옥 정자	
		부대공사	
17	배수로 정비		
18	생활오수처리시설		
사업비 합계	5,010백만 원		

□ 마을 환경 정비 사업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된 특성 중 하나는 마을의 자연환경 및 조정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모평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레방아는 마을 내 존재하던 4개의 물레방아 중 하나를 복원한 것이다. 해보천은 치수를 위하여 직선화 사업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운곡마을과 모평마을 사이에 인공 섬을

조성하여 경관 요소를 도입하였다.

복원 및 신규 조성 등의 방법 외에도 기존에 존재하던 마을 숲에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화하였으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조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림 4-58] 물레방아 복원(좌) 및 인공 섬 조성(우)



[그림 4-59] 조경 시설물(울타리, 좌) 설치 및 마을공원 조성(우)

□ 담장 정비

모평마을 일대의 담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모평마을은 마을의 주도로부터 담장이 나타나므로 경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촌지역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삼지내마을과 달리 마을의 담장 중 그 원형이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한옥별로 담장을 쌓는 방식 및 재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벽사와 임천정사는 1937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¹⁰⁸⁾, 담장의 원형이 보존되

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수벽사 담장은 마을의 담장과 재료의 사용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담장의 정비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원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60] 마을 담장(좌), 수벽사 담장(우)

□ 고택 정비 및 한옥보존 건립사업

상곡리 권역 농촌사업은 해보농공단지 건립이 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한옥마을의 특색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마을을 정비하고 옛 가옥을 정비하여 한옥체험시설로 변경하는 등 관광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는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옥의 정비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61] 모평헌 숙박시설 개보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한옥보존 건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2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상모지구 38동의 한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현재 이 예산이 한옥

108) 전라남도청 내부자료(2016).

보존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함평군은 한옥보존시범마을 및 행복마을 사업에 도비만을 지원하였을 뿐, 자체적인 군비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농촌지역 권역사업의 한 축으로 한옥보존에 대한 가치를 담은 사업이 구성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 마을쉼터 정비

마을쉼터 정비는 주로 정자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식재 등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운곡·모평마을에는 이와 같은 휴식공간이 4개소가 설치되어있다. 하모마을의 경우는 마을 진입공간을 석류길로 만들어서 석류를 식재하고 그 길을 마을쉼터까지 연결하였다. 상모마을의 경우는 도로확장 공사 이후, 소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해보천 인근에는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설치하였다.

정자를 마을쉼터로 조성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보편적인 공간구성의 수법이다. 정자는 벽체에 미장공사가 없어서 다른 한옥 건축에 비하여 유지보수가 수월하다. 다만, 주변 환경 및 계절에 따라 사용빈도의 편차가 심한 단점이 있다.



[그림 4-62] 하모마을 쉼터(좌), 산내길 쉼터(2016년 11월 도로확장 공사 후, 중), 상모마을 정화연못(우)

□ 해보농공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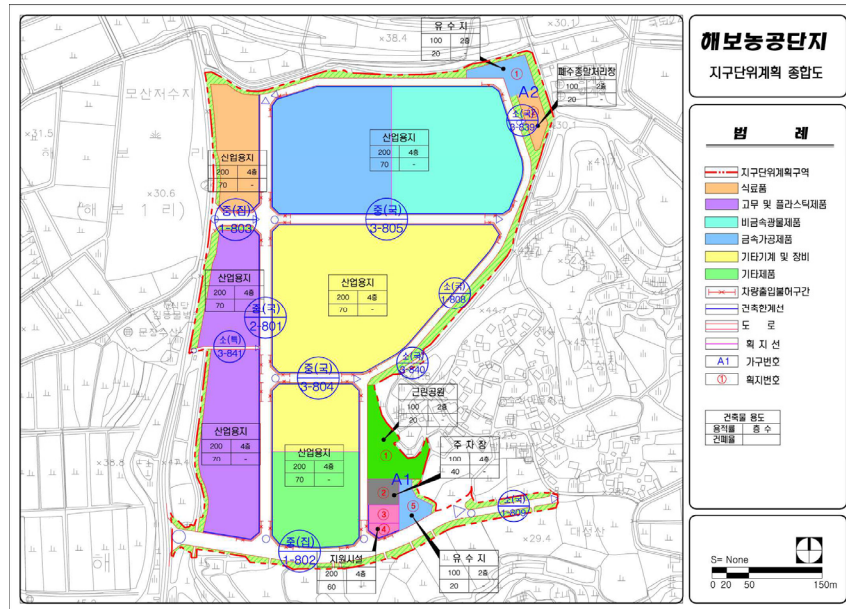
사업 초기단계에서 함평군은 상모마을 일대를 단지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구상하였다. 그 구상은 ‘농업의 과학화’를 주된 방향으로 삼아, 주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생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에 지원하여 자연적인 소득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현재 이와 관련된 농공단지는 상곡리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보농공단지의 구체적인 조성은 2012년 7월 이후에 진행되었다.¹⁰⁹⁾ 현재 해보농공단지는 제2종지

109) 함평군청 내부자료(2016).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림 4-63] 해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림 4-64] 해보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출처: 함평군(2012), 함평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p.130(부록).

□ 기타 지원사업

모평마을에서는 담과 도로사이의 배수로를 만드는 정비사업이 있었다. 담의 하부의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배수로를 인접하여 설치한 것은 기능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일부 전통마을에서는 마을 내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사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했었다. 한옥마을 전통적 맥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기능의 적절한 배치를 고려해야한다. 운곡·모평마을은 우물 및 마을 진입도로 역시 시설물 설치 및 식재를 통하여 특성화하였다. 특히, 운곡마을 남측에는 「해보 상곡리 운곡 지석묘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고인돌로서 군을 이루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고인돌 주변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이 있었으나, 별도의 진입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표 4-23] 상곡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타 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타 지원사업	
	
안샘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석류거리 조성	고인돌 주변정리

4. 소결: 농촌지역 한옥마을 변화 진단 종합

본 연구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마을별 특성에 따른 공동체 구성과 지역산업이 다르므로, 각기 다른 지원사업의 양상이 있음을 이해하였다. 반면, 한옥 지원사업의 경우는 유지보수 및 대수선에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신축·증축에만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살펴본 구림마을, 삼지내마을, 운곡·모평마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을 수립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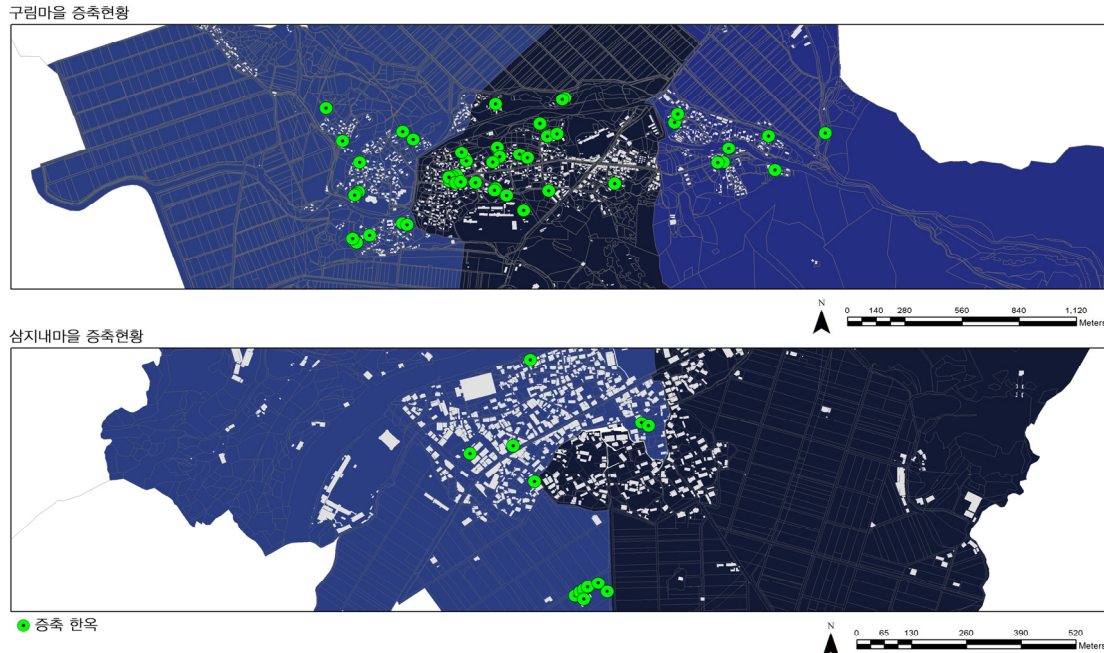
한옥보존시범마을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되었다. 2016년 12월 현재,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향후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제도적 안정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현황조사 결과를 통하여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제도적 경계 및 의미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① 한옥 대수선 및 보수행위에 대한 지원 마련

본 연구는 농촌지역 한옥마을이 보호 및 보존정책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의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현재 농촌 한옥은 ① 한옥마을로 신규 조성된 경우, ② 문화재 등 유산관리 제도로 관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옥이 형태적 완전성을 보전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와 같이 한옥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적 도구에는 한옥의 보전을 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한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수선행위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수선 및 지속적인 경미수리에 의한 한옥의 보호는 기존 한옥의 가치 인정과 보호에 대한 공동체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이뤄내는 방안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과 거주자에 대한 교육을 요구한다.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원이 이루어진 5개 마을 중 연구 대상지였던 영암 구림마을, 담양 삼지내마을, 함평 운곡·모평마을에서 한옥 지원금이 대수선에 사용된 비율은 0%이다. 신축 이외에 지원된 경우는 증축인데, 한옥의 특성상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만 있을 뿐, 층수·높이를 늘리는 증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옥에서 증축행위를 통해 기존 건축물을 확장하는 것은 지붕구조의 해체와

변경을 요구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수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옥보존시범마을에서 이루어진 증축은 보수행위와는 무관하다.¹¹⁰⁾



[그림 4-65] 구림마을 한옥 증축현황(상), 삼지내마을 한옥 증축현황(하)

②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보전과 개발 공존 모색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도시지역 한옥마을과 달리, 특정 용도로 제한된 건축물로 계획하기 어려움 점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관광 중심의 한옥마을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농촌지역은 산업과 거주가 공존하여, 관광업 등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시설만으로 한옥을 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농업인구 이탈은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옥의 멸실 방지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거주자 확보와 교육이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농촌 인구에 대한 해법을 한옥마을의 보호 및 진흥 제

110) 구림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경계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서 한옥 증축이 활발하였으며, 삼지내마을은 한옥보존시범마을 밖에서만 증축이 이루어졌다. 구림마을의 60건에 해당하는 증축행위는, 이를 통하여 한옥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삼지내마을은 마을 내 증축행위가 0건이며, 이는 신축 또는 건축물대장 상에 기록되지 않은 경미수리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곡·모평마을은 한옥 증축행위가 0건이었다.)

도가 찾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농촌지역 진흥 관련 계획과 사업이 존재하며,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흐름은 마을 공동체 조직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마련이 선결된 후 물리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 농촌지역 한옥마을 지원정책은 한옥마을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이해하고, 마을의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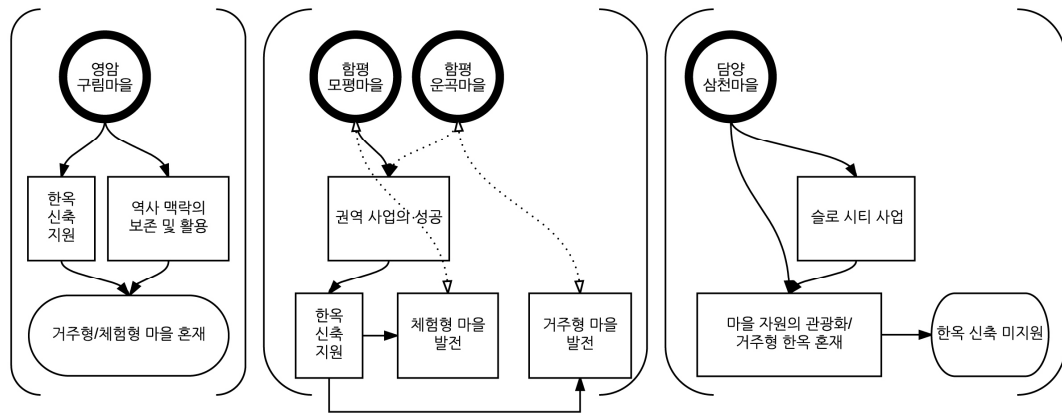
□ 농촌마을 건축자산의 발굴과 마을 정체성 확립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개발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농촌마을의 건축자산을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예비선정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색깔있는 마을」 제도로 선정된 마을은 전국에 걸쳐 571곳¹¹¹⁾에 이르고 있으며, 각 마을은 인프라지향형·가치지향형·경제지향형 유형으로 나누어 마을 정체성을 발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외에는 마을 내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무형의 마을자원을 개발·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므로, 기존 유형 자산의 조화를 찾아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건축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 일변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같이 마을의 유형자산을 발굴하고 보전·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마을의 범위 및 마을 내 한옥의 기능 설정

위에서 살핀 개발방향은 마을 공동체와 마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둘째 방향은 마을 내 한옥이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핀 3곳의 한옥마을 내 한옥은 기본적으로 한옥이 마을 내 경관을 형성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마을이 발전되면서 기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떤 새로운 자원이 투입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111) 농림축산식품부(2015), 정책분야별자료, 색깔있는 마을 선정 현황(2011~2014), http://www.mafra.go.kr/list.jsp?id=30683&pageNo=1&NOW_YEAR=2015&group_id=4&menu_id=72&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1&parent_code=71&link_url=&depth=2, 검색일: 2016.10.11.



[그림 4-66]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한옥의 기능과 마을 발전 방향

구림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역사적 맥락을 살림과 동시에, 한옥으로 구성된 건축자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1990년대부터 기획된 마을 발전방향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의 한옥은 거주민의 주택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외부인의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함평마을의 경우는 농촌지역 지원정책의 성공으로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옥신축이 지원되어 현재 모평마을은 체험형 마을로 발전하였으며, 그 배후에는 거주형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운곡마을은 한옥신축지원에 따라 거주형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담양 삼지내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외연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된 결과 역사적 맥락의 보존 및 상업적 활용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마을 내 건축물의 거주와 관광 자원화 사이의 한옥 기능에 대한 방향성이 혼재하는 문제로 한옥 신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4-67] 단양군 한드미 마을 영농조합법인(좌상), 홍성군 문당리마을 적정기술체험관(우상), 영암군 금정면 모정마을(하)
출처: (좌상, 우상) 네이버지도 로드맵, map.naver.com

이와 같이 한옥에 대한 기능설정은 마을의 전체적 경관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마을의 경제적 성공의 사례로 꼽히는 단양 한드미 마을과 홍성 문당리 마을은 마을의 공동시설을 한옥형태로 건축하여 공동체 사업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구림마을에 인접하여 위치한 영암 모정마을의 경우는 한옥신축을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한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사례는 마을 사업을 보조할 목적으로 한옥의 기능을 설정하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거주 기능을 위하여 한옥이 선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농촌마을을 이분법적으로 거주형과 관광형으로 분리하여 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개별 한옥의 기능을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마을의 현황을 이해하여 한옥 마을의 영역을 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③ 변형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군·마을 단위 규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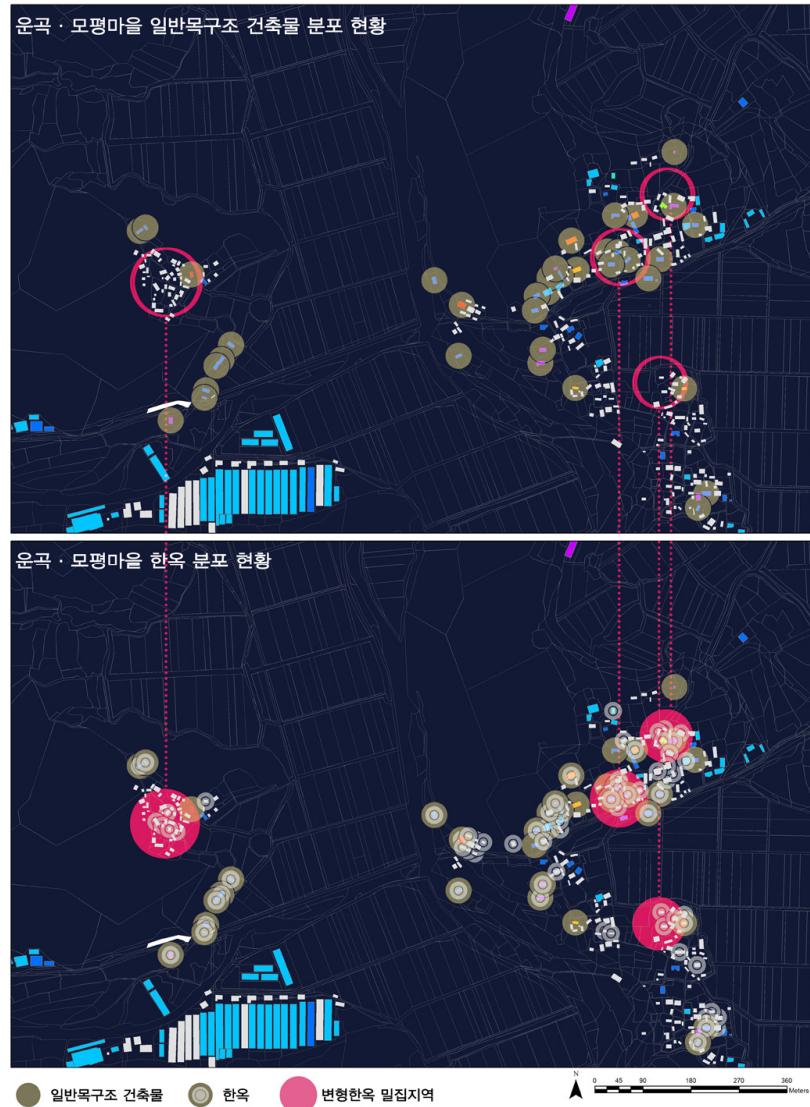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한옥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근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한옥과 근대 이후에 개량 보급된 한옥·새마을 운동의 여파로 개량된 한옥, 2000년대 초반부터 지어진 신축 한옥으로 시차적 차이를 두고 그 형태가 상이하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 중 3개 마을은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의 한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활성화된 한옥 마을의 경우는 변형한옥과 신축한옥이 상당부분 혼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시설인 마을회관·마을창고 등의 공동시설 역시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된 경우가 많고, 관광 등의 체험을 목적으로 한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도 마을을 구성하는 건축요소이다.

본 연구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농촌지역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건축형태를 규제할 도구가 부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지 없이는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는 한옥을 마을 자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마을공동체 합의에 따른 향후 한옥 건축의 방향성 모색

한옥이 마을의 건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한옥에 대한 양질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축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옥 밀집지역에 건축되는 목구조 외 건축물, 한옥이 아닌 일반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자산 및 신규 한옥 자산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마을 공동체 단위의

규약,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측면의 한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68] 변형한옥의 분포(운곡 · 모평마을 현황)

위의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중장기 건축계획을 담은 마을 보고서를 제작을 권장하는 바이다. 한옥마을은 개별 주택과 공공시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옥 밀집에 따른 경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변형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마을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1. 마을단위 한옥마을 보전·관리계획 수립
2. 농촌지역 지원사업과의 통합·연계 방안

1. 마을단위의 한옥마을 보전·관리계획 수립

1) 마을단위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활용

□ 농촌지역 한옥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마을단위 보전·관리계획의 필요성

농촌지역에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특정경관계획, 농어촌지역 관련법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 등은 주로 지역 및 권역 단위의 넓은 범위에서 수립되거나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옥마을을 보전하는 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전라남도의 ‘한옥보존시범마을’과 같이 한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개별적인 한옥 건축비용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마을 내 한옥을 양적으로 유지·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뿐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공간관리 차원에서 기능하지는 못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옥마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옥 및 농촌관련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한옥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어렵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마을 관련 계획을 한옥마을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농촌지역 지원사업들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마을단위의 관리계획은 마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들이 한옥

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마을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도입·활용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수단으로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구역 내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토대로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경관 계획 등의 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농촌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전통마을 정비나 지역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농촌관련 사업계획은 농촌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한옥마을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촌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면 마을 내 한옥 등 건축자산과 마을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고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한옥마을은 이미 농촌 및 한옥 지원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의 목적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라 농촌 및 한옥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지침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5-1]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현행	개정 건의(안)
<p>「한옥 등 건축자산법」</p> <p>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 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p> <p>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p>	<p>「한옥 등 건축자산법」</p> <p>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추가) 이 경우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p> <p>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 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p> <p>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p>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 수립방향

□ 자연환경, 농촌경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한옥마을의 범위 설정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일단의 관리구역으로 설정할 때에는 현재 남아있는 한옥의 밀집 정도나 형상 등 건축물을 주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마을이 본래 형성되었을 때의 자연적인 환경이나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농경지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민속마을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전통한옥이 밀집하여 남아있는 곳은 많지 않으며 주로 변형된 형태의 한옥이 분포되어 있다. 농촌지역 한옥마을을 관리하는 목적은 마을내 한옥 자체를 보존하는 것보다 여러 채의 한옥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던 전통적인 마을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마을을 경계 짓는 요소로 소산과 물길은 중요하며, 현재는 한옥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지역이라도 마을이 형성된 배경에서 중요한 곳이라면 마을의 관리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이라는 산업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을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농경지도 관리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민의 이해와 활용을 고려한 민간부문의 시행지침과 공공부문 사업의 관리방향 제시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은 도시지역에서 침해한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옥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민간부문 건축행위에 대한 시행지침과 농촌지역에 투입되는 각종 공공부문 사업의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한옥건축물에 대한 사항 뿐 아니라 비한옥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한옥이 군집한 마을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한옥을 짓도록 강요하거나 비한옥건축물을 한옥의 형태를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대신 비한옥건축물을 짓는 경우 한옥마을로서 마을의 정체성과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크게 두드러지는 형태는 지양하도록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내 창고 등 농업관련시설이나 마을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시설의 경우 현대 농촌마을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같은 특정 시설들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농촌 한옥마을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시행지침은 마을의 가로별 계획지침이나 주요 공간에 대한 개선방법, 기타 안내판, 가로등 등 공공영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농업지원시설, 관광시설 등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사업이 있는 경

우 이러한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공부문 지원사업을 구상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게 할 수 있다.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의 계획과정 도입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의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주민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잦지 않고 개발행위가 비교적 덜 일어나는 농촌지역은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과정이 도시지역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의 과정은 사도, 시·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공공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마을 주민들만으로는 면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추진 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으로서 이러한 조직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관리주체가 계획수립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표 5-2] 상향식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 건의(안)

현행	개정 건의(안)
<p>「한옥 등 건축자산법」</p> <p>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한옥 등 건축자산법」</p> <p>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는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2. 농촌지역 지원사업과의 통합·연계 방안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이법의 소관부처이 국토교통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촌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지원사업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한옥마을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마을에서 추진될 계획이 있거나 활용 가능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관리계획의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 농촌 한옥마을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연계 가능한 사업은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지원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대표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도 연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 내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어촌리모델링법」에 따른 법정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결국 농촌 한옥마을의 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의 각종 상위계획과 사업계획의 중간단계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어촌 경관계획,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문화재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과 부합하는 한편 상위계획에 근거한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한 중간설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5-3]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련 중앙정부 지원 연계사업 예시

구분		관련부처 (지자체 보조)	지원사업 내용
H/W	기반시설	농림수산물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재해대비 시설 등 - 경작로 확보장, 수리시설 설치 및 보강(농업기반정비) - 소규모 근린공원, 운동·휴양시설 조성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구상 중)
	건축물	농림수산물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문화·복지시설 조성 - 농수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저장고, 판매장 등 - 체험관광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사업 - 관광숙박단지 조성 등

		민간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빈집정비(철거비 지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주택건축 소요비용 저리 대출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S/W H/W	프로그램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학습, 도서관, 사회적 기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사업 - 지역주민 관광기업(숙박, 음식 등) 지원

사업의 실행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농촌마을 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 실행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나 협의체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로 일원화¹¹²⁾하여 운영하거나 각각의 조직이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과정을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 제도¹¹³⁾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는 여러 조직과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계획 수립이나 마을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각종 지원사업의 연계나 사업 실행조직의 통합·운영 등과 같은 농촌 한옥 마을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법령에 담기보다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및 시행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12) 실상 농촌마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마을리더를 발굴하기 어려워 각종 농촌 지원사업의 추진위원장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113)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농어촌리모델링법」에 따른 총괄계획가 등 관련 제도 참고.

참고문헌

단행본

- ICOMOS KOREA(2010),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ICOMOS KOREA
- 김상범 외(2013), 「농촌의 전통경관 보전 길라잡이」,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림수산식품부(2009),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한 번에 끝내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논문 및 보고서

- 강대구(2009),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 기준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v.16 no.3,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종범 외(2016),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사적지 인근 현상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지」, no.53,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김준(2003), “사회조직과 마을공간구조의 변동”,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 김홍식(2011), “전통마을 친환경 건축계획요소 분류체계 설정에 따른 창평 삼지내마을 적용실태 분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18권 제6호, 한국생활환경학회
- 문선옥(2011),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의 경관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 백승석 외(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ol.19, no.4, 한국농촌계획학회
- 이상민 외(2015), 「국토경관향상을위한농촌경관관리체계개선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정근식(2003), “구립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차윤정(2016), “로컬 서사를 통해 본 차이의 가능성 - 삼지내마을의 슬로시티 인증과 문화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제4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함평군(2012), 함평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함평군청

기타

CEMAT(2003),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Ewht(2007), “Edinburgh WHS Annual Review”, Ewht

Frank Matero(2000), “Ethics and Policy in Conservation”, Conservation Perspectives, The GCI Newsletter15.1.

ICOMOS(1987),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

ICOMOS(2011), “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2009), “Factory Farms and America’s Rural Heritag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Summer 2009*.

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2011), *OECD Regional Typology*, OECD

Unesco WHS(2011), “The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2011–2016”, UNESCO

World Heritage Center(2012),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유직, 한국농어촌지역발전학술단체연합회 포럼 발표, 2016.10.22.

한필원(1989), “농촌주거 근대화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공간』, 265호

웹사이트

Council of Europe(2016),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http://www.coe.int.>, 검색일: 2016.06.07.

ICOMOS(2011), “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http://www.icomos.org/Paris2011/GA2011_CIVVIH_text_EN_FR_final_20120110.pdf., 검색일: 2016.06.10.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 Preservation Leadership Forum(2006), <http://forum.savingplaces.org/viewdocument/preservation-based-strategies-for-r>, “Preservation Based Strategies for Rural Revitalization”, 『Forum Journal & Forum Focus』, 검색일:2016.06.07.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savingplaces.org/places/montana-schoolhouses#.WBcns9WLRhE, 검색일: 2016.10.31.
- OECD(2016), “Rural Development - the Issues”,
<http://www.oecd.org/governance/regional-policy/oecdworkonruraldevelopment.htm>,
 검색일: 2016.09.10.
- The National Institute of Anthropology and History - INAH(2016), “Resolution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 Activ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ups and Areas of Buildings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Conservacion.INAG.gob.mx.,
 검색일: 2016.06.19.
-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2016), “America’s Rural Heritage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Saving Places」, <https://savingplaces.org>,
 검색일: 2016.10.31.
- Unesco Office in Bangkok(2016), 「Asia-Pacific Heritage Awards」,
<http://www.unescobkk.org/> 검색일: 2016.10.11.
- 국가기록원(2016), “새마을운동 기록과 현장”,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semaul/field01.do>, 검색일: 2016.07.08.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2016), “색깔있는 마을이란”, 「농촌지역이야기」,
<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9&menu=12>, 검색일: 2016.11.12.
- 담양창평슬로시티삼지내마을, 「슬로시티창평소개」,
http://www.slowcp.com/truecms/web?site_id=10&menu_id=15&, 검색일: 2016.11.02.
- 문화재청, 「문화재검색」,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NS_04_03_01&mc=NS_04_03_01, 검색일: 2016.12.22.
- 영암군청, 영암 군기본계획 2020, https://www.yeongam.go.kr/download/city/plan_city05.pdf,
 검색일: 2016.07.0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62&page=5&SearchItem=&searchStr=&Gubun=&Cate=, 검색일: 2016.07.11.
-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지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3147&cid=43740&categoryId=44174>,
 검색일: 2016.07.08.

A Study on the Method of Preservation of Hanok Village on Rural Area through the Diagnosis of Change in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Jeollanam-do

Shin, Chihoo
Jin, Teseung
Kim, Jongbum

Rural villages are generally declining due to population decrease, demographic aging, and changes in rural economic activities. However many alterations are taking place in response to various supporting policies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Although there have been still remained Hanok villages that have preservation value in rural areas, the village of majority which are not designate as the cultural heritage continue to stagnate or decline alongside rural problems. These particularly have been losing its characteristics as a traditional settlement in the process of decline and change. In addition, understandably, conflicting values of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ten occur. In this context, the supporting policy for rural Hanok villages should be accepted wholeheartedly both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value. To do this, this study needs to synthesize change of Hanok village in rural area to diagn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in the rural area by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village according to th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ural villages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based on related law could be understood as a small town called Eup·Myeon and 'architectural assets' which have a value of grouped Hanok where more than ten Hanok are gathered within a range of boundary. Commonly, Hanok village in the rural area is a place where various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agriculture occur. It has living and production space related to agriculture, and there are a mixture of Hanok, transformed Hanok and non-Hanok architecture. The debate on the preservation of rural villages is based on the global tendency to try to change the heritage of rural areas in the aspect of economic growth. Such is the trend included the necessity meant foreclosing adherence of tradition. Changing demand of rural village needs a new approach of traditionality and placenes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Hanok village in the rural area was designated as 'Architectural Asset Value Enhancement Zones' according to th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but there is no guideline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rural area.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management plan to the rural areas mainly by establishing the district plan. In addition, the rural support system and plan are undergoing a hardware development without thorough regional investigation or planning. Therefore, it is limited to promote the identity of Hanok village in the rural area. The analysis of the rural Hanok village is conducted in three villages: Gurim Village in Yeong-am, Samjinae Village in Dam-yang, and Ungok·Mopyeong Village in Hampyeong. These villages receive practical help(subsidy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irst, the village of Gurim in Yeongam is the birthplace of the Buddhist monk in Baekje era and the great monumental family centered around the fourteenth-century. Moreover this community have been continuing. Gurim Village was designated as a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for preservation. However, there was no support for repairing and remodeling of existing Hanok, and only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of Hanok conducted on individual building units without regard to historical towns. As the rural support project, since 2007,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General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of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the Wang-in Village District has been promoted. There are public facilities such as museums, experiential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for cultural tourism, as well as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including agricultural processing plants, sports parks and shelters for residents' convenience facilities. Most of the newly constructed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large in size and area in comparison with the size of the village.

The town in Samjinae, Dam-yang, is a residential village of the Ko Clan in Changpyeong that has been construct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 are many buildings built from the 1890s. These are famous assets as old houses, stone walls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nd waterways flowing into the villages. Since the 2000s, there are only six new construction activities in historical area, and the overall village scenery is relatively well maintained. Accordingly, it is highly possible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value as an architectural asset through proper management. However, though the fact that many Hanok have remained vacant in the village, there has been no support for Hanok repair intended to protect the village. As a rural supporting project,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of rural villages in Changpyeong was promoted since 2003, and some of the facility maintenance projects such as repair of pavilions. Further, public buildings such as farmers' health promotion center and rice-syrup experience center were built as Hanoks. Samjinae has been designated Slow City also called Cittaslow movement and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ecause of this, the old fence was repaired and the village facilities are expanded inside and outside.

Although these projects for strengthening the identity as a traditional settlement could be linked in the whole context, there is no plan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village, and the improvement plan have still become fragmented and still be in the present situation.

Ungok·Mopyeong Villages in Hampyeong were the habitation in the beginning of the 15th century and grew into the residential villages of Papyung-yun. The villages are famous for its natural protection forests, old houses and pavilions. The area of Sanggok-ri includes Sangmo Village, Hamo Village, and Ungok Village. After designation of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four houses of Ungok Village were built with public support. The village of Sangmo is not a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village of traditional Hanok, but more than ten Hanok have been constructed as a 'Happiness Village Project' that collectively builds new Hanok. In the case of Ungok Village, there have been almost no existing Hanok. It is found that the layout of the newly built Hanok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preserving the traditional Hanok preservation village. Moreover the context of the Hanok is rarely followed. Even in the case of Sangmo Village, where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such as old houses are remained, the size and proportions of the new Hanok are not in harmony with existing houses. As a General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plans of the Sanggok-ri area was carried out in 2003, such as fence maintenance, pond construction.

In order to preserv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Hanok Village in rural areas and identity landscape of Hanok Vill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illage-based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and manage the spatial changes of villages according to an appropriate rural area projects. These result needs to be emphasized. In order to do this, ① The Hanok village in the rural area is designated as 'Architectural Asset Value Enhancement Zon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② The support act for the village preservation is systematically established. The realistic and effective acts for improvement are needed. ③ In the rural community support project, government should be looking for ways to add new business items related to architectural assets in the 'General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offer the opportunity to propose a business that can protect the Hanok and the village from the bottom up type business method. It is expected that sustainable policy support for rural Hanok village with preservation value will be possible by suggesting the basis and priorities for the rural support project through the village unit management plan and supplementing the blind spot of the comprehensive subsidy system.

Key words: Rural Hanok Villag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Architectural Asset Value Enhancement Zones, Hanok Conservation Model Village, General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